

자기주도형 봉사활동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청소년!

세계청소년자원봉사의날(GYSD) 우수활동 &
학교동아리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계사업

자기주도형 봉사활동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청소년!

세계청소년자원봉사의날(GYSD) 우수활동 &
학교동아리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계사업



자기주도형 봉사활동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청소년!

세계청소년자원봉사의날(GYSD) 우수활동 &
학교동아리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계사업



Global Youth Service Day

- 개념**
 - 세계청소년자원봉사의날(Global Youth Service Day)은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국제행사이다.
 - 전 세계 청소년들은 이 기간 동안,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한다.
- 비전**
 - 청소년들의 참여와 봉사활동을 활성화하는 단체들의 국제 네트워크 역량을 강화한다.
 - 지역사회 리더로서 세계 청소년들의 사회적 기여에 대해 일반 대중과 언론매체, 정책입안자들에게 알리고 교육한다.
 - 전 세계 청소년들의 봉사활동 요구에 부응하고, 시민사회 참여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 장소**
 - 세계청소년자원봉사의날(Global Youth Service Day)은 6대륙 100여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 주관**
 - GYSD는 미국청소년봉사단(Youth Service America)이 세계청소년 실천네트워크(Global Youth Action Network)와 함께 주관하고 있으며, 전 세계 100여 개국의 조직위원회 및 국제단체들과 컨소시엄으로 운영된다.
- 운영**
 - 세계청소년자원봉사의날(Global Youth Service Day)을 시행하고 있는 각 나라에서는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 역사**
 - 1988년 미국청소년봉사단(Youth Service America)과 대학생자원 봉사연합체(Campus Outreach Opportunity League)가 최초로“A Day in the life of youth service”라는 슬로건으로 미국의 컬럼비아를 비롯한 50개 주에서 약 1,000 여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 GYSD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 이 후 다양한 청소년포럼, 봉사활동 인식개선 등 약 1,500 여개의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지지기반을 구축하였으며, 2000년 미국청소년봉사단은 세계청소년자원봉사의날을 봉사활동의 성공적인 모델로 채택하여 GYSD를 공식적으로 설립하게 되었다.



Global Youth Service Day - in Korea

추진배경

- 2001년부터 (前)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세계청소년자원봉사자의 날(Global Youth Service Day)을 기념하는 국제적 행동에 동참해 오고 있다.
- 2003년에는 (前)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세계본부로부터 한국 GYSD의 추진책임을 맡는 NLA(National Lead Agency)로 지정되어 국내행사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前)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통합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그 역할을 승계하고 있다.

한국 GYSD의 발자취(활동주제)

- 2001 세계청소년자원봉사자의날 기념 실천결의대회 및 거리 캠페인
- 2002 三日天下, 세상을 뒤흔드는 젊은 액션
- 2003 전국청소년자원봉사주간 우수활동공모사업
- 2004 북한어린이돕기 전국청소년인라인스케이드 봉사대회
- 2005 스리랑가 쓰나미피해지원 대한민국청소년자원봉사단 파견
- 2006 청소년자원봉사 체험한마당
- 2007 세계청소년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 2008 다문화 자원봉사
- 2009 다문화 자원봉사
- 2010 다문화 자원봉사
- 2011 가족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성년의 날 기념 자원봉사
- 2012 소외청소년과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
- 2013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

2014 세계청소년자원봉사의날 (Global Youth Service Day)

- 개요**
- 주제 :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활동
 - 활동기간 : 2014년 4월 28일(월) ~ 5월 31일(토)
 - 대상 : 청소년(개인), 가족(청소년 포함), 청소년 동아리 · 단체
 - 주최 : 여성가족부 • 주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협력 : 전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
 - 후원 : 교육부, 중앙일보

참가청소년 : 8,366명(518건)

우수활동 청소년(우수기관 포함)

순번	부문	구분	지역	단 체 명	활 동 명	비고
1	청소년	최우수상	경기	류상혁	BWS 프로그램과 스포츠, 학습연계프로그램	장관상 (여성가족부)
2	가족		인천	김재은 가족	내! 나를 알다	
3	동아리 단체		부산	라운천사	우리 PROJECT 'LET 美人 청춘이여 돌아오렴'	
4	청소년	우수상	경북	이가량	외국인 근로자 한글교육 및 한국문화교육	이사장상 (진흥원)
5			경기	이은솔	초등 저학년 독후활동지도	
6			대전	장시윤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담쟁이풀 프로젝트	
7			서울	김재희 가족	신정종합사회복지관 방과 후 교실 일본어 지도	
8	가 족		서울	나눔을사랑하는 우리들	생태계 교란종으로 인한 환경파괴의 심각성 알리기 및 유실토 옮기기	
9	동아리 단체		강원	항가봉	마리아지역아동센터 벽화작업 등	
10			전북	과학탐구 동아리 C&C	어린이 및 청소년 멘토링 자원봉사활동	
11			서울	동감오케스트라	소외된 이웃을 위한 음악재능기부 봉사활동	
12			강원	강일의 여신 RCY	D.L.E.H.S.R	
13	기관	우수 기관상	특별 부문	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이사장상 (진흥원)

학교동아리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계사업

- 개요**
- 주제 :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자기주도형 청소년봉사활동
 - 활동기간 : 2014. 10. 26(일) ~ 11. 23(일)
 - 대상 : 중 · 고등학교 내 동아리 • 주최 · 주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우수학교 동아리

순번	부문	구분	학교명	동아리명	활동내용	비고
1	중학교	대상	부산양운중학교	더키퍼스	해운대 지역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이사장상 (진흥원)
2	고등학교	최우수상	부산관광고등학교	나눔	지적장애인과 함께하는 푸드테라피	
3	중학교		대전삼천중학교	소향무적	자원재활용 및 유기동물 보호 기금마련	
4	중학교	우수상	울산구영중학교	오투	수확한 농작물로 반찬 만들어 도시락 배달	

CONTENTS

SECTION 01 세계청소년자원봉사의날(GYSD) 활동소감

최우수상	류상혁	BWS 프로그램과 스포츠, 학습연계프로그램 • 08
	김재은 가족	내! 나를 알다 • 10
	라운천사	우리 PROJECT 'LET 美 人 청춘이여 돌아오렴' • 11
우수상	이가량	외국인 근로자 한글교육 및 한국문화교육 • 19
	이은솔	초등 저학년 독후활동지도 • 21
	장시윤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담쟁이풀 프로젝트 • 23
	김재희 가족	신정종합사회복지관 방과 후 교실 일본어 지도 • 24
	나눔을 사랑하는 우리들(가족)	생태계 교란종으로 인한 환경파괴의 심각성 알리기 및 유실토 옮기기 • 25
	항가봉(가족)	마리아지역아동센터 벽화작업 등 • 27
	과학탐구 동아리 C&C	어린이 및 청소년 멘토링 자원봉사활동 • 29
	동감오케스트라	소외된 이웃을 위한 음악재능기부 봉사활동 • 33
	강일의 여신 RCY	D.L.E.H.S.R • 34

SECTION 02 학교동아리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계사업 활동소감

대상	부산양운중학교 • 44
최우수상	부산관광고등학교 • 46
	대전삼천중학교 • 49
우수상	울산구영중학교 • 52

SECTION 03 부록

세계청소년자원봉사의날(GYSD) 우수사례 • 56
학교동아리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계사업 우수사례 • 114



자기주도형 봉사활동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청소년!

01

SECTION

세계청소년자원봉사의날(GYSD) 활동소감

BWIS 프로그램과 스포츠, 학습연계프로그램

청소년부문



백신고 3학년 류상혁

안녕하십니까?

2014 세계자원봉사의날 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한 백신고등학교 3학년 류상혁입니다.

먼저 이렇게 봉사를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축제를 벌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지혜 주신 아가페지역아동센터와 저를 반갑게 맞아주는 센터 아이들에게 고맙습니다. 또한, 항상 믿어 주시고 응원해주신 부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체력 증진 및 학교생활 자신감 향상을 위해 2년째 기획하여 활동하고 있는 스포츠 및 학습연계프로그램과 꿈 찾기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해 6개월 동안 진행하고 있는 BWIS 프로그램으로 봉사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및 학습연계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주로 토요일에는 주로 게임을 하고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아이들의 학습창작 활동, 학교생활과 체력 그리고 단체 생활의 예의, 룰 등을 지키는 것에 도움이 되고자 아이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만들어서 센터 아이들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위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아이들의 아픔과 안타까웠던 점 등에 힘을 보태고 싶어서 아이들의 자존감 향상과 진로의 희망이라는 BWIS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봉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및 학습연계프로그램에선 각종 스포츠 활동 및 응용, 실험 · 보드게임 등을 활용한 학습 창작 활동을 하고 있으며 BWIS프로그램은 놀이를 활용한 긍정 · 칭찬 형용사 단어쓰기, 직업세계 빙고게임 등 꿈 찾기와 관련된 내용을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힘든 점도 있었으나 아이들과의 지속적인 소통, 꾸준한 관심과 약속 지키기 등으로 아이들과 신뢰를 쌓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 아이들이 제가 기획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변하여 움직이는 것조차 싫어하던 아이들도 외부활동이나 신체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학습 활

동 연계 프로그램에서도 협동심과 배려하는 모습 등이 보이고 우리 아이들이 꿈과 관련된 질문이 많아지고 안될거라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해 볼 수 있다는 긍정 마인드가 생긴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원봉사를 계획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팁을 알려 주는 작은 봉사매뉴얼 책자인 “자원봉사의 정석 I”을 만들어 배포하였으며 관내 청소년센터에 중고도서 등을 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대학에 진학해서는 취약계층 아동들이 남을 도우며 자존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참여형 기부 봉사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과 사회공헌기업의 정보를 한 시스템에 통합하고 수급자들의 필요가 쉽게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 거점시스템 행정가가 되어 우리나라가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나라가 되는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모든 계획에는 아이들이 나중에 본인들도 커서 저처럼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런 봉사 활동을 할 거라는 얘기를 듣거나 운동을 싫어하던 아이가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는 등의 반응을 보일 때 그리고 미래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데 여러 가지 직업 등에 관심을 갖는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더 큰 행복을 느끼는 것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저의 작은 봉사에 큰 상을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상금을 어디에 기부해야 할 지 행복한 고민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나! 나를 알다

가족부문



김재은



나의 첫 봉사활동은 초등학교 5학년 때이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주관하는 어린이날 행사가 있었고 엄마께서는 행사 장소의 한 체험 부스에서 풍선으로 꽃과 동물들을 만들어 나누어 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계셨다. 아파트 주변의 자그마한 공원이었지만 어린이날 이어서 그런지 마을주민들과 남동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많이 모였었다.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여 봉사자들의 일손이 부족하자, 엄마께서는 초등학교 1학년 10명의 아이들을 내게 맡기시며 ‘인솔

교사’가 되어 줄 것을 부탁하셨다. 하루 종일 ‘인솔 교사’라는 이름으로 지역 아동센터의 아이들과 그곳에 있는 여러 체험부스들을 빠짐없이 돌아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날의 뿌듯했던 기억과 경험이 줄곧 마음속에 남아서 그 이후로 나는 가족과 함께 주말을 봉사활동으로 시간을 보냈다.

7년이라는 시간동안 가족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한 덕에 가족과 대화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으며, 나의 생활태도나 가치관에도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나에게 ‘해낼 수 있다’는 믿음과 ‘끝까지 노력해보자’는 끈기를 주었고, 예전에는 ‘내 것’만 챙길 줄 알았다면 이제는 먼저 베풀 줄 아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가끔 친구들에게 ‘봉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라고 물어보면 친구들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잖아’라고 흔히들 대답을 한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봉사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만이 아닌, 나와 함께 하는 사람과 행복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나에게는 하나의 목표가 있다. 봉사활동을 단순히 시간은 채우는 의무적인 일로만 아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는 행복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 그 사람들이 봉사를 통해 자신의 긍정적인 변화를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다.

우리 PROJECT ‘LET 美人 청춘이여 돌아오렴’

— 라온천사 —

동아리단체부문



✿ 6학년 [대표 청소년] 정승환

라온천사 활동으로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를 염색시켜드리고 사진 찍어 드리고 또 메니큐어도 발라드리고 안마도 해드리려고 하였지만 할머니들 밖에 안 오셔서 할아버지는 해드리지 못하였다. 하지만 많은 할머니들이 오셔서 다행이었지만 힘들었다. 난 사진을 찍는 팀인데 1층부터4층까지 계단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느라고 정말 힘들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랫미인 청춘이여 돌아오렴 프로그램 활동을 하였다. 다른 친구들과 기뻐하시는 할머니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면 정말 즐겁고 좋은 모습밖에 없어 기분이 나도 모르게 좋아졌다. 다른 담당을 맡은 친구들도 열심히 한 게 티가 나서 랫미인 청춘이여 돌아오렴 프로그램에 참여한게 참으로 의미 있었고 잊지 못 할 추억이었고 할머니들께도 잊지 못 할 추억이 만들어지길 바라며 무사히 활동을 마쳐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 4학년 강건 | 라온천사 ‘랫미인 청춘이여 돌아 오렴1’에서 할머니께 지압을 해드려서 정말 뿌듯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한 분도 안 계셔서 좀 서운했지만 그래도 할머니라도 오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내가 지압을 해드린 할머니 한 분이 시원하고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셔서 정말 좋고 뿌듯했





다. 그리고 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좋아하시는 할머니가 많아서 정말 다행이었다. 우리가 염색, 지압, 매니큐어 등을 하니 할머니들이 신기해하시는 것을 보니 왠지 뿌듯했고 우리가 잘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말 좋았다. 다음에는 할머니들께 기쁨을 더 많이 드리고 싶다.

✿ 4학년 전미진 | 그때 할머니께서 염색하고 계셨을 때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또 프로그램 활동도 재미있었고 할머니께서 염색이 잘 나와 뿌듯했고 하루 동안 미용사가 된 것 같았다. 그런데 할아버지 분들은 해드리지 못하여서 조금 아쉬웠다. 그리고 상장도 받았다. 역시 좋은 일을 하다보면 복이 저절로 들어오는 것 같다. 다음에도 '렛미인 청춘이여 돌아오렴'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과 느낌이 든다. 정말 재미있고 봉사활동이 이렇게 재미있는지 몰랐다는 느낌이 든다.

✿ 4학년 김진우 | 봉사활동을 하기 전에 주먹밥을 만들고 수박도 파서 화채도 만들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내가 만든 화채, 주먹밥을 드시니 정말 뿌듯했다. 그리고 내가 안마담당이라서 할머니, 할아버지께 안마를 해드리고 우리가 만든 꽃(카네이션)을 달아 드렸다. 안마를 할 때 팔이 아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였다. 그리고 매니큐어를 바를 때 나도 발리웠다. 어쨌든 힘들었지만 그래도 재미있었다.

✿ 4학년 정민석 | 내가 이 활동을 할 때 나는 지압을 하였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은 몹시 물감 물감하고 푹푹 들어가서 지압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의미 있었던 활동이었다. '렛미인 청춘이여 돌아오렴1'에서는 지압을 해서 재미있었다. 그리고 지압이랑 네일아트랑 같이 방울 써서 아세톤 냄새가 진하고 심했긴 했지만 아세톤 냄새에 적응을 하니 좋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지압하러 오시는 분이 없으셔서 한층 위에 있는 염색팀에게 까지 갔다 와서 처음엔 힘들지 않았지만 계속 왕복을 하니 힘들었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지압을 받기 전에 간식을 드신다는 것을 잘 알았다. 기회가 생긴다면 다음에도 또 하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팀은 염색팀이다.

✿ 4학년 최서현 | 할머니들께 염색, 네일, 지압을 해드렸다. 할머니들은 아주 좋아했다. 할머니들이 아주 많아 깜짝 놀랐다. 염색은 어려웠는데 다른 팀들은 잘 하고 있을지 생각했다. 할머니들과 함

께 사진을 찍고 아주 기뻐다. 만약 다음에도 한다면 이때 해드린 것보다 더 많이 해드리고 싶다.

✿ 5학년 김서현 | '렛미인 청춘이여 돌아오렴'을 했다. 나는 뒷정리 팀인데 머리 말리는 담당이었다. 염색팀이 할머니께 염색을 시켜드리기 전에 뒷정리 팀끼리 준비한 할머니들께 드릴 간식을 드렸다. 그리고 순서대로 한분, 한분씩 염색을 시켜드리고 기다리시는 분은 네일, 지압을 받고 계셨다. 나는 머리를 말려드리려면 아직 멀어서 없어지신 할머니를 찾느라 고생하는 애들을 도왔다. 1층~4층까지 뛰는데 봉래산 뛰어갔다 내려오는 것 같았다. 머리를 말려드릴 때도 할머니께 안 뜨거운지, 불편한데는 없으신지 물어봤다. 그리고 다하고 뒷정리할 때도 뒷정리 팀이 해야 하였기 때문에 힘들었다. 많이 힘들었지만 힘든 만큼 많이 보람을 느꼈다. 할머니께서도 좋아하셔서 기뻐다. 이 봉사과 비슷한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 5학년 강태예 | 렛미인을 하고 나서 염색, 네일을 해보았지만 아직 초보라서 실력이 부족해 할머니들께 제대로 실력을 못보여 주어서 아쉬웠다. 만약 내년이다 언젠가 다시 이 프로그램을 한다면 연습을 꾸준히 많이 해서 실수하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는 내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시즌 1,2를 하고 나서 3시간 이상 동안이나 해서 힘들었지만 최선을 다해서라도 염색과 네일을 하고나서 뿌듯하고 더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만약 똑같은 프로그램을 한다면 또 다른 새로운 과에 들어가고 싶기도 하다~.

✿ 5학년 최원영 | 라온천사 렛미인 청춘이여 돌아오렴 1을 하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다. 처음에 염색하는 것이 정말 서툴렀지만 친구들과 같이 하며 격려도 해주었다. 그래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염색을 차근차근 했다. 여러 명의 할머니를 보면서 "열심히 해야지!!"라고 계속 생각했다. 염색약 냄새 때문에 꽤 힘들었는데 "안녕하세요!"라고 반갑게 인사를 드리니까 "그래!"라며 웃으면서 대답해 주셔서 별로 힘들지가 않았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해드렸다. 매우 보람 있었다.

✿ 5학년 박소정 | 라온천사 렛미인 청춘이여 돌아오렴 1을 하면서 팀을 짜고 나눠서 물건도 사고 하면서 많은 연습을 하였다. 실제로 라온천사 렛미인 청춘이여 돌아오렴을 하였을 때 각자 팀을 짰대로 뒷정리 팀, 염색 팀, 사진 팀, 네일, 안마 팀 마지막으로 안내원 이렇게 활동을 했을 때 나는 뒷정리 팀이었는데 머리 말리기를 하였다. 아직 염색이 안 되신 분이 있어서 쉬고 있는 동안 할머니들이 염색이 끝날 때까지 다른 애들이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멋졌다고 하겠다. 할머니들

께서 머리를 감고 나서 머리를 말려드렸을 때 우리 할머니도 생각이 났다. 우리 할머니도 염색을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다음에도 더 많은 노력으로 할머니, 할아버지께 염색해드려야겠다.

✿ 5학년 이수빈 | 랫미인 청춘이여 돌아오렴을 하며 안마를 하는 법을 알았다. 나는 많은 사람의 안마 담당을 맡았다. 힘들기도 하고 손에 무리가 가기도 했었다. 많이 힘들고 지쳤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 재미있었다. 힘들었지만 그만큼 얻은 결과가 있었다. 다음에도 하고 싶다.

✿ 5학년 이보경 | 랫미인을 할 때 처음에는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다. 성함을 적으러 여기저기 뛰어다녀서 좀 힘들었다. 성함을 계속 받는데 할머니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기분이 아주 최고였고, 뿌듯했다. 그리고는 집에 가는데 마음 한 구석이 너무 따뜻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내가 뛰어 다닐 때 할머니 한 분이 없어지셔서 걱정이 되어 뛰어다니다가 할머니를 찾았다. 걱정이 없어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모두가 그때 아주 뿌듯하고 기쁜 순간이었을 것 같다. 다음에도 랫미인을 한다면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진짜 손녀처럼 해드리고 싶다.

✿ 5학년 이현준 | 랫미인 청춘이여 돌아오렴을 할 때 나는 손지압을 해드렸다. 할머니께서 지압을 받으시면서 꼭 손자 같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나는 너무 기뻐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다음에 이런 활동 한 번 더 하면 꼭 다시 오셔서 안마를 받으신다고 하셔서 의욕이 생기고 뿌듯했다. 힘들고 팔과 어깨, 허리가 아프고 고생한 것 같았지만 할머니들께서 마지막까지 칭찬을 해주시니 힘이나도 기분이 좋았다. 다음에도 이런 활동이 있으면 힘들보다도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할 것이다.

✿ 5학년 박우석 | 랫미인을 할 때 염색과 지압, 네일, 사진찍기를 했는데 난 그 중 사진을 담당하였다. 처음에는 긴장이 너무 많이 되었다. 염색하는 것도 사진 찍고 지압하는 것, 네일, 머리감겨 드리는 것 까지 사진을 찍었다. 사진을 찍는 것 힘들지 않았는데 층을 오가느라 힘이 들었다.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께 좋은 것을 해드린 것 같아서 즐겁고 좋았다. 만약 다음에도 한다면 이 때 해드린 것보다 더 열심히 해드리고 싶다.

✿ 6학년 김민준 | 랫미인 청춘이여 돌아오렴을 우리가 직접 기획하고 기획한 것을 친구들과 함께 영도구 노인복지관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안마, 네일아트, 염색 등을 하였다. 힘들었지만 할머니들이 좋아하셔서 기분이 좋고 뿌듯했다.

✿ 6학년 김기담 | 우리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할머니들의 몸이 풀리고 기분이 좋으시고 기뻐하셔서 나도 기분이 좋았다. 그렇지만 어린애들이라고 무시하는 분들을 보면 좀 서운하기도 하며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인정 하시게 하고 싶었다. 그리고 네일아트로 손톱을 알록달록하게 하는 것을 보면 랫미인 청춘이여 돌아오렴이라는 제목이 맞는 것 같았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르신들 모두가 좋아하시니까 우리가 해드린 것들이 모두 노력이 있기에 보람도 있었다. 다음에도 하게 된다면 좀 더 많은 종류로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

✿ 6학년 강소연 | 랫미인 청춘이여 돌아오렴을 하면서 내가 한번도 하지 못했던 할머니 염색해드리기, 안마해드리기, 네일 해드리기를 하게 되어서 색달랐고 D.I.Y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활동이어서 스스로 무언가를 기획하는 봉사활동 이므로 정말 즐겁고 내가 많은 것을 하고 할머니들이 좋아하셔서 뿌듯하고 뜻 깊고 내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내가 맡은 역할을 통해 나의 재능에 대하여 알게 되어서 기뻐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남을 위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정말 뿌듯하고 즐겁고 행복했다.

✿ 6학년 이수연 | 라온천사에서 D.I.Y 자기주도형 자원봉사에서 우리가 랫미인 청춘이여 돌아오렴을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긴장이 되었지만 긴장을 풀고 하니 너무 재미있었다.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잠시나마 청춘을 만끽하셔서 좋아하시니 너무 기뻐했다. 또 어르신들께서 “고마워, 머리 이쁘게 됐네.” 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기뻐했다.



무 뿌듯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들과 우리들이 준비하고 염색하여 좋았다. 다음에도 D.I.Y 자기주도형 자원봉사를 하여 또 한번 더 뿌듯함을 느껴보고 싶다.

*** 6학년 이진영** | 봉사활동을 하였을 때 할머니들께서 기뻐하셔서 나도 기뻐다. 나는 사진담당으로 3층에서 사진을 찍기로 하였다. 네일아트를 하고 계시는 할머니께는 “손좀 보여주세요” 하고 손을 찍어드리고 손지압을 받고 계시는 할머니도 사진을 찍어 드렸다. 손지압을 친구들이 시원하게 해드리고 있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표정이 편안한 표정이였다.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셔서 나도 기분이 좋고 뿌듯하였다.

*** 중1 박진희** | 나는 네일아트를 맡았는데 처음에는 어르신분들이 내가 잘못 네일을 하면 톡! 하고 튀어나가면서 화를 버럭! 하고 내시며 혼내실 줄 알았는데 “허허”하고 웃으시면서 괜찮다고 다시하면 된다고 말을 해주셔서 뭔가 감사하였다. 그리고 네일아트를 할 때 어르신들께서 옛날이야기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어르신분께 “정”을 느꼈다. 일부러 늦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계속계속 다음 사람들이 줄을 서게서서 빨리, 정확하게 해드렸다. 메니큐어 냄새가 진동해서 머리가 핑돌고 아팠는데 어르신분들과 같이 웃으며 이야기를 주고 받다보니 메니큐어 냄새도 머리가 아픈 것도 하나도 기억 안 나서 네일을 하는데 집중을 할 수 있었다.

*** 중1 김미진** | 2013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여 이번년도 2014년에 처음 이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생각한 것 보다 훨씬 즐겁고 훨씬 재밌고 알 찬 활동이었다. 첫 활동으로 영도구 노인 복지관에 찾아가 어르신들 염색을 해드렸는데 이 활동을 통해 염색을 할 줄 알게 되었고, 염색을 해드리며 어르신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누고 새로운 기술도 습득하게 된 것 같다. 그리고 염색을 해드렸던 어르신과 사진도 찍고 간식도 나누어 드리고 하면서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자원봉사보다는 좋은 추억으로 남게 될 것 같다. “봉사활동은 힘든 것이야” “봉사해봤자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은 없어” “봉사는 청소같은 것만 하는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렛미인 청춘이여 돌아오렴> 활동으로 자원봉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범위가 넓고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로 그 고정관념도 깨뜨리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알게 된 것 같다. 염색해드리는 것 외에도 안마 팀, 네일 팀, 지압 팀, 홍보(기획) 팀, 뒷정리 팀 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네일 팀’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조금 아쉬웠다. 1기를 끝내고 반응이 좋아서 2기를 하게 되었다. 1기에서는 하지 못하였던 네일팀을 맡게 되어서 뭔가 느낌이 색달랐고 무척이나 기대가 되었는데 해보니 예상대로

조금 힘들었다. 염색할 때 보다는 쉬울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직접해보니 네일이 조금 더 힘이들었던 것 같다. 어르신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많으셔서 힘이 들었지만, 해드리고 나니 함께 사진도 찍자고 하셔서 뿌듯함은 정말 컸다. 이렇게 <let 미(美) 인(人) 청춘이여 돌아오렴> 활동으로 얻은 것도 많고 많은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서 뿌듯하고 자원봉사였지만, 봉사라기보다는 체험학습을 한 듯한 느낌을 받아서 힘들기 보다는 마냥 즐겁고 좋은 시간이 된 것 같다. 그리고 자기주도형 봉사활동으로 학습에도 도움이 된 것 같아 정말 뿌듯하고 확실히 많은 것을 깨닫고 알게 된 것 같다. 또 한 번 다른 활동도 계획하여서 실행해보고 싶다.

*** 중1 장유빈** | 제일 처음 “LET美人 청춘이여 돌아오렴”을 기획할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흰머리를 없애드리고, 청춘을 한 번 더 돌려 드리고 싶어서 기획하였다. 나는 제일 먼저 홍보팀에서는 어디에서 할지와 몇 명소실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전화도 돌렸다. 그리고 홍보지도 작성하였다. 그리고 나는 염색팀에 합류하였는데 염색 실습할 때 염색약을 섞는 법, 세팅(수건묶기, 염색 가운 입혀주는 방법, 고정핀 착용법 등)을 알고 난 후에 다른 지압팀과 매니큐어팀을 도와주었다. 실습을 도와주었는데 꽤나 잘 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난후 며칠 후 영도구 노인복지관에 갔다. 가서 우선 출석체크를 하고, 염색팀에서는 염색준비를 하였다. 할머니들이 오시면 원하시는 색이 다 달라서 복잡하기도 하였다. 초코 브라운 색이 가장 짙고 독했지만 견딜만 하였다. 오시면 핸드크림을 발라드리고, 수건을 묶은 후 비닐을 씌워 드리고, 염색가운을 입혀드렸다. 그 후 고정 핀으로 고정시켜 염색약으로 머리에 발라드렸는데 발라 드릴 때 흰머리가 많이 자란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드렸다. 몇 분은 엄청 무섭기도 하셨는데 거의 다 착하시고 어린데 할 수 있냐고 걱정하시는 분도 많이 계셨다. 걱정과 달리 잘되었는지 웃으시며 사진촬영하시는 할머니분도 계셨고 매니큐어 바른 것을 자랑하시는 할머니도 계셨다. 할아버지도 계실 줄 알았는데 안 계셔서 아



청소년부문



이기량

외국인 근로자 한글교육 및 한국문화교육



쉬웠고, 하지만 밥과 간식을 드리고 얘기도 하였는데 손자 같아서 예쁘다고 해주시던 할머니 말씀을 듣고 이런 게 봉사를 하는 이유구나! 진짜 뿌듯함을 느끼고 더 열심히 해봐야지, 다음에도 또 와서 봉사 하고 싶다. 라는 생각도 들었다. 처음에 실수하면 어떡하지? 라는 초조함이 한순간에 썩! 사라지며 오히려 친숙함도 밀려왔다. 만약 진짜 봉사의 의미, 기쁨을 알고 싶은 친구에게 꼭 한번 해보라고 말 해주고 싶다. 나 뿐 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느낌을 전해주고 싶었다. 이 프로젝트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워 한층 더 발전된 나를 보니 되게 뿌듯하며 자신감도 생긴 것 같다. 철없던 나를 성숙 하게 해준 활동 중 하나인 만큼 나에게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다.

✿ 중1 이은서 | 우리가 처음으로 직접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라서 떨리고 기분이 좋았다. 노인복지 관에 들어가자마자 준비를 일러주고 어르신들을 기다렸을 땐 너무 설레고 조금은 떨렸다. 어르신들이 오시고 우리가 준비한 것들 (염색, 매니큐어등)을 직접해드리는데 어르신들이 좋아해주셔서 더 열심히 하게 된 것 같다. 특히 염색을 하시고 ‘흰머리가 없어졌다.’, ‘예쁘게 잘됐다.’ 등 그 말을 들었는데 정말 듣기 좋았다. 우리가 직접 말동무를 해드렸는데 어르신들이 라온친구들이 너무 작하고 예쁘다고 해주셨는데 내가 더 기분이 좋아졌다. 다 끝나고 어르신들을 보니 더 예뻐하시고 좋아해주셔서 더 뿌듯했다. ‘청춘’이란 말처럼 정말 어르신들이 청춘이 돌아온 것 같았다. 힘들었지만 어르신들이 기뻐하셔서 한번 더 해보고 싶었다.

✿ 중1 유경은 | 처음엔 내가 어르신들에게 염색을 잘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이 많이 되었다. 염색할 때는 그 걱정을 안했으면 했는데, 긴장한 탓에 실수를 조금 많이 하였다. 그래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염색을 하신 어르신이 “내 젊을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좋구나”, “흰머리가 많이 없어졌네!” 하며 정말 기분 좋아 하셨다. 그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염색해드리면서 축 처진 기분이 금세 좋아지고 활발해졌다. 덕분에 염색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분 좋게 했던 것 같다. 또, 어르신분들이 우리를 손자 손녀라고 생각해주셔서 나도 어르신이 우리 할머니 같은 느낌이 들었다. 서툰 솜씨였지만 어르신들이 행복해하시고 즐거워하시니까 정말정말 뿌듯하였다. 염색하는 동안은 힘들고 지쳤지만 하고 나서 얻은 뿌듯함이 더 컸기 때문에 내가 어르신들과 함께 웃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이 번 활동이 나에게 도움이 정말 많이 되어서 활동했던 시간들이 다 소중 했다. 다음에도 이 활동을 또 하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정성을 다해 지금보다 더 잘해드려야겠다.

처음 저는 이 대회에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의지만큼,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3이 대회에 참여해서 뭐할래?”라는게 함께 참여하자고 권유했던 친구들, 지인들에게 들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지만 수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참여해서 수료증이라도 챙겨 보란 듯이 자랑해야지 하는 등의 오기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회의 주제는 우리 주변의 ‘소외 계층’이었습니다. 참 쉬운 듯 하면서도 자칫 식상할 수 있기에 대상 선정에 대해 신중히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토요일이 되었고, 늘 그렇듯 “포항시 북구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센터는 제가 포항으로 전학을 온 이후부터 지인을 통해 알게 되어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꾸준히 가게 되었고 시간이 된다면 노력해서 일요일 아침에도 직접 센터로 가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곳입니다. 포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 중 힘든 일이 있거나 비자 문제, 각종 보험 및 건강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센터에서 상담 뿐 아니라 도움을 주고 여러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무료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알려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의 저는 센터에서의 가장 어린 나이임을 이용하여 비슷한 또래인 외국인 학생들에게 처음으로 한류열풍을 이용하여 K-POP노래의 가사와 드라마, 영화의 대본 등을 사용하여 한국어 회화 수업 뿐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외국인 근로자들과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외국인 학생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소외 계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날 밤 결국 저는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4 세계 청소년 자원봉사의 날(GYSD)”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대회에 참여하고 결과를 제출하면서도 수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

청소년부문



Saint, James School 10학년 이은솔

초등 저학년 독후활동지도



중학생이 되면서 친구들이 공원 야간 방법, 어린이집 청소 등 봉사시간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이리저리 다녔다. 나는 엄마께 나도 봉사를 해야 한다고 의논 드렸더니 엄마께서는 “은솔아! 봉사는 시간 채우기식보다는 진정한 봉사의 의미가 있는 걸 하자.” 하시면서 봉사할 곳을 찾아보라고 하셨다. 엄마는 평소에 ‘어린이도서관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중학교 특수반과 지역 어린이 도서관에서 책읽어주기를 하고 계셨다. 엄마는 안양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여가저기 수소문한 끝에 석수동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를 하면서 독서지도를 하는 게 어떠냐고 물으셨다. 그래서 석수지역아동센터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다. 초등 1학년부터 저학년 친구들과 책읽어주기를 하면서 독서지도로 통하여 넓은 세상에 대해 알려주므로써 그들의 눈을 조금이나마 넓혀주고 싶은 것이 나의 자원봉사의 목표였다. 그러나 이 웅대한 목표는 친구들을 만난 첫 날 깨져버렸다. 처음 만난 친구들이 내게 한 첫 마디는 “선생님은 언제까지 오실 거예요?”였다. 아이들은 무언가 새로운 거, 좋은 거를 가르쳐주는 선생님보다는 오랫동안 함께 해 주는 언니, 누나가 필요하다는 걸 그 첫 마디에 알았다. 이 곳 같은 지역 아동센터에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은 많지만 처음의 생각이 지속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몇 개월 오다가 시간이 없어서 안 오시거나 아예 연락도 없이 봉사를 그만 두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그 때부터 나는 독후지도 선생님이 아니라 함께 놀아주는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하는 언니, 누나가 되는 것이 내 자원봉사의 목표가 되었다.

첫 봉사 날 나는 친구들에게 책읽어주기 시간에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에 대해 말했다.

1. 책읽어주기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 노는 시간이다.
2. 책읽어주기를 할 때 자세는 각자 편하게 한다. 앉아서 들어도 되고, 누워서 들어도 된다.

다. 토요일, 일요일 해봐야 하루에 3시간만 받는 활동이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동안 많은 봉사 시간을 누적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자면 수상은 헛된 꿈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잊어지려 할 무렵 집으로 수료증만 도착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수상은 아니겠다 라고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또 잊으려 할 무렵 전화 한 통이 왔고, 그 전화는 제가 무려 우수상을 수상했다는 소식 이었습니다. 정말 생각도 못했기에 상장을 수령할 때 까지도 실감이 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나이. 평소에도 고3이 무슨 봉사활동이나, 대회 활동이나 라는 등의 주변에서의 편견을 많이 듣고 있었고 봉사활동을 정말로 좋아하고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교내의 RCY 대한적십자 동아리에서도 학교 대표라는 자리를 맡아 교내, 외 에서도 단체로도 활동을 하지만 그런 편견들 때문에 주눅이 들기도 하고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의문들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올바르고 좋은 일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되었고 그만큼 제 스스로에게 더욱 자신감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나 자리가 주어진다면 주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노력, 도전을 하겠다는 자세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시작한 일에 뜻밖의 보상을 받았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꼈던 지금을 잊지 않고 언제나 노력하고 지금처럼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꾸준히 봉사활동도 참여하여서 이 상장과 이 대회, 이 글에 부끄럽지 않은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재미없거나 다른 할 일이 있는 친구들은 다른 걸 해도 되지만 책읽어주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한다.

이 세 개의 약속을 하면서 시작된 봉사는 중학 1학년 겨울방학부터 시작되었다. 봉사는 쉬운 건 아니었다. 초등 저학년 친구들이라서 말도 잘 들을 거 같고 내가 의도한대로 따라와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나만의 착각이었다. 친구들은 의외로 거칠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친절하게 행동했다. 나보다 약하다고 느껴지는 아이에게는 공격적이기까지 했다. “친구랑 싸웠어”라는 책을 읽으면서 친구와 다투면 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 지, 친구와를 어떻게 사과하고 화해하는가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손바닥 동물원”을 읽고나서는 물감 놀이를 통해 감각기관을 자극하고 여러 동물 모양을 찍고 그려서 상상 세계를 걸어보기도 했다. “우체부 아저씨와 비밀편지”는 엄마 아빠께 혹은 좋아하는 친구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 마음을 전하기도 하고, “고구려 나들이”를 읽고는 고구려 시대의 벽화와 조각상에 대해 알아보고 나만의 벽화를 그려보기도 했다. “강아지 똥”을 읽고는 아이들이 스스로 연극대본을 만들고, 소품 등을 만들어 줄 인형극을 하기도 했는데 이 줄 인형극은 거의 한 달에 걸쳐 힘들지만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해냈다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책읽어주기는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을 읽고 어루만져주는 시간이었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느꼈다. 내가 그들을 돕겠다고 나섰지만..... 그것이 얼마나 헛된 생각이었고, 친구들을 오히려 나를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친구들은 책 읽기를 통해 닫혔던 마음을 열고 해맑은 미소와 천진스러움을 보여주면서 내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선입견의 벽을 허무는 내 인생의 네잎 클로버로 다가왔다. 그러면서 그들은 내 동생이 되고 친구가 되고 내 스승이 되었다. 2010년 중학 1학년 때부터 만난 동생들은 어느덧 5학년 6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었다.

지금은 내가 미국에 있다.

올해 여름 방학을 마치면서 유학을 오게 되서 지금은 친구들과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내년 여름방학에는 친구들과 다시 만나러 갈 거다. 그 때는 나도 내 클로버들도 더 자라 있을 거를 기대해 본다.
동생들아!! 내년 여름에 만나자.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담쟁이풀 프로젝트

청소년부문



은어송중학교 3학년 장시윤



‘나눔의 즐거움’, ‘함께의 소중함’. 항상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처럼 내가 나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하던 중 ‘세계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시키고, 알려줘서 하는 봉사활동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봉사활동을 직접 계획하고 활동할 수 있다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윤성이의 변화입니다. 윤성이는 다문화가정의 아이로 활동적인 놀이는 좋아했지만 책 읽는 것을 싫어하고 어려워했습니다. 또한 알고 있지만 생각처럼 말이 나오지 않아 가끔 말을 더듬는 습관도 가지고 있어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윤성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많이 생각하고 고민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성이가 재미있어하고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윤성이가 좋아하는 만화책을 소리 내서 함께 읽었습니다. 이렇게 매 활동마다 윤성이가 좋아하는 책부터 시작하여 교과서 까지 함께 천천히 소리 내서 읽는 활동은 꾸준히 한 결과 윤성이가 학교에서 ‘발표왕’ 스티커를 제일 많이 모았다며 저에게 자랑하고 즐거워하던 그 모습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의 작은 노력이 윤성이의 긍정적인 변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나로 인해 그들이 행복해지고, 내가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저의 이런 생각은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봉사는 제가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윤성이, 윤성이가 나를 행복하게 하고 함께 재미있게 활동하고 즐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알게 되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꾸준히 활동하여 나눔의 즐거움과 함께 할 때의 소중함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신정종합사회복지관 방과 후 교실 일본어 지도

가족부문



목동고등학교 3학년 김재희

일본에서 돌아와 주입식 한국공부와 문화적 이질감에 힘들어 하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한국점자도서관 40주년기념식에서 통역봉사 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외국어 능력을 살린 재능기부를 신청 하였습니다. 얼마 후 복지관 방과 후 교실의 연락을 받고 일본어교실을 개설하여 지금까지 5년여를 기초 일본어와 문화를 가르치는데 역점을 두고 수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소외계층과 맞벌이 자녀들로 처음에는 집중도 잘 못하고 글자도 못 쓰는 친구가 있어서 놀랐습니다. 저도 방과 후에 이뤄지는 수업이니 피곤할 때도 많았지만 아이들이 “선생님 저 학교 방과 후 일본어교실도 등록했어요.”라며 달려 올 때면 열악한 교육환경 속의 아이들이 일본어를 통해 더 넓은 세상으로 날아오를 기회를 안겨준 것 같아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고등학교 졸업 전에 저 나름의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참가하게 되었는데, 이런 큰 상을 받게 되어 쑥스럽기도 하지만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며 대학생이 되어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아이들에게 열심히 일본어를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태계 교란종으로 인한 환경파괴의 심각성 알리기 및 유실토 옮기기

가족부문



용인한국외대부고 2학년 6반 오예지

전 세계는 지금 산업화 이후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과 생태계 교란, 생물다양성 감소 등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매년 500종의 생물종이 사라지고 있으며 기후변화, 환경오염으로 인해 향후 더욱 빠른 속도로 생물다양성 소멸이 예상되고 있다.

‘나눔우리(나눔을 사랑하는 우리들)’는 2010년부터 초,중,고 연령대의 친형제, 이종사촌, 고종사촌이 함께 모여 지구살리기 환경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는 5년째 계속 이어오고 있는 가족봉사단체이다. 매해 회원들이 함께 모여 한 해 동안 함께 활동할 방향을 정하고, 토론과 회의를 거쳐 만들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홍보판을 만들어 그 해의 환경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문 교육기관의 교육이 필요한 경우는 전문교육을 이수받기도 한다.

올해 ‘나눔우리’는 우리나라 생태계에 커다란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생태계교란종(동/식물)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한 해 동안 지속적으로 관련 활동을 진행해 왔다. 주로 북한산국립공원에서 행사를 진행했는데, 우리가 직접 만든 홍보물과 우리들의 설명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생태계교란종에 대해 많은 경각심을 갖게 된 많은 시민들의 격려가 우리들의 활동에 큰



힘이 되었다.

또한, 북한산국립공원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실토(등산객들의 신발에 의해 유실되는 흙, 빗물에 쓸려 내려가는 흙) 문제 역시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비록 얼마 되지 않는 양이지만, 이러한 유실토로 인해 나무가 말라 죽고 숲이 죽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산 아래로부터 흙을 옮겨와 나무의 뿌리를 덮어주는 유실토 옮기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특히 2014년 5월 4일부터 2014년 5월 5일까지는 멀리 덕유산국립공원에 가서 1박2일 간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향적봉 대피소에서 머무르며 아고산대의 식물변화를 직접 관찰하고 구천동계곡의 외래종 무지개송어 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리고 연휴를 맞아 산을 찾은 수많은 탐방객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실천 방법을 안내하였다. 이들 간에 걸친 덕유산 프로젝트는 올해 진행한 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었다.

이번 GYSD를 통하여 '나눔우리'가 5년여에 걸쳐 진행했던 환경캠페인 활동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자리가 만들어져 우리 팀원 모두 매우 큰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되었고, 우리의 자발적인 활동에 대하여 더 큰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 '나눔우리'는 앞으로 지구 환경 보전 활동에 더욱 더 매진할 것을 다짐하게 되었다.



가족부문



마리아지역아동센터 벽화작업 등

강일여자고등학교 2학년 (가족봉사단 향가봉) 김연일

초등학교 때부터 고2인 지금까지 가족봉사단을 시작한지도 벌써 7년도 되었다. 아무것도 모르던 초등학교생인 나를 늘 데리고 가 토요일에 늦잠도 자지 못하게 하는 가족들이 그때는 너무 원망스러웠지만 1년, 2년 점차 시간이 지나갈수록 봉사는 나에게 봉사 그 자체 이상의 의미를 나에게 남겨주었다. 우리 가족봉사단은 20여가족이 등록되어 활동하는데, 활동일정이나 내용에 따라 가능한 가족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새해가 시작될 때 새 가족을 모집하고 함께 서로 나누는 프로그램을 통해 인사를 나누게 된다.

올해 봉사활동은 벽화봉사와 한문화재 한 지킴이 활동, 그리고 창포비누 만들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이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한 봉사 활동은 벽화 작업이었다. 벽화그리기를 시작하기 전 도안 정하기, 역할 분담하기 등 할 일이 생각보다 많았다. 차근차근 열심히 준비를 한 후 마리아 지역아동센터로 가 벽화작업을 시작했다. 물감들과 사투를 벌인 끝에 뽀뽀했던 벽들이 하나 둘 그림들로 채워져 화사해져갔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씩 그려 한마음으로 전체를 완성한 작품이라 그런지 더욱 뜻 깊게 느껴졌다. 그 다음으로 한 봉사활동은 임영관 한문화재 한 지킴이 활동이었다. 한문화재 한 지킴이란 소외된 문화재를 찾아 자발적인 참여로 지속적으로 문화재를 가꾸는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나도 이런 활동이 존재하는지조차 잘 알지 못했다. 처음 활동을 하기 위해 임영관에 갔을 때는 수북한 먼지와 바람에 의해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나



동아리단체부문



어린이 및 청소년 멘토링 자원봉사활동

- 과학 탐구동아리 C&C

전주근영여자고등학교 2학년 모채연, 최유민

못가지와 나뭇잎들 때문에 문화재라고 할 수 없어 보이는 상태였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청소를 시작하고 직접 바닥에 기름칠을 하면서 끊임없이 쓸고 닦고를 반복했다. 청소를 하러 간지 세 번째쯤 되자 바닥에서 반질반질한 윤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때의 뿌듯함은 아직도 잊혀 지지가 않는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창포비누 만들기 활동은 그동안 늘 해오던 활동이라 그런지 부담감보다는 기대감을 더 많이 가지고 시작했다. 북적거리는 단오장에서 아이들에게 설명해주며 비누를 만들어 줄때마다 아이들은 작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신기해하고 정말 즐거워했다. 매년 봉사활동을 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즐거워하는 모습들은 힘들게 느껴지던 봉사활동을 더욱 더 열심히 하고 싶게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가족봉사단에서의 봉사활동은 사람들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만남의 역할이 되어주기도 하고 자칫 잘못하면 가족들과 멀어질 수 있는 청소년기에 가족들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해 삶을 한층 더 행복하게 만들어줌과 동시에 나를 더욱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매개체의 역할도 해주었다.



또 저는 대구에서 개최된 제 3회 대한민국 창의체험페스티벌 전시체험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 행사는 제게 그 무엇보다 큰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 행사에 참여하기 전에는 우리 동아리만큼 많은 활동을 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과학들을 쉽게 풀이하고 참여하게 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였는데 막상 그 곳에 가보니 제 생각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보다 많은 동아리들이 그러한 체험을 하고 있었고 동아리에서 활동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과학적 원리를 이용한 과학 체험 활동들이 많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 때 저는, 세상은 넓게 봐야한다는 소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곳에서 전시체험을 운영하며 중간 중간 다른 동아리들의 활동을 체험해보며 저희 동아리에서도 더 많은 활동들을 연구해보고 제가 다른 동아리에게서 배운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가르쳐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제게는 그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2학년이 된 뒤, 저는 동아리 후배들과 함께 점심시간마다 폐안경 나눔 캠페인 활동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또 한 번, 나눔의 기쁨을 배우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모은 안경들과 안경 약세서리들을 '안아주세요'라는 청년비영리단체에 기부한다는 활동 자체가 제게는 큰 기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점심시간마다 동아리부원들과 함께 캠페인 활동을 하는 것은 귀찮기도 했던 적이 있기는 있지만, 결국 모여진 많은 안경들과 안경 약세서리들을 보며 조그마한 나의 행동이 시력이 좋지 않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통해 나눔의 기쁨을 확실히 배웠습니다. 또 후배들과 함께 전북 대표 청소년 동아리 어울림 마당에도 참여하여 그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동아리에서 하는 활동들을 소개하고 체험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가 언니들에게 배운 것을 이제는 제가 동생들에게 가르쳐준다는 사실에 뿌듯하기도 하고 한 편으로는 언니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기도 하였었고 작년과는 달리 언니로서 더 의젓하게 동생들을 이끌고 좋은 모습만 보여 줘야한다는 생각에 부담감을 느끼기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가끔은 언니로서 후배들에게 잘 해주지 못해 미안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는데, 오히려 동생들이 괜찮다고 웃어주며 감사하다고까지 말해주는 동생들의 모습에 언

니로서 창피하기도 하고 동생들에게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그러한 저의 모습을 떠올리며 작년에 언니들이 정말 제게 잘해주었다는 것을 깨닫고 언니들께 감사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후배들과 함께 일본 해외문화 체험단을 위해 수학과학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일단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들을 상대로 체험을 운영해야한다는 생각에 더없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 제가 더 성장한 느낌이었습니다. 매우 작긴 하지만 한국만이 아닌 세계적으로 제가 배운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 같아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제가 일본어를 할 줄 몰라 막막하기도 하였지만 영어와 바디랭귀지, 매우 부족한 일본어 실력을 이용하여 그들과 소통하였을 때는 정말 기분이 짜릿하였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소통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말을 공감하게 되었고 그것이 주는 짜릿함에 다시 한 번 더 느껴보고 싶었고 후에 대학생이 된다면 해외로 나가 해외봉사활동에 지원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 * **김은지** | 나눔의 실천을 통해 변화된 저의 모습을 관찰하는 계기가 되었고 특히 앞으로 저에게 있어 특별한 과학에 대한 관심을 더욱 성장시키는 활동이며 큰 의미를 갖춘 활동으로 남습니다.
- * **최유민** | 함께 나누는 즐거움은 단지 활동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닌 성장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하였고 또한 저에게 있어 관심분야를 통해 봉사활동이 연계될 수 있는 뜻깊은 참여였기에 더욱 의미있는 활동이며 커가는 저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 * **서승은** |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 또한 큰 즐거움이란 것, 그리고 작은 관심이 쌓여 큰 의미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느끼는 활동이었습니다. 노력하는 삶으로 앞으로 더 다양한 활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장희영** | 고등학교 생활 중에 동아리 활동을 통해 저의 또 다른 모습을 관찰하는 계기가 되었고 어린이, 장애인 등 여러 사람들과 만나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의 봉사활동이 큰 웃음으로 되돌아오는 것에 대한 뜻깊은 행복감이 저에게 있어 잊지 못할 활동입니다.
- * **이주미** | 때론 힘들고, 활동하며 지칠 때도 있었지만 서로 격려하고 또 나눔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며 동아리 친구들, 후배들은 물론 재능나눔에 대한 청소년들의 사고가 커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에게 있어 특별한 실천이 많은 청소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 * **정윤정** | 과학에 대한 진로를 좀더 충분히 발휘되기 위해 노력한 활동이 이렇게 큰 의미로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기쁜 마음이 함께 하고 여러 특별한 기회가 마련된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다짐합니다.
- * **정주희** | 남다른 사고는 곧 저에게 깊은 사고를 갖는 활동으로 이어졌고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더욱 성장하기 위한 기쁜 마음으로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 **박혜원** |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작은 올림이 함께 하였기에 어떤 의미로 다가설 수 있을까의 의문이 있었지만, 활동을 하며 함께 나누는 기쁨과 공동체의 의미를 알고 느낄 수 있는 큰 기회였기에 남다른 행복감이 감돕니다.
- * **강하경** | 나눔의 실천은 단순한 활동이 아닌 관심과 열정이 함께한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 과학에 대한 관심이 곧 봉사활동과 함께 하였기에 이번 행사의 참여는 더욱 뜻깊고 앞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 * **공지은** |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닌 우리들이 준비한 봉사활동의 계획과 여러 계층이 함께 한 활동의 어우러짐은 곧 역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노력이 동반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남다른 열정이 함께 한 활동입니다.
- * **김주은** | 열정이 곧 큰 열매를 갖도록 청소년 봉사활동에 대한 깊은 애정이 함께 하였기에 저에게 있어 어린이 멘토링 활동은 나눔의 실천이 미래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또한 더욱 성장할 저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 * **이유나** | 활동에 대한 깊은 관심은 늘 동아리 활동 시간에 왈작지껄한 모습으로 함께 하였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여러 계층과 함께 나눔의 실천을 하였던 것처럼 저에게 있어 앞으로 성장을 위한 또 하나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였습니다.
- * **조가영** | 청소년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의미를 알고 선배들과 함께 더욱 열정을 갖고 노력하는 저의 모습을 기대하며, 진정한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애정을 갖는 계기였습니다. 더욱 노력하는 a&c! 파이팅!



동아리단체부문



소외된 이웃을 위한 음악재능기부 봉사활동

- 동감오케스트라 -

여의도중 31113 임도현



- * **이혜민** | 기분 좋은 출발, 동아리 활동은 작은 설렘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과학체험활동을 준비하고 또한 어린이, 청소년 등 여러 사람과 함께 하는 과정은 설렘과 뿌듯함이 함께한 활동이었습니다.
- * **정세영** | 선배들의 의욕적인 모습, 미숙하지만 함께 나눈 친구들의 활동의 어울림 속에 저에게 있어 역할의 충실함과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재능 나눔의 실천이 이어질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고 더욱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와 함께 합니다.
- * **권인실** | 어린이 및 청소년 멘토링 자원봉사활동이란 특별한 주제에 걸맞는 준비의 과정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알게 한 자원봉사의 날 행사는 큰 의미와 나눔의 기쁨을 알게 해준 뜻 깊은 활동이었고 노력의 결실입니다.
- * **강도희** | 관심분야와 나눔의 실천이 어울려 성장하는 저의 모습이 함께 한 동아리 활동은 특별한 기쁨과 고등학교 생활의 첫 큰 의미를 갖는 활동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은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 그리고 작은 기부 활동의 행복감이 감도는 활동입니다.
- * **정다은** |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등과 함께 체험활동을 하며 재능 나눔의 기회가 어떤 의미가 되는지 알 수 있었고, 작은 기부활동은 곧 또 다른 나눔의 실천이 되는 것을 알게 되는 뜻깊은 활동이었습니다.
- * **김희정** | 의욕적인 자신감과 역할에 대한 깊은 사고, 동아리의 자원봉사활동에 있어 필요한 요소이었습니다. 재능 나눔의 실천의 기회, 앞으로 저에게 있어 더욱 발전된 모습의 특별한 밑거름으로 자리매김합니다.
- * **양지원** |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학교 안에서 폐안경모음활동 등 작은 실천이 함께 하는 즐거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은 앞으로 더욱 역동적으로 참여하는 저의 모습을 기대하며 성장할 것입니다.
- * **정다비** | 나눔의 실천이 큰 행복감으로 다가설 수 있음을 알게 된 이번 활동을 통해 앞으로 저에게 있어 동아리 활동을 통한 성장과 의욕적인 자신감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 **김혜연** | 동아리 활동의 큰 의미는 관심에 대한 시작이었고 이를 통해 저의 성장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동아리 활동에 대해 더욱 열정을 다해 노력하고 청소년 멘토링 자원봉사활동의 큰 의미를 더욱 키워 나가겠습니다.

RCY동감오케스트라는 단원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음악적 재능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성실함을 바탕으로 자원봉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학생들이 하루를 가장 많이 보내는 장소에서 아침에 등교하는 친구들을 위해 '등교 맞이 연주회'를 하면서 기분 좋은 등굣길을 만들어주었습니다. 학교와 인접한 한강시민공원에서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휴식을 취하러 한강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 '공원 음악회'를 열었고, 셋강에 생태 환경보호를 위한 생태 교란 식물 제거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외 계층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모원에 오랫동안 요양하고 계시는 할머니들과 신길동과 신림동에 살고 계신 홀몸 어르신 세 분께 꾸준히 방문하면서 할머니들을 위한 선물 그리고 연주회도 열어 드렸습니다. 특히 신림동에 계시는 할머니는 폐지나 헌 신발 등을 모아서 팔아서 생활비를 벌고 계셔서 교내 홍보를 통해 폐지, 헌 신발 및 헌 실내화를 모아서 할머니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봉사활동을 하면서 동감오케스트라는 2014 세계청소년자원봉사의 날 행사에서 청소년 동아리 부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누면 기쁨이 2배가 되듯이 동감 단원들의 재능을 나누고 기부하는 마음은 2배가 아닌 몇 배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연습과 봉사활동이 주로 주말에 하는데 쉬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봉사를 다녀온 뒤의 감동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홀몸어르신댁을 방문 할 때마다, 저희를 가족 같은 마음으로 반겨주시고 두 손 꼭 잡아주시면서 고맙다고 하시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잊을 수 없습니다. 이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입니다. 그리고 더 도와드릴 것은 없는지 고민도 하게 됩니다. 동감 오케스트라는 앞으로도 친구,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서 음악적 재능 기부와 마음 나눔을 계속 할 것입니다. 나눔은 2배가 아닌 몇 배가 되어서 돌아오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D.L.E.H.S.R

- 강일의 여신 RCY -

동아리단체부문



함께 할 수 없는 동행 * 강릉 강일여고 2~4 김민승

“내가 예쁜이 졸업하는 건 봐야지...” 이 말을 늘 입에 달고 사시던 최** 할머니, 그 말이 결국 마지막 말이 되어버린 그 날은 유독 화창했다. 몇 달전 할머니를 찾아 갔을 때 몸을 이끌 수도 없을 정도로 기력이 없으셨던 할머니가 어렵게 뚝 한 마디는 나를 충격에 빠뜨렸고 차마 할머니의 얼굴을 쳐다 볼 수 없게 만들었다. “나는 일평생 착하게 산 것 같은데 왜 자꾸 하느님은 나를 일찍 데려가려고 하실까... 난 예쁜이 졸업식에도 가야하고 아직 할 게 너무나 많은데...” 할머니의 진심어린 투정이 내 가슴을 찢어 뒀다. 작년 병마와 싸워 거뜬히 이기시고는 올해 다시 암 덩어리가 온 몸에 퍼지고 말았다. 아직 할머니를 향한 내 사랑과 정성이 부족했던 탓일까. 하루하루 전이 속도는 빨라져가고 있었다. 결국 할머니는 집을 떠나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하셔야 했고 비록 병원 밥을 드셔야 했지만 우리는 마음만이라도 전해드리고 싶어 사랑의 도시락을 들고 병원까지 찾아갔다. 항암제와 진통제를 맞으시며 간간히 버텨오시던 할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도시락을 들고 있는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고 할머니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아 내 가슴은 뜨거워졌다. “할머니, 민승 왔어요...” 힘겨운 나의 첫 마디. “어~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나 이제 꽤 참는데...” 곧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떨려오는 할머니의 목소리는 나를 위한 새하얀 거짓말이었다. 차라리 힘들다고, 정말 힘들다고 어린아이처럼 투정 하셨으면 이보단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국최강 강일의여신 RCY의 단원으로 매주 한 번 홀몸 어르신들께 도시락 반찬 배달을 해오던 나는 ‘이번 주도 병원에 계시는구나...’ 하고 나 자신에게 병원까지 갈 시간이 없다는 황당한 핑계를

대며 할머니 댁을 지나쳐 온 나를 조용히 불러 슬며시 손을 잡으시는 선생님은, 놀라지 말고 들으라는 무거운 애기를 꺼내셨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대...” 나는 믿기지 않았다. 아니 부정하고 싶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엉엉 소리 내어 울었다. ‘할머니께 소홀했던 그 시간들을 되돌릴 순 없을까?’ 하며 후회스런 지난날들이 내 머리 속을 스쳐갔다. “할머니께서 전이 안 된 장기는 다 기증 하셨대...” 하며 말을 끝맺으시던 선생님의 눈에도 감동이라는 물결이 일고 있었다. 나는 사람들과 재미있게 어울리고 있을 때... 바로 그 때 할머니는 우리에게 받았던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려운 이에게 나누어주고자 ‘기증’이라는 위대한 단어에 의미를 심어주시고는 다

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우리의 곁을 떠나셨다. “오늘은 더 맛있는 반찬이네~ 공주들~” 하시며 포근하게 맞아주시던 할머니가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봐주시려나? 어쩌면, 곁에 있었던 지난 생보다 하늘에서 우리를 더 잘 지켜보실 수 있을 지도 몰라 그렇게, 빨리 서두르셨나보다. 나보다 더 극진한 사랑을 받던 강아지 ‘소리’도 알고나 있을까? 그토록 아껴주시던 할머니가 저 멀리 떠나갔다는 것을... 아낌없는 사랑으로 서로에게 의지하여 외로움을 덜어주던 강아지 ‘소리’에게도 할머니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으로 남겨져 있을 것이다. 매주 한 번 찾아뵙는 할머니지만 내 마음 한 구석에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나보다. 할머니의 죽음이 나에게 이토록 뜨거운 눈물을 안겨주는 걸 보면...

자고 일어나면 주말이라는 기대감에 들뜨는 금요일 저녁, 2학년 후반기때 만난 박** 할머니께 도시락을 전해드리러 가는 날이면 늘 지나치는 할머니의 집. 한 때는 ‘소리’와 장난도 치며 항상 웃음이 넘치던 그 곳... 저 쪽에서 “어서와” 하며 손짓하는 할머니가 계실 것만 같은데... 늘 공부하느라 바쁜 우



리에게 짐이 될까 걱정하시던 할머니..., 비록 지금은 주인 없는 텅 빈 집이 되어버렸지만 할머니의 마음만으로 좋은 기억을 안고 있는 나에게는 그저 정겨운 곳이다. 지나칠 때마다 친구와 나는 한 마디씩 주고받곤 한다. “분명 할머니, 우리가 주는 도시락 그리워하실걸?” 꼭 그리워 하셨으면 좋겠다는 희망 섞인 푸념이었을지도 모른다. 혹시 우리를 벌써 잊으신 건 아닌지 겁도 나지만 난 결코 의심치 않는다. 내가 아는 할머니는 언제나 우리의 곁에서 말없이 동행하시는 것을 나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항상 이런 힘든 일을 겪은 후 내가 하고 있는 도시락 반찬 배달이란 홀몸 어르신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하는 생각이 내 머릿속을 맴돈다. 사랑이란 말을 수없이 답아도 한 없이 부족한 내 마음을 어르신들은 알고 계실까? 지금까지도 할머니의 얼굴을 어렵곳이 떠올리며 소홀했던 만큼 다른 홀몸 어르신들에게 더욱 더 진심으로 대하려 노력한다. 사랑이라는 새싹에서 나눔이라는 꽃을 피우기까지, 눈물이라는 비가 이 사회를 적셔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나 자신에게 한 없이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 우리가 손수 전해드렸던 따끈한 도시락 반찬의 온기보다 더 따스한 할머니의 사랑은 지금 알지 못하는 어딘가에서 새로운 생명이 되었을 것이다. 그 누군가에게 더 큰 사랑과 나눔을 베풀고 가신 할머니... 바로 그것이 늘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가는 무의미한 내 인생에서 푹푹 묶여두었던 마음을 풀기에 충분한 열쇠가 되었다. 자원봉사자 기사를 볼 때면 늘 눈에 띄는 문구. 봉사활동 1000시간, 10000시간... 그것은 단지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성실성만이 아니라 ‘봉사’라는 정신과 ‘나눔’이라는 아름다운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비록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객관적 봉사활동을 따질 수는 없지만 그저 타이틀에 불과한 1000시간, 10000시간으로 타인의 존경을 받는 것보다는 ‘봉사를 이런 것이다’ 하고 봉사를 시작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바로 최** 할머니처럼 말이다. 생을 마감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기증이라는 작은 행복을 나눌 수 있음에 나는 내 가슴 속의 큰 울림을 느꼈고 그 어느 때보다 나의 차가웠던 피를 끓게 하는 것 같았다. 내가 언젠간 생을 마감하게 될 때, 지금까지 해왔던 봉사를 끝마치며 좌절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하나씩 새로운 생명을 안겨 주고 싶다. 나의 장기를 받은 그 사람들이 꽃씨처럼 만연히 퍼져 나가 서로 아무 대가없이 베풀어 줄 수 있는 온기 가득한 세상을 저 먼 하늘나라에서 지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할머니가 떠나신 지 벌써 6개월, 그러나 내 핸드폰 전화번호부에는 아직 지우지 못한 번호가 있다. ‘105호 최** 할머니’ 이제는 지워야하지만, 지워버리면 내 마음 속에서도 지워질까 나는 지금 겁을 내고 있는 것이다. ‘삭제’라는 잔인한 말 속에 할머니를 묻어버리는 일... 그 것은 나에게도 또한 깊은 상처로 남을 것임을 잘 알기에 오늘도, 내일도 마치 보지 못한 듯 아무렇지 않게 핸드폰을 닫는다...

나비효과 * 강일의여신 RCY 부단장 전은지

‘나비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나비효과란 북경의 한 지역에서 나비의 날개 짓으로 작은 바람이 일어 미국에 큰 토네이도를 형성시킬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즉, 사소하다 생각하여 별생각 없이 넘어갔던 것이 후에 예상치 못한 큰 변화를 가지고 온다는 뜻이죠. ‘나비효과’ 그 놀라운 힘으로 하루하루를 가슴 벅차게 살고 있는 저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빠의 손에 이끌려 중학교 1학년때 시작된 가족 봉사단 활동. 쉬는 날까지 반납하는 봉사활동은 그저 학교의 생활기록부를 채우기 위한 수단 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말마다 아빠를 따라 나서게 된 제 마음에는 당연히 ‘열심히’가 아닌 ‘눈치껏’이라는 잣대가 세워졌습니다. 어쩌다 양로원으로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연신 대답만 했을 뿐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아무 말씀 하시기 않으면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께서 오늘은 어린 아이들을 만나러 간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날, 제 삶을 변화시킨 작은 변화의 시초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어린아이들을 만나러 간다기에 저는 그나마 즐겁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아빠를 따라 나섰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아빠, 거기 있는 애들은 전부 고아야? 불쌍해라. 엄마아빠가 없어? 나랑 다르네.....”하며 설 없이 떠들며 갔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내린 곳에는 ‘자비원’이라는 글씨가 큼지막하게 써있었습니다. 아빠를 도와 솜사탕기계며 붕어빵기계며 쟁겨온 것들을 들고는 부랴부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아이들이 몇 명 없었고 그나마 나와 있던 아이들도 우리를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고 있으니 나와는 다르다고 생각이 되어 말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과 제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들과 인사만 나눈 채 저는 솜사탕을



만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아이, 솜사탕을 먹기 위해서 기계 앞으로 온 몇몇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먼저 솜사탕을 나눠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없이 솜사탕을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전부 똑같은 뽀로로(케릭터명) 내복을 입고 5~6명의 아이들이 너무나도 예쁜 모습들로 올망졸망 서있었기 때문입니다. 솜사탕을 먹으러 당연하다는 듯 같은 옷을 입고 해맑게 서있는 아이들을 보니 고아니깐 불쌍하다고 생각한 순간과 나와 다르다고 생각했던 순간, 먼저 인사를 건네지 않았던 순간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 후, 저는 매주 아빠를 따라 아이들에게 갔고 또 먼저 말을 걸어 그간 있었던 일을 물어보고, 아이들과 함께 뛰어 놀며 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게도 마음에 남을 소중한 인연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빠와 함께 아이들을 만나고 오며 내 스스로가 변하고 있단 기분 좋은 느낌에 사로잡혀 있을 때 저는 또 다시 가슴 뛰는 느낌을 선물 받았습니다. 고등학교로 진학한 저는 전국최강 강일의 여신 RCY에 들어 친구들과 함께 조를 나누어서 제일 먼저 홀몸어르신께 따뜻한 도시락반찬 배달, 말벗, 지킴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 친구들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은 가족과 함께했던 가족봉사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봉사에 대한 저의 마음을 '성실함'으로 채워줬습니다. 매주 시간을 지켜 도시락을 가져다 드리는 것은 생각보다 많이 힘든 일이었고, 고등학생이 된 후 전보다 배로 바쁜 학교생활과 학업에 대한 불안감으로 순간순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시간낭비'라는 핀잔을 들을 때마다 저의 마음은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다 결국 도시락 배달을 제시간에 가지 않고 친구들과 놀러가 버렸습니다. 시간가는 줄 모르고 놀다가 저녁이 되어 죄송스런 마음과 피곤함으로 얼룩진 몸을 이끌고 도시락을 든 채 어르신 댁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댁 앞,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 죄송한 마음에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려 할머니를 마주본 순간 할머니는 제게 한 번의 울렁임을 주셨습니다. "밥 먹었어? 저녁때니 안 먹었으면 여기서 나랑 먹고 가!" 정작 본인도 도시락이 제때오지 않아 기다리시며 화가 나실법한데 저의 끼니를 걱정해주셨습니다. 도시락 반찬을 덜어드리며 무책임한 저의 모습과, 죄송한 마음에 부끄러운 눈물이 맺혀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할머니와의 대화는 제게 '책임감'이란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해준 소중한 시간 이었습니다.

또한 희망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늘푸른마을 봉사활동을 갈 때 어느 한 장애인 할아버지께서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건네주셨습니다. 그것은 '호박젤리' 이었습니다. 하지만 젤리를 본 저는 받을까 말까 속으로 수만 번을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얼핏 보이는 젤리엔 먼지들이 덕지덕지 붙어있었고

또 언제 제조됐는지도 모를 정도로 많이 녹아 있었습니다.

평소 집에 있던 음식이라도 머리카락 한 올 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먹기 꺼려하는 제게는 호박젤리의 모습이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고맙다며, 줄게 이거밖엔 없다며 제손을 펴 양손에 쥐어 주시는 장애인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호박젤리의 겉모습이 아닌 장애인 할아버지의 고마운 마음이 제게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자비원에서 처음 느꼈던 따뜻함, 할머니와의 대화에서 깨달은 책임감이 다시 한 번 제 가슴에서 먹물이 번지듯 퍼져나갔습니다.

그 작은 경험들을 겪은 후로 저는 다른 봉사활동을 할 때 마다 그때의 그 기분을 다시 한 번 느끼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 열심히 하게 되었고 이젠 '눈치껏'에서 '열심히'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의 파장은 저를 봉사활동이란 제한된 영역이 아니라 평소의 생활에서도 상대를 진실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진심이라는 큰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또 그것은 저를 한층 더 성숙시켰습니다. 이제는 친구들의 '시간낭비'란 핀잔에도 저는 웃음으로 받아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막연한 안개속의 길이 아닌 비온 뒤 맑게 갠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자비원에서 아이들과 키웠던 정들과, 장애인 할아버지께 먼지가 붙은 녹은 젤리를 받아든 것은 어쩌면 제 삶 중 빙산의 일각일수도 있겠지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그때의 울렁거림과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느낌이 준 따뜻함은 아이들의 해맑았던 웃음소리, 할머니와의 소중한 대화, 장애인 할아버지와 함께 했던 프로그램 봉사활동처럼 마음속에서 영원히 간직될 것입니다.

이런 제 작은 이야기가 나비효과처럼 큰 토네이도는 아니어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바람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變花시킨 힘 * 강일의여신 RCY 총무 김예슬

「(변:하다)전과 달라지거나 딴 것으로 되다.」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나는 지난 1년 동안 '변하다'라는 말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오죽하면 '세 살 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라는 속담도 있지 않은가. 지난 1년간 나를 변화시킨 힘은 무엇이었을까? 나의 부모님은 내가 한창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때 바쁜 일상으로 사업에만 전념하셨다. 부모를 원망하고 하늘을 원망했다. 매일 밤 베개가 모두 젖도록 내 삶을 한탄하곤 했다. 밤하늘을 보며 내 삶이 나아지길 바라면서, 지금의 시련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도 했다. 그

러나 내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내 기도를 들어 주지는커녕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고 세상을 보는 나의 시선은 점점 비뚤어져 갔다. 그렇게 지금의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그리고 지난 일을 잊기 위해 노력했다. ‘어차피 돌이킬 수 없는 일 그냥 잊자. 이젠 이 생활에도 익숙해져야할 테니까.....’

즐거운 학창시절을 보내기 위해 친한 친구들과 함께 교내에서 가장 재밌고 활동적 이기로 소문난 RCY에 입단했다. 그리고 작년 4월, 처음 도시락 배달을 시작할 땐 나도 내가 이만큼 변할 줄 몰랐다. 사실 도시락 배달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단순히 ‘와 내가 좋은 일을 하는구나!’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하루하루 배달을 하는 날이 늘어나고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리실 할머니를 생각해 책임감도 생기고 무엇보다도 사랑을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자연스레 어르신들을 향한 공경심도 생겼다. 처음 도시락 배달을 하러갔을 땐 사교성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던 내가 처음 뵈는 할머니께 말을 건넨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다. 심지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어색한 정적이 흐르기도 했다. 하지만 하루 이를 가다보니 어느 샌가 할머니와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며 친분을 쌓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어느 때와 같이 도시락 배달을 하던 어느 날, 매년 찾아오는 어버이날을 맞이해 아버지께 드릴 카네이션을 사러 꽃집에 들렀다. ‘우리 아버지는 나도 있고 동생도 있고 언니도 있고 어버이날 카네이션이 넘쳐나실 텐데 혼자 사시는 할머니께서는 누가 카네이션을 달아주지?’라는 생각이 들어 한 송이 더 사서 할머니 댁으로 달려갔다. 할머니 댁으로 갔을 땐 이미 다른 기관에서 여러 송이의 화려한 카네이션을 받으신 후였다. 그래도 우리가 가져온 것이 제일 좋다며 우리 것을 다셨다.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고 그다음 주에 갔을 때 우리의 카네이션은 꽃병에 담겨 있었다. 이런 게 바로 정이고 사랑이구나 하고 느꼈다. 여름 방학 어느 땐가 매일 저녁에 방문하던 우리가 어쩔 일로 낮에 방문했다. 때는 점심때를 조금 넘긴 시각. 밥을 먹었느냐 하시더니 미역국과 밥을 내오셨다. 매번 도시락 가져다 주는 게 고맙다며 따로 해줄 건 없고 밥이나 먹고 가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같이 간 친구들과 할머니와 마주앉아 미역국이 담긴 냄비에 밥을 말아 먹었다. 매번 혼자 먹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여럿이 먹으니 좋다고 자주 이렇게 와서 밥을 먹으라고 하셨다. 이 작은 밥상에 밥 한 공기, 수저 한 세트 올려놓고 허공을 보고 식사를 하실 할머니를 생각하니 가슴이 찡했다. 우리도 도시락 배달밖에 해 드릴 것이 없고 가끔이라도 이렇게 할머니와 밥상을 같이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벌써 도시락 배달을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훌쩍 지나고 있다. 그동안 할머니와 고스톱도 치고 등목도 해 드릴 정도로 매우 친해졌고 정도 많이 쌓였다. 도시락 배달은 이미 나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지 않으면 찻집하고 뭔가 이상한 것처럼 도시락 배달은 금요일, 나의 달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과가 되었다. 도시락 배달에 대해 정의를 내린다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도시락이 아닌 사랑을 배달한다고. 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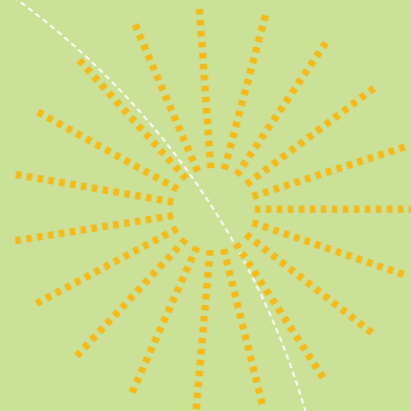
단순히 반찬만 옮겨 드리고 나오는 것이 아니다. 내 정성을 담아 드리고 사랑을 만들어 나오는 것이다. 들어갈 땐 가득 찬 양손으로, 나올 땐 가슴 가득히 사랑을 담아 나오는 곳,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큰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곳. 어디 가서 이런 값진 경험을 또 할 수 있을까?

사실 나에게 1~2년 전은 남들한테 티는 안냈지만 정말 매우 힘든 시간이었다. 한창 사춘기 때라 내 감정을 다스리는 일이 너무 힘들었고 세상이 너무 밍게만 보였던 때였다. 아마 그 땐 무조건 떠올리지 않으려고만 애썼던 것 같다. 그 때 마침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다. 이제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다. 정신적으로 많이 성장했다. 지금은 부모님도, 하늘도 원망스럽지 않다.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으리라 이해를 한다. 또한 자원봉사를 통해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타인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자원봉사라는 치료법으로 지난 시련과 아픔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매번 봉사활동을 하면서 똑같이 느끼는 것이 하나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런 주기적으로 자주 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아니 꼭 할 것이다. 늙어서 은퇴해서도 물론 할 것이다. 다른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하고 싶다. 그리고 또 정말 신기한 것은 자원봉사가 돈을 받고 하는 아르바이트보다 훨씬 좋다. 똑같이 몸은 힘들지만, 아르바이트는 하면서 하기 싫고 짜증이 나는 것에 반해 자원봉사는 힘들수록 더 힘내서 하게 되고 아르바이트와는 뭔가 다른 느낌이다. 아르바이트는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고, 자원봉사는 좋은 마음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라 그런가 보다. 그리고 다 끝내고 나서 느끼는 그 뿌듯함과 보람, 나를 환기시켜 주는 기분이 든다. 그런 상쾌한 기분이 아주 좋다. 예전의 나라면 이런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사람이 변한다는 게 이런 것을 말하는 것 같다. 2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날 이렇게 바꿔놓았다. 이게 바로 자원봉사의 힘이다. 내가 이렇게 변한 것처럼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변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텐데 말이다. 자원봉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생각만 있으면 된다. 동기가 무엇이든 상관없다. 일단 하면 그 훈훈한 매력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일단 한 번 시작해보자. 지금까지는 모르던 새로운 세상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율하는 사랑을 맛보게 될 것이다.





자기주도형 봉사활동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청소년!



02

SECTION

학교동아리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계사업 활동소감

부산양운중학교 봉사동아리 The Ceepers



부산양운중학교 봉사동아리 The Ceepers 회장 이수민

양운중학교 봉사동아리 The Ceepers[더키퍼스]는 우리가 살고 있는 해운대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학습하고 문화유산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해당기관에 보고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명의 멤버들로 구성된 The Ceepers는 선후배가 함께 어우러져 사전회의를 통하여 활동을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한 후 탐방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인 '해운대구석기유적, 해운대석각, 송정역, 간비오산봉수대, 이모준송덕비, 마고당과 천제단'에 대하여 조사하고 탐방하면서 우리가 몰랐던 문화유산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한 후 설문조사와 캠페인활동을 실시하였더니 시민들과 친구들뿐만 아니라 부산을 찾은 관광객과 외국인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해운대구청에 민원 제기하여 고쳐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활동을 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감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도 지킬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활동 중에는 시민들과 인터뷰를 하고 활동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유튜브와 The Ceepers 카페[<http://cafe.naver.com/theceepers>]에 올려서 우리의 활동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결과를 듣게 되어서 많이 놀라웠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번 활동을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3학년 선배들이 고등학교 원서준비로 인하여 함께 참여하지 못한 점과 활동 멤버들이 개인적으로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한 활동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동아리 대표인 제가 멤버들을 잘 이끌어주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양운중학교 봉사동아리 The Ceepers는 겨울방학 동안 부산 시내에 있는 박물관과 역사관을 탐방하여 우리 지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하여 학습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키워나가 세계에 우리나라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관광고등학교 '나눔'



* 부산관광고등학교 1학년 이미래

2013년 3월 이 학교에 입학해 나눔이란 동아리에 들어와 봉사활동을 시작한지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푸드 테라피라는 이름으로 정말 여러 종류의 봉사활동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 근처에 위치한 천마재활원의 장애인 분들과 중학생, 다문화 가정의 학생 등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활동들이 어색하고 어려웠습니다. 처음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저도 배우는 입장으로 선생님이나 언니, 오빠들이 시키는 일을 척척해내지 못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활동의 수가 하나씩 늘어남과 동시에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렵기만 했던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웃으며 활동을 했고 소통을 할수록 그분들이 저를 기억해주고 고맙다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사소한 것이어도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기분이 좋고 뿌듯했습니다.

더불어 하릴없이 보내왔던 주말들이 봉사를 하게 되면서 매번 뜻 깊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게을렀던 생활패턴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중학교 때와는 달리 봉사시간이 쭉쭉 올라가는 것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저에게 멋있다는 말과 고맙다는 말을 할수록 봉사시간을 받았을 때와는 다른 뿌듯함과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커서 취업을 하고나서도 이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요리를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와서 요리와 동시에 봉사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겠다는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이 이렇게 재미있다는 것을 많은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봉사가 아닌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즐겁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에도 내 후년에도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 부산관광고등학교 1학년 전예지

2014년 3월 달 부산 관광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고등학교 생활을 하며 우왕좌왕 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나눔'이라는 봉사활동 동아리 홍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부산 관광 고등학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학교 여러 가지 행사에 참가 했는데 그 때 보았던 익숙한 언니, 오빠들이 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면접을 봐서 나눔 동아리원이 되었습니다.

처음 봉사활동이 '천마재활원'의 장애인 분들과 조리봉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에 입학하고 조리복 입는 법도 모른 채 우리는 조리봉사를 하였습니다.

서툰 조리 실력으로 장애인 분들과 활동하면서 장애인 분들을 대하기도 어려웠고, 그 동시에 조리하기도 벅찼습니다. 하지만 그때 언니, 오빠들이 정말로 능숙하게 활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말로 대단해 보였고 언니, 오빠들에게서 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약 1년 정도가 지난 지금 우리는 많이 달라지고 발전했습니다.

우왕좌왕하고 조리하는 모습이 어색했던 우리를 언니, 오빠들이 많이 가르쳐주고, 조언도 많이 해주



였습니다.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그냥 10시간 채우기에 급급해서 귀찮고 의미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눔에서 활동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달라지는 우리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동시에 서툴렀던 조리 실력도 많이 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1년간 활동을 했지만 2학년, 3학년 까지 활동하면서 발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배려의 마음으로 남을 돕는 봉사활동을 따뜻한 마음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 부산관광고등학교 1학년 진민수

저는 올해 3월 말 나눔 동아리에 신입생으로 가입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푸드테라피라는 활동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먼저 살갑게 다가가 드려야하는 이 봉사활동이 정말 부담스럽고 걱정되며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 여러 활동을 하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요리하는 이 활동들이 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봉사의 즐거움을 느끼게 된 후 저는 꾸준히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현재에도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동아리의 여러 봉사활동 중에서도 천마재활원 장애인 분들과의 푸드테라피 활동이 가장 뜻깊은 것 같습니다. 몸이 조금 불편하던 이유로 차별당하는 그 분들을 보면 늘 안타깝고 항상 기죽어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에 오셔서 한 달에 한 번씩 활동을 하시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늘 밝고 명랑하신 모습으로 저희에게 먼저 다가와서 함께 하자며 손을 내밀어 주시면 정말 저희는 감사하고 뿌듯합니다. 천마재활원 활동 외에도 사랑의 빵 나누기, 중학생 진로 연계 체험 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장애인, 중학생, 다문화 가정 자녀들 등 다양한 부류의 수혜자 분들에게 거리낌 없이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수혜자분들이 활동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저희에게 ‘선생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며 돌아가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뿌듯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다양한 봉사활동을 접하게 되는데 저희는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다른 봉사활동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함을 느끼고 활동에 더욱 더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10시간의 봉사활동을 채우기 위함이 아닌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그 활동에 대한 보람과 뿌듯함은 정말 하늘을 찌를듯 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람찬 봉사활동을 정말 꾸준히 이어가고 싶습니다. 올 한해 도안 열심히 활동을 해 왔는데 2년 남은 고등학교 생활도 봉사를 통한 뿌듯함이 마음 한 켠에 자리잡고 있는 보람찬 학교생활을 해 나가고 싶습니다.

책 속에서 함께 느끼고 세상 밖으로 나가 함께 얻은 봉사의 기쁨



대전삼천중학교 소향무적(所向無敵) 동아리 회장 최정아

우리 소향무적 동아리는 대전삼천중학교 독서토론 자율동아리로 책을 읽고 그 책에서 주제를 정하여 독서토론을 진행하는 자율동아리이다. 여러 책들 중 ‘유기동물에 대한 슬픈 보고서’라는 책을 읽고 우리 지역 사회의 문제점인 <유기동물의 증가 해결방안>이라는 논제에 대하여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다. 이 때, 나를 포함한 소향무적 동아리회원들은 유기동물의 실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이는 유기동물보호센터 봉사활동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졌으며 함께 직접 벼룩시장에 참여하





여 돈을 모아 그 돈도 기부하자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 결과 '동아리 회원 스스로의 힘으로 벼룩시장에 참여하여 돈을 모아 우리지역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찾아 기부하고, 직접 동물의 먹이도 주고, 우리를 청소하며 유기동물의 삶의 권리를 보호하여 사람과 유기동물이 모두 행복한 대전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게 되었다.

우리는 실제로 11월 15일 유기동물보호센터에 기부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한밭수목원에서 진행되는 벼룩시장에 참가하였다. 나는 내가 직접 돈을 모아 기부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른 아침부터 '어떤 물건을 팔아야 할까?'라고 생각하며 하나, 둘 물건을 담기 시작했다. 한밭수목원에 두 손 가득 물건을 들고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물건을 팔기 위해 예쁘게 진열하는 사람들, 어떤 물건이 싼 가격에 나왔는지 구경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소향무적 동아리원들도 들뜨는 마음으로 물건을 진열하여 팔기 시작했지만, 처음 직접 물건을 팔아보는 탓에 어색함과 쑥스러움으로 선뜻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곧 물건을 팔기 위해 외치기 시작했고 우리는 성공적으로 벼룩시장을 마칠 수 있었다. 모두 끝난 뒤 돈을 세어보니 무려 10만원 가량 모여 있었다. 우리가 직접 10만원을 모을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고 이 돈을 기부할 생각을 하니 행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헤어진 뒤, 우리는 유기동물보호시설을 찾았다. 처음에는 대전시청의 동물보호센터를 찾아가려고 하였으나 시청 센터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더 필요한 곳을 추천해주셔서 대전유기견쉼터를

알게 되었다. 그곳은 정말 열악한 시설이었다. 시설에서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께서는 우리 동아리에게 봉사활동을 오는 사람들이 드물고 그마저도 소규모로 찾아오기 때문에 유기견들을 산책시키기가 힘들다고 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명이 함께 찾아와 유기견들을 한꺼번에 산책시킬 수 있어 고맙다는 말씀과 유기견들은 무려 3개월 만의 산책이라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다. 그래서인지 유기견들은 동아리원들이 보이자마자 반가운 마음으로 짖었고, 산책을 갈 때에도 무척 신나하며 뛰어다녔다. 병이 들어 주인에게 버림을 받은 유기견들을 보며 참 안쓰럽다는 마음이 생겼다. 안쓰러운 감정 말고도 열악한 시설에서 지내는 유기견들을 보니 다양한 감정들이 겹쳐 느껴질 수 있었다.

이렇게 여러 차례 봉사활동을 하며 이러한 봉사활동은 나에게 평소에 하던 봉사활동과는 다르게 다가왔다. 먼저, 다 같이 하는 봉사활동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혼자서 봉사활동을 할 때, 생각하고 느꼈던 생각과 감정들을 함께 봉사활동을 할 때에는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고 이야기하며 혼자 할 때보다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 또한 여러 명의 봉사자들이 필요한 곳으로 봉사활동을 가며 동아리로 봉사활동을 간 것이 자랑스러웠고, 앞으로 동아리 봉사활동을 갈 때에는 여러 명의 봉사자들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가는 것도 더욱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다음으로, '학교동아리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계사업'참여하며 이 기회를 통해 미리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진행하는 봉사활동의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평소 봉사활동을 할 때에는 봉사활동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미리 계획하지 않고 즉석에서 결정하여 봉사활동을 하지만 이번 동아리 봉사활동에서는 '학교동아리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계사업'에 참여한 덕분에 봉사활동내용에 대해 진심으로 고민하며 미리 계획을 세우고 봉사활동을 진행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봉사활동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나를 포함한 많은 친구들은 봉사활동 시간을 모은다는 생각으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에는 함께 <유기동물에 관한 슬픈 보고서>라는 책을 읽고 토론을 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었고, 이러한 생각 때문에 봉사활동을 진심을 담아 기획하고 실천하였다. 필요성을 알고 진심을 담은 봉사활동은 그렇지 않은 봉사활동보다 몇 배 더 감동을 주었고 계속해서 이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마음도 생길 수 있었다.

이렇게 여러 회에 걸쳐 동아리 봉사활동을 하며 봉사활동의 참 의미를 깨닫고 나니 앞으로도 동아리 회원들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기대와 설렘으로 다가온 자유학기제를 이렇게 보람 있게 보낼 수 있어 매우 기쁘다. 우리들에게 동아리봉사활동의 추억을 갖게 해 준 이 대회에 감사한다.

촌스럽게 아직도 봉사활동을 하지 않나요? 전문봉사단 오투봉사단!



울산구영중학교 오투 회장 **고수진**

설레임과 뒤섞인 두려움으로 시작된 중학교 입학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친구들과의 즐겁고 보람되고 의미있는 중학교 생활을 위해 고민을 했다. 우리학교 건물 중앙에 있는 교훈이 새겨진 비석(나는 무엇을 잘 할 수 있는가?)을 보고 “그래, 이거구나!”라는 걸 깨달았다.

구영중 1학년 7반 친구들과 함께 꼭 필요한 존재가 되자라는 의미로 ‘오투봉사단’으로 이름을 정하고, 담임선생님께 의논 드렸다. 선생님의 개인사정(그 당시, 교감으로 승진예정이셨고 현재 교감선생님이 되셨다.)으로 수석교사인 이창호선생님께 부탁해 주셨다. 지금까지 이창호선생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시작하고, 활동도 함께하며 격려해 주신다.

“어떻게 중학생이 도시락을 만들고 배달한다고?”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른들의 지나친 걱정과 착각이다. 우린 책과 인터넷을 활용하여 반찬도 잘 만들고 마트에서 시장도 잘 본다. 처음엔 우리 용돈으로 시작했지만, 어머니들의 지원과 이창호선생님의 매달 두둑한 지원금으로 활동엔 지장이 없다. 선생님이 존경스럽다. 우리를 믿어주시고, 함께 요리도 해 주시니 학교에서 볼 때와는 또 다른 모습이시고, 학교에서도 선생님 연구실에서 오투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언제든 수석교사실(이창호선생님 교무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마음만 먹으면 또 다른 오투사무실이 된다. 이렇게 언제든 오투회원들은 학교에서도 만날 수 있다(아지트)는 큰 장점이 된다.

오투봉사단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봉사단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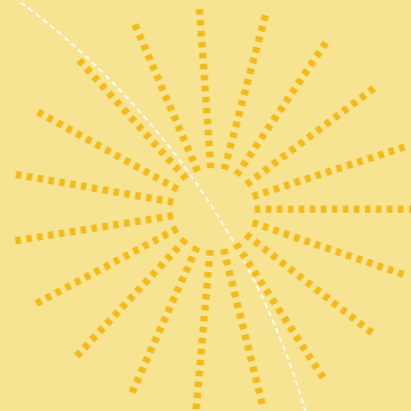
내가 초등학교 2학년부터 꾸준히 활동한 노하우로 만든 중학생들의 전문 봉사단이다. 이제는 봉사단도 흥미롭고, 재능기부가 가능하고, 학습적이고, 직업탐색과도 연관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선생님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부모님들의 여러 경험들이 우리들에게 아주 많은 도움이 된다. 학교에서만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오투’활동은 학습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즐기

면서 활동하는 봉사활동이다. 매달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활동 후 항상 활동소감과 개선점 등에 대해 바로바로 토론하고 활동을 마무리 한다. 그리고 매년 연말이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조촐한 행사와 년 초에는 한 해 동안의 큰 행사를 먼저 결정(예:김장활동)하고, 한 해 동안의 큰 활동(예:김장활동에 따른 텃밭관리)과 정기활동(예:도시락만들고 배달, 환경정화)을 나누어 차근차근 계획적으로 활동을 한다. 올 해에도 이렇게 활동을 시작했는데 벌써 마무리가 되어 간다. 11월 29일 김장행사로 거의 모든 활동이 잘 마무리 되어 가서 정말 기쁘다.





자기주도형 봉사활동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청소년!



03

SECTION

부록

세계청소년자원봉사의날(GYSD) 우수사례
학교동아리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계사업 우수사례

BWIS프로그램(꿈찾기 프로그램)과 스포츠, 학습연계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청소년부문



참가형태	청소년(개인)
단체명 (동아리명)	류상혁
참가청소년	개인

활동기간	활동명	활동횟수	활동시간	참여인원
2014년 4월 28일 ~ 2014년 5월 31일	BWIS프로그램(꿈찾기 프로그램)과 스포츠, 학습연계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2	8	1
활동장소	아가페지역아동센터			

활동내용

약 3년여 동안 기획하여 활동하고 있는 스포츠 및 학습연계프로그램과 기획하여 6개월 동안 진행 하고 있는 BWS프로그램의 연속으로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토요일에는 주로 게임을 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아 건강과 자신감, 다양한 흥미를 제공하기 위해 주로 스포츠 및 학습연계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38회기에는 정전기를 이용해 오래 몸에 붙이기 게임(활동1)과 배드민턴 팀과 축구팀으로 나눠 자신이 하고 싶은 스포츠하기 위한 새로운 게임 규칙 등을 함께 만들어 흥미를 높였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자존감 향상과 진로의 희망이라고 이름붙인 BWS프로그램으로 29회기에는 직업 탐색 편을 통해 2명씩 3팀을 만들어 직업빙고게임을 한 후, 팀 전으로 직업마임퀴즈를 기획하여 진행하는 봉사를 했습니다. 아동센터에서 봉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원봉사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팁을 알려 주는 작은 매 뉴얼을 만들어 학교, 후배 등에게 나눠줘 정보를 공유했으며, 지역기관의 "난치병 어린이 돕기 사랑 의 바자회"에 축구화 등을 기부하였습니다.

위의 봉사활동은 이번 행사참여를 위해서 신규로 만든 프로그램입니까? 기존에 진행 중인 프로그램입니까?

기존 프로그램

프로그램 기본사항

일시 : 2014년 5월 3일, 17일

장소 : 아가페지역아동센터

인원 : 봉사자 1명과 참여아동 6 ~ 8 (2가지 프로그램에 각 각 참여하는 인원이 6명과 8명)

수혜대상 : 아가페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 (초등, 중학생)

활동의 계획과 준비 내용

★ 활동의 목적과 동기, 필요성

- ① 스포츠 및 학습연계프로그램 : 토요일에 주로 휴대폰이나 컴퓨터 게임을 하고 지내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건강 증진과 자신감 향상, 다양한 흥미를 제공하기 위해 활동1과 활동2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활동1에서는 학습연계프로그램인 실 현, 보드게임, 미술활동 등을 하고 활동2에서는 맞춤형 스포츠를 기획하여 토요일 오후에 진행 할 예정입니다. 정전기의 원리와 협동심을 배우고 룰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습니다.
- ② BWS프로그램(꿈찾기프로그램) : 그동안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느낀 자존감의 부족, 미래나 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서투른 표현으로 인한 갈등 등의 안타까웠던 부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중 · 고등학교 때 진로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인 초등 · 중학생에 맞춰 나와 남을 칭찬하기, 나를 표현하는 형용사 세상, 직업탐색 놀이, 직업인 동영상 찾아 보기, 미래 계획 세우기 등으로 진행합니다. 적극적 참여를 위해 놀이와 함께 연계해 기획하였으며, 이 활동은 다양한 직업을 탐색하고 내가 아는 직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하는 직업명을 질문하고 관심을 갖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 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준비한 사항

- ① 스포츠 및 학습연계프로그램 : 외부 스포츠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날씨와 아이들의 건강을 미리 체크합니다. 감기 등으로 아픈 아이들이 많을 경우엔 사회복지사님과 상의하여 아동센터 내에 있는 탁구대 등을 이용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책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학습연계프로그램을 진행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합니다. 움직이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봉사하러 가는 길에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지 상황을 미리 파악합니다. 또한 학습연계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는 먼저 센터에 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 집근처에 있는 문구점 세일 등을 이용하여 미리 구입해 놓습니다.
- ② BWS프로그램(꿈찾기프로그램) : 중 · 고등학교 때 진로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초등 · 중학생에 맞춰 활동지를 다시 만들고 이 활동을 놀이와 연계시키기 위해 인터넷 등에서 검색하고, 직업인동영상 등을 미리 다운받아 노트북에 담아 준비해 갑니다.

★ 활동에 대한 계획 내용(사람, 용구, 장소, 위험요소, 준비물 등)

- ① 스포츠 및 학습연계프로그램 : 이 프로그램에 가장 많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보통 8명) 운동장으로 이동시, 고학년 과 저학년을 한 팀으로 묶어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아파트 안에 있는 작은 운동장에서는 가급적 활동하지 않습니다.

주로 학교 운동장에서 진행합니다. 그러나 다른 아이들이 많거나 조기회 축구를 하는 경우, 다른 운동장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운동장 상황을 살피면서 센터로 갑니다. 이 회기의 활동1에서는 풍선 세트와 책받침 등을 그리고 활동2에서는 축구공과 구급상자, 배드민턴 라켓과 공, 물, 화장지등을 준비했습니다.

② BWS프로그램(꿈찾기프로그램) : 미리 활동지를 만들어 가고 아이들의 학년차이로 수준이 다르므로 적당한 평균을 유지하기 위해 학년을 섞어서 모둠을 2명씩 3팀을 만듭니다. 또한, 일찍 끝날 수 있으므로 그 후 직업과 관련된 게임을 만듭니다. 이 회기에는 빙고판 으로 아이들이 만들게 했고, 직업의 종류를 크게 30가지 만들어 갔습니다. 또한 판토마임과 직업을 연결시켜 퀴즈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 갔습니다. 이때는 팀을 조직하여 다른 때보다 경쟁이 치열하였으며, 아이들이 상품을 원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가기보다는 센터의 상점 스티커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필기도구는 센터 내에 있는 것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활동내용

★ 행사 기간 중 활동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

- ① 스포츠 및 학습연계프로그램 : 이 프로그램에 가장 많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보통 8명) 운동장으로 이동시, 고학년과 저학년을 한 팀으로 묶어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아파트 안에 있는 작은 운동장에서는 가급적 활동하지 않습니다. 주로 학교 운동장에서 진행합니다. 그러나 다른 아이들이 많거나 조기회 축구를 하는 경우, 다른 운동장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운동장 상황을 살피면서 센터로 갑니다. 이 회기의 활동1에서는 풍선 세트와 책받침 등을 그리고 활동2에서는 축구공과 구급상자, 배드민턴 라켓과 공, 물, 화장지등을 준비했습니다.
- ② BWS프로그램(꿈찾기프로그램) : 미리 활동지를 만들어 가고 아이들의 학년차이로 수준이 다르므로 적당한 평균을 유지하기 위해 학년을 섞어서 모둠을 2명씩 3팀을 만듭니다. 또한, 일찍 끝날 수 있으므로 그 후 직업과 관련된 게임을 만듭니다. 이 회기에는 빙고판 으로 아이들이 만들게 했고, 직업의 종류를 크게 30가지 만들어 갔습니다. 또한 판토마임과 직업을 연결시켜 퀴즈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 갔습니다. 이때는 팀을 조직하여 다른 때보다 경쟁이 치열하였으며, 아이들이 상품을 원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가기보다는 센터의 상점 스티커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필기도구는 센터 내에 있는 것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활동평가 및 사후 연계

★ 활동에 대한 효과와 대상자(기관, 활동장소 등)의 만족정도

- ① 스포츠 및 학습연계프로그램 : 아이들은 정전기의 원리를 잘 알고서 서로 몸에 비비기도 하며 새로운 풍선게임도 만들어 내기도 하는 등 즐거워했습니다. 외부활동기피 아이들에게 흥미를 북돋아 주기 위해했던 배드민턴공이나 축구공으로 강통을 맞추게 하기도 하고 원을 그려 그 안에 넣는 게임은 아이들 모두 좋아했으며 아이들이 더 응용해서 다른 목표물을 맞추게 하는 등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 ② BWS프로그램(꿈찾기프로그램) : 직업 빙고게임을 하면서 아이들은 이색 직업에 대해 관심을 보였고 또 다른 직업을

연계해서 생각하여 서로의 생각을 발표하며 새로운 직업명을 만들어 내기도 하며 그에 따른 하는 일도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판토마임을 할 때는 쑥스러워하면서도 쉽게 문제를 표현하는 등 저학년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어울리는 직업 등을 묻기도 하며 자신의 꿈을 자연스럽게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 전체적인 평가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 동기를 유발하고 한사람이라도 예외를 두지 않기 위해 놀이와 결합한 활동이 효과가 좋은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아이들과의 오랜 교감으로 서로 신뢰하는 상황에서 활동을 하니 이제는 봉사라기보다는 가족과 즐거운 여러 활동을 하는 것과 같다고 느껴지는 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저로부터 무언가를 얻었다거나 혹은 꿈이 확고해졌다는 자신감을 얻었는지는 저보다도 본인 스스로들이 알겠지만, 확실한 것은 아이러니 하게도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한 행동이 제가 오히려 인성, 진로 등 여러 면에서 도움을 받는다는 것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프로그램은 아직 부족하지만 적어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win-win 게임인 것 같습니다.

★ 활동소감 및 발전방향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활동을 하면서 드는 느낌은 프로그램을 위한 진행 활동이 아니라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도 내용을 변경하여 아이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두 준비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아이들끼리의 갈등, 예외에 어긋나는 것 등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또한 이 프로그램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 지속적 운영방법

일반적으로 중고등학생들이 봉사를 하는 것과 달리 이 봉사활동은 가족과 같은 정을 서로 공유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후배들 중에 성격이 좋고 다른 사람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후배를 추천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제가 대학생이 되더라도 당연히 정기적으로 와서 봉사도 하고 후배들에게 힘든 점이나 여러 경험 등을 통해 도움을 줄 것입니다.



활동일시	2014년 5월	활동장소	아가페지역아동센터
사진설명	왼쪽사진은 지역사회기관 바자회 물품기부, 오른쪽 사진은 경험을 토대로 완성한 봉사매뉴얼 책자.		

나! 나를 알다

가족부문



참가형태	가족(청소년 포함)
단체명 (동아리명)	김재은 가족
참가청소년	김재은, 이유빈, 김현규

활동기간	활동명	활동횟수	활동시간	참여인원
2014년 4월 28일 ~ 2014년 5월 31일	나! 나를 알다	21	89	5
활동장소	인천시 남구 주안동 596-24 청소년 장애인 자립 생활학교 생활캠프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형성을 위해 놀이와, 독서지도(인형극)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4회기 8차시(상. 하반기 16차) 교육 기부 활동을 통해 장애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형성과 비장애청소년의 장애인식을 개선하며, 장애청소년과 비장애청소년의 어우러짐 속에 우리는 함께 라는 것을 인식시키고자 합니다. - 5년간 해온 봉사로 월 2회 지역의 독거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어다 드리며, 말벗을 해드리고 건강을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고 지역사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자합니다. - 3년간 해온 봉사로 월 1회 인천구세군평강의 마을 요양원을 방문하여 치매나 중풍으로 손에 힘이 없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 식사수발을 해드리며, 한 곳에서만 생활하시는 할머니들의 기분 전환을 위해 매니큐어를 발라드리며 효도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	---

위의 봉사활동은 이번 행사참여를 위해서 신규로 만든 프로그램입니까? 기존에 진행 중인 프로그램입니까?	신규 프로그램
--	---------

프로그램 기본사항

일시 : 2014년 3월 ~ 2014년 12월

장소 : 인천시 남구 주안동 596-24 청소년 장애인 자립 생활학교 생활캠프

인원 : 24명

수혜대상 : 지적장애 청소년

활동의 계획과 준비 내용

★ 활동의 목적과 동기, 필요성

목적 (신규 프로그램)

- 교육 기부 활동을 통해 장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형성시키고, 자기의 생각을 표현 할 수 있게 하며 일상생활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 합니다.
- 장애 청소년과 비장애청소년의 통합 교육을 통해 비장애 청소년들의 장애인식을 개선을 확산하고, 또래 집단과 상호작용하며 나를 알아가고, 우리는 함께 라는 것을 인식 시키고자 합니다.
- 교육 기부 프로그램을 통해 나의 장점을 알아가며, 직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 봉사활동을 통해 인성을 함양하고, 자기개발에 도움이 되고자합니다.

목적 (기존 프로그램)

- 지역의 독거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반찬을 만들어 드리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갖고 지역사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 구세군 평강의 마을 요양원을 방문하여 치매와 중풍으로 식사가 힘든 할머니, 할아버지께 식사수발을 해드리고 말벗을 해드리며, 효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 지역의 마을가꾸기에 참여하여 우리지역을 이해하며, 벽화봉사 등을 통하여 우범지역이었던 곳을 우리지역의 명소로 바꾸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자 합니다.

동기

헤림원등 장애청소년 시설에 가서 보니 비장애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봉사는 장애인 친구와 배드민턴을 쳐주거나 시설 청소를 해주는 내용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 친구들에게 장애인 시설에 봉사를 다녀와 그곳의 이야기를 해주면 무섭지 않았느냐는 질문부터 하였습니다. 이런 친구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장애인 친구들과 만남이 자주 있으면 이러한 질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어머니께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할 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장애친구들에게 자아존중감 형성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함을 인식하시고 독서를 통해 자기를 표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셨고, 우리가족은 본 프로그램으로 장애인부모연대라는 시설과 연계하여 교육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필요성

장애인 친구들의 자아존중감 형성 프로그램의 필요한 이유는 장애 친구들이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상황에 맞는 표정이나 표현력이 부족하여 주변의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 친구들에게 상황에 맞는 교육을 자주 접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며, 통합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비장애 친구들에게 장애 친구들도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 하나임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봉사 활동을 통해 나를 알아보고, 지역사회를 이해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을 때 인성을 갖춘 훌륭한 청소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기에 통합교육 봉사는 꼭 필요합니다.

★ 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준비한 사항(사전조사, 교육 등)

장애 청소년 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사전 조사 (장애 아동, 청소년의 부모 40명)

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요구조사 통계

1. 귀댁의 자녀는 어떤 장애를 갖고 있습니까?

급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	언어	안면	기타	계
1		7	8				2			1	
2		10	3								
3		9									
계		26	11	0	0	0	2	0	0	1	40

2.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의 연령대(실제 나이)는?

나이	5~7세	8~10세	11~13세	14~16세	17~19세	계
인원	6	6	6	8	14	40

3. 장애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이 개설된다면 참여 시키겠습니까?

예 (40명) 아니오 (0)

4. 장애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이 개설된다면 참여시키고 싶은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대인관계	권리 찾기	진로 찾기	기타	계
인원	17	7	17	4(사회성)	45(중복체크 5)

5. 프로그램 참여가능한 시간대는?

시간	토요일 오전10~12시	토요일 오후2시~4시	기타	계
인원	18	17	5	40

6. 월 몇 회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습니까?

횟수	1회	2회	3회	4회	기타	계
인원	3	22	2	13		40

7. 비장애 아동,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① 우리 아이들도 똑같다.
- ② 편견 없는 시선과 마음을 나누어 줬으면 합니다.
- ③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폭 넓은 많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 ④ 거주지 근처에서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한다.
- ⑤ 조금 더 배려해주고 함께 생활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 ⑥ 같이 놀자.
- ⑦ 무엇이든 함께 하고 싶어요.(등산, 쇼핑, 노래방 등등.)
- ⑧ 나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 ⑨ 우리 애들하고 어울려서 잘 놀아주면 좋겠어요.
- ⑩ 자신의 능력은 생각보다 클 수 있으니 항상 도전하고 긍정적으로 나아가자.
- ⑪ 너무 동생이나 형, 오빠에게 의식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 활동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전문교육(강사양성과정)을 4월 15일부터 ~ 5월 21일 까지 총 10회 20시간을 수료하였습니다.

- 1강. 인천 지역사회와 자원봉사의 가치(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권정호)
- 2강. 행복공동체 가치공유란?(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최중혁)
- 3강. 행복공동체 전문 강사 start (한국자원복지재단 김희경)
- 4강. 감정을 움직이는 풍요로운 강사 기법 (함께울림커뮤니케이션 대표 성봉규)
- 5강. 아동,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이란? (한국자원복지재단 유영주)
- 6강. 장애인, 노인 자원봉사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손용근)
- 7강. 아래로부터의 사회변화를 위한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동아인재학교 사회복지과 이 연)
- 8강. 자원봉사갈등관리이해 및 전략기술 (한국갈등연구원 김미라)

- 9강. 리딩 & 오디션 -주제별 오디션 및 코멘트 진행
- 10강. 현장실습 평가회 및 수료식 진행
- ※ 위 교육을 모두 받으신 후 집에서 다시 가족들에게 재교육을 해 주셨습니다.)

★ 활동에 대한 계획 내용(사람, 용구, 장소, 위험요소, 준비물 등)

- 교육 기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앞서 장애아동 부모님들 40명을 대상으로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언니와 나는 설문지를 통한 요구조사를 하였습니다. 요구조사 결과에서 가장 선호 하는 프로그램을 알아본 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우리 가족은 강사활동을 하고 있는 어머니친구분의 도움을 받으며 교육 기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인성, 인권, 청소년 체험활동 지도자 및 자원봉사 상담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 인천장애인부모연대를 방문하여 봉사 활동 장소 및 대상자들의 장애 정도를 파악하였으며, 생활캠프에 참여하게 되는 장애청소년들의 부모님들을 만나 장애청소년의 특성이나, 성격 등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 미팅을 하였습니다.
- 교육기부에 필요한 교구들을 집에서 가족과 함께 만들어 코팅하고, 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연습을 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 4회기 프로그램 중 2회기에 진행 했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 장애청소년 자존감 형성 체험활동 프로그램

2회차 세부 지도안

제목	내! 나를 알다.		
대상	장애청소년 4명	장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부
일정	2014년 5월 21일(토) 19:00~21:00	준비물	도화지, 색연필, 싸인 펜, 그림(사진), 풀 감정단어카드, 표정카드, 동화교구
목표	1. 자기주장을 할 수 있다.		
단계	시간	활동내용 및 방법	준비물
도입	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 하루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 나눈다. - 지난 회기에 대해 이야기 한다. - 오늘 활동에 대해 이야기 한다. - ice-breaking : 웃는 얼굴 따라 하기(개구리 뒹다리).. 담당(김재은) 	동영상

단계	시간	활동내용 및 방법	준비물
전개	30분	활동1 : 자기소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들에게 A4용지와 색연필, 사인펜을 나누어 준다. • 소개 할 내용이 담긴 그림(사진)을 참여자들이 알기 쉽게 교구판에 붙여 준다.(이름, 나이, 좋아하는 음식, 나의 자랑거리, 장래희망 등) • 도화지에 자기소개를 글이나 그림(사진)으로 자유롭게 꾸미는 시간을 갖는다.(글과 그림 모두 불가능한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비장애친구들이 함께 꾸밀 수 있도록 해준다.) • 참여자 전원이 자기소개 꾸미기가 완성되면 가위 바위 보로 순서를 정하여 앞으로 나와 자기소개를 한다. (체험활동 지도자가 먼저 예시를 보여주면 더 효과적이다.) • 자기소개가 끝날 때마다 큰 박수로 칭찬해 준다. 	도화지, 색연필 or 싸인 펜, 풀, 그림, 사진
	15분	활동2 : 짝짓기 게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참여자가 원으로 둘러서서 “손을 잡고 빙빙 돌아라.”노래를 부르며 빙빙 돌다가 인원수에 맞게 짝을 짓는다. • 짝을 만나지 못한 참여자는 미션으로 장기자랑을 한다. • 체험활동 지도자가 술래가 되어 미션을 먼저 수행한다. • 장기자랑을 한 참여자에게 전체참여자가 큰 박수를 쳐준다. ※ 활동 시 주의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천히 진행하여 모든 참여자들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 모든 참여자가 장기자랑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움직임을 통해서 자신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심화	20분	활동3 : 내 몸은 내 거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단어카드와 표정카드를 이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 할 수 있도록 한다. • 창작동화 “내 몸은 내 거야!!!”교구 판에 교구를 붙여가며 동화를 들려준다. • 이야기에 맞는 상황 극을 통해 자기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활동 시 주의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 극을 할 때 글을 모르거나 음성언어 표현이 되지 않는 참여자는 표정카드나 감정 단어 카드로 표현하게 한다. 	감정 단어 카드, 표정 카드, 동화 교구
마무리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 활동에 대한 느낌 이야기 나누기 • 오늘의 약속 : 거울을 보고 자신의 감정 얼굴로 표현해 보기 • 다음 수업 안내 	

※ 쉬는 시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참여자들이 힘들어 할 경우 언제든지 쉴 수 있도록 한다.

활동내용

★ 행사 기간 중 활동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

나! 나를 알다. (장애 청소년과 비장애 청소년 대상)

- 3월부터 준비한 가족 봉사 프로그램으로 어머니께 장애 청소년과 비장애 청소년들을 자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기획된 프로그램이 장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형성 및 일상생활의 자립을 도와 주기 위한 교육기부 프로그램입니다.
-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인천 장애인 부모연대를 방문하여 장애인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날을 알아본 후 장애아동, 청소년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40명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요구 조사를 하였습니다. 요구조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우리 가족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고르고, 석사, 박사 논문들을 열람하고, 장애인센터를 방문하여 많은 정보를 얻어 어머니는 함께 강사 활동을 하고 있는 선생님과 한 달 동안 잦은 만남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 본 교육기부 프로그램은 총 4회기 8차시 프로그램으로 장애 청소년의 자아 존중 감 향상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인천장애인부모연대와 연합하여 4월부터 12월까지 장애아동 24명을 대상으로 생활지원 캠프(1박2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하여 일요일에 오후 2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 중 세부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 장애청소년의 연령과 성별, 장애정도에 따라 한주 4명의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상반기에는 여학생 대상으로 본 교육기부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남자는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반기에 장애남학생 대상으로 통합프로그램 봉사가 진행됩니다.)
장애청소년의 봉사 교육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가족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어머니께서 심화교육을 받고 온 내용을 다시 집에서 가족들에게 재교육했습니다.
- 생활캠프에 참가하게 되는 장애 친구들에 대한 성격과 장애의 등급 등을 미리 알아본 후 우리 가족들은 회의를 하여 각자의 짝을 정했습니다. 해림원등 장애친구들의 시설에 2년 동안 봉사를 다닌 저는 지적장애1급을 가지고 있는 고2 헤린이와 짝이 되었고, 장애친구들과 경험이 부족한 언니는 지적장애 3급인 시현이와 짝을 이루었습니다. 봉사에 필요한 교구를 만들기 위해 온가족이 모여 감정카드를 오려서 코팅하고 다시 다치지 않게 천을 한 번 더 대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교구 판을 이용하여 인형극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여 인형극에 맞는 역할을 맡고 사전연습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친구들을 만나는 봉사는 4월 셋째 주 토요일에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첫 번째 친구들을 만나는 날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왔던 생일과는 다르게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생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만난 시간에 우리는 친구들과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놀이를 통해 즐거운 시간을 갖으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탄생교구를 통해 나는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며, 친구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좋아하는 직업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친구들을 만나는 봉사는 5월 셋째 주 토요일인 5월 21일이었습니다. 2회기 봉사 교육 프로그램은 일상생활에서 장애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 표현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있어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되어 '내 몸은 내거야'라는 동화구연을 통해 표

정과 상황에 맞는 감정들을 감정카드를 통해 알아보고 연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화가 잘 되지 않는 헤린이를 도와 주면서 언어가 잘 되지 않는 헤린이가 상황 감정 카드를 들지 못할 거라고 생각 했지만 반복 학습을 통해 헤린이는 상황에 맞는 감정 카드를 들게 되었습니다. 나는 다시하번 나의 생각을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언어가 되지 않는 다고해서 생각이나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며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봉사는 6월 셋째 주 토요일에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본 프로그램 이외에 5월에 했던 가족 봉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세군 평강의 마을 요양원 방문

3년 전부터 해왔던 가족봉사로 월 1회 둘째 주 토요일에 남동 구세군 평강의 마을 요양원을 방문하여 치매어르신과 중풍으로 입원해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나는 봉사입니다. 손가락을 들기가 힘드신 할머니, 할아버지의 식사수발을 해드리고 항상 같은 곳에서 생활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작은 기쁨을 드리고자 엄마와 나는 할머니들의 기분전환을 해드리기 위해 집에서 빨간색 매니큐어를 준비해 갔습니다. 매니큐어 바르는 것을 처음에는 거부하시는 할머니도 계셨지만 한분, 두 분 바르시는 모습을 보시고는 손을 내미셨습니다. 주름진 손위로 한 겹의 매니큐어가 반짝이는 것을 보이며 할머니들 얼굴에선 웃음이 떠나질 않으셨습니다. 나의 작은 아이디어와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빠와 남동생은 할아버지들의 면도를 해드리는 등의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 다녀오는 날이면 남동생은 평소 밥을 적게 드시는 엄마에게 투정을 부립니다. 밥을 많이 드셔야 된다고 말합니다. 남동생은 요양원에 계시는 할머니들처럼 엄마가 앙상하게 빼면 남을 까봐서 미리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요양원 봉사를 다니면서 효도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봉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모아 반에 'VIP(Volunteer Interesting People)' 라는 이름의 봉사단을 만들어 친구들과 요양원을 함께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지역의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봉사

2010년 중학교에 들어가 가족봉사단에 가입하여 해왔던 봉사로 월 2회 독거어르신들에게 반찬을 만들어 배달해 드리는 봉사였습니다. 그 봉사를 개기로 우리가족을 5년 동안 우리지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반찬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5년 동안 할머니, 할아버지 댁을 방문하다보니 할머니들의 건강을 걱정하게 되고 편찮으시지는 않을까 염려스러워졌습니다. 할머니께서 치과에 다녀오셨다고 하면 엄마께 부드러운 음식을 해드렸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두부조림이나 메추리알 장조림을 만들어다 드리기도 하고 감기에 걸리셨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는 잣죽을 쑤어서 가져다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며칠 전 반찬을 가지고 할머니 댁을 방문 하였는데 할머니께서 가슴에 뭐가 만져지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요즘 부쩍 살이 빠졌다고 하셨습니다. 일전에 반찬을 가져다 드렸을 때 보다 정말로 많이 수척해져 보이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월요일 동사무소에 가서서 할머니의 상황을 말씀드리기로 하였고 할머니의 외소해진 모습을 보고 나오는데 발걸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지역의 마을 가꾸기 참여

주말을 항상 가족과 함께 봉사를 다니다 보니 지역의 마을 가꾸기나 환경정화 행사가 있을 때도 저희 가족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모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손재주가 있는 동생과 어머니는 벽에 스케치를 담당으로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키가 닿지 않는 곳을 전문으로 칠을 하십니다. 이렇게 지역의 환경정화활동을 통해서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배우

며, 깨끗한 거리 만들기에 동참하고, 마을 벽화그리기에 참여해 우범지역을 우리의 손으로 바꾸면 아름다운 마을의 명소로 변한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활동평가 및 사후 연계

★ 활동에 대한 효과와 대상자(기관, 활동장소 등)의 만족정도

활동에 대한 효과 (기관)

-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다양한 사회적응 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의식을 개선 할 수 있게 됩니다.
- 지역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자원을 살펴봄으로서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통합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 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가 안정되고 조화로운 상태가 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성장해 가는 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 조금 더 많은 장애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적 자원을 통해 새로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발굴하게 됩니다.

활동에 대한 효과 (장애청소년 및 장애청소년 부모)

- 장애, 비장애 친구들의 완전통합 교육으로 이루어진 본 프로그램으로 장애친구들에게 지역사회의 적응을 향상시켜줍니다.
- 나를 알아가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정을 표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의 자신감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 장애청소년과 비장애청소년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장애친구들에게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시켜 줍니다.
- 가족의 소중함과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 장애친구들의 성장과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것이 직업입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친구들에게 직업의 이해도를 높여줍니다.
- 장애인 가정에서는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계속해서 돌봐야하기 때문에 그 가족들은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해 장애 친구들의 가족들은 많은 에너지를 빼앗기게 됩니다. 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장애아동 부모님들은 휴식을 취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 여가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활동에 대한 효과 (비장애청소년)

- 본 프로그램의 특성상 통합교육으로서 장애친구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장애친구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와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 본 프로그램을 통해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 본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소외계층과 함께함으로써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통해서 인성을 배우며, 자기개발에 도움이 됩니다.
- 가족과 함께 자원봉사를 하면서 의미 있는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 가족과 함께하는 자원봉사를 통해 가족애를 느끼며,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 이를 통해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의 필요성을 느끼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 전체적인 평가

- 장애인부모연대인천지부 생활캠프장은 인천 주안 2동사무소 정문 바로 앞에 있는 곳으로 장애인부모연대 부모님들과 시설에서 일반 가정 주택을 임대 한 곳입니다. 장애 청소년들의 자립생활을 도와주기 위해 일반 가정과 유사한 곳에서 적응시키기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장소로 일반 가정과 같이 거실과 방, 요리가 가능한 주방, 마당 까지 갖추어진 곳으로 본 프로그램과 자립생활을 진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활동하기 전 장애청소년들을 이해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장애청소년들의 어머니들과의 만남을 통해 장애청소년들의 장애 정도와, 성격을 알아보고 장애청소년들에게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은 무엇인지 사전조사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과 장애정도에 따른 돌발 행동들에 대해 어머니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봉사에 참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빈이 언니는 장애친구들의 첫 만남에 있어 굉장히 얼어 있었으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돌발행동에 언니는 마치 공포영화를 보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만나는 시간과 회기가 지날수록 언니는 이제 장애 친구들과 포옹을 하며 인사를 나누고 흘리는 침을 닦아주며 서로 음식을 함께 나눠 먹기도 하는 것을 보면 장애 친구들과 비장애 친구들과의 만남과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 장애를 가진 친구들은 첫 만남 시간에 탄생교구를 통해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 듣고 그 과정을 다시 한 번 장애청소년들이 교구를 들고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가져 봤지만 처음 해보는 것이어서 그런지 어색해하며 표현이 서툴렀습니다. 두 번째 만남의 시간에는 장애 청소년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글을 모르는 내 짝 헤린이는 모든 활동을 나와 함께하였습니다. 한글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사진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관심 있어 하는 직업 카드를 붙이며 자기를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내 몸은 내거야'라는 구연동화를 통해 상화에 맞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였습니다. 동화에 나오는 상황에 따라 나의 감정은 어떠한지 감정 카드를 들게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서툴렀지만 계속 되는 반복 연습을 통해 상황에 맞는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활동 할 때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던 헤린이는 나와 함께 활동을 하면서 내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내 머리 냄새를 맡아보고 얼굴을 만져보고, 내 표정을 따라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면서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면서 헤린이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며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황에 맞는 언어표현을 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활동을 통해 장애인 친구들이 자신을 알아가기에 앞서 나는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었으며 나의 진로까지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 본 프로그램에서 활동하면서 교육을 통해, 장애라는 것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장애청소년들이 언어가 잘 되지 않는 다고해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장애 청소년들과 비장애 청소년들의 만남과 소통을 위해서 통합교육의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소외 되고 있던 장애 친구들과 함께함으로써 내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 활동소감 및 발전방향

- 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활동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 프로그램 특성상 장애청소년과 비장애 청소년의 1:1 매칭이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가족과 함께 친구들에게 봉사활동을 하자고 요청하였지만 친구들이 고3이라는 특성과 장애친구들을 만난다는 말에 친구들은 모두 자신이 없다하며 거부를 하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입시를 위해 우리나라 교육이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생각과 우리가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통해서 장애 친구들과 비장애 친구들을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많이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통합 교육의 장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하반기부터 많은 장애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기부를 해주실 활동 지도자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동참하여 여러 팀으로 나누어서 많은 장애청소년들과 비장애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조금 더 체계적인 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며,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조금 더 질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 지속적 운영방법 등(앞으로의 계획)
- 장애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형성 및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도해 주실 수 있는 지도자와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할 다양한 연령대의 비장애 청소년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친구들과 동생들에게 통합프로그램 활동의 필요성과 본 프로그램에 함께 하자고 설득 하여 6월 봉사 활동부터는 친구들과 동생들이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 어머니께서는 유스플러스세움라는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 계시는 선생님들에게 교육기부를 해주실 것을 요청 하였고, 그 선생님들과 선생님들의 자녀와 함께 활동을 하기 위해 봉사단체를 만드셨습니다. 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봉사를 해주시겠다고 신청하신 선생님들에게 봉사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 남동자원봉사센터에 봉사기초교육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하여 5월 7일 기초교육을 마쳤으며, 자녀들을 위해서는 6월 28일 청소년들의 인성 및 장애청소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남동자원봉사센터에서 어머니께서 교육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 남동생 또한 하반기에 장애를 가진 남학생 대상으로 통합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장애 친구들과 비장애 친구들의 1:1 매칭활동을 위해 8월부터 봉사를 함께 할 친구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 우리 가족은 봉사단체에 가입한 회원들과 본 교육 프로그램으로 장애청소년들의 만남의 갖고자 인천 장애인 부모연대와 연계하여 하반기 8월~12월 장애인 생활지원 캠프에 참여하여 교육 기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남동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또 다른 장애인센터를 방문하여 많은 장애 청소년들과 비장애 청소년들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긍정적인 장애인 인식개선을 확산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임을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봉사 장소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동아리단체부문



우리Project 'Let 美(미)人(인)-청춘이여 돌아오렴'

참가형태	청소년 동아리 · 단체
단체명 (동아리명)	라운천사
참가청소년	강소연, 강세은, 김민준, 전민호, 정승환, 안혜빈, 이진영, 이소희, 이기정, 이민영, 이수연, 강태예, 김서현, 박우석, 이보경, 이현준, 이수빈, 최원영, 박소정, 김세빈, 강 건, 김세현, 김진우, 전미진, 정민석, 한동은, 권민솔, 최서현, 김미진, 유경은, 박진휘, 장유빈, 이은서, 함승아

활동기간	활동명	활동횟수	활동시간	참여인원
2014. 4. 28 (월) ~ 2014. 5. 31 (토)	우리Project 'Let 美(미)人(인)-청춘이여 돌아오렴'	8	20	
활동장소	함지골청소년수련관			

5월 가정의 달 ·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홀로계신 어르신들께 사랑을 전하는 우리 Project의 활동 내용은 'Let 美(미)人(인)-청춘이여 돌아오렴'이라는 활동명 아래 3단계로 구성되어진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1단계 홍보단계는 먼저 홀로계신 어르신들이 찾는 노인정이나 복지관에 방문하여 홍보 후 모집을 하고, 2단계 배움단계에서는 필요한 이 · 미용기술을 습득하는 준비기간을 거쳐 3단계 실행단계에서는 어르신들께 직접 염색을 시켜드리며 안마와 지압을 해드리며 행복한 추억을 선물해드리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변신이 끝난 후에는 증명사진을 찍어드리는 활동을 통해 홀로계신 어르신들께 손자와 손녀가 되어 드리는 활동입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 ·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는 청소년들에게는 자기주도적인 역량강화와 함께 협동심 · 의사소통기술 향상이 가능한 활동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 활동 속에서 청소년들은 지역사회 주체적인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위의 봉사활동은 이번 행사참여를 위해서 신규로 만든 프로그램입니까? 기존에 진행 중인 프로그램입니까?

기존 프로그램

프로그램 기본사항

일시 : 4/30, 5/3, 5/7, 5/9/, 5/10, 5/14, 5/17, 5/21, 5/24

장소 : 함지굴청소년수련관 및 영도구노인복지관

인원 : 30명

수혜대상 : 영도구 내 독거 어르신 20분

활동의 계획과 준비 내용

★ 활동의 목적과 동기, 필요성

2013년 방과후아카데미'라운'청소년들은 기존의 자원봉사를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을 보완 하기위해 2014년 D.I.Y.자기주도형 자원봉사활동 모형을 선택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 · 실행 ·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완성되는 D.I.Y.자기주도형 자원봉사활동은 2013년 말부터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자신이 살고 있는 영도구 내에 필요한 자원봉사활동거리를 직접 탐색하였고 그 결과 환경, 교통문화, 나홀로 노인인구증가라는 3가지 문제를 찾았습니다. 이번 세계자원봉사의 날을 맞이하여 청소년들이 선택한 자기주도형 자원봉사활동은 우리 Project로 영도구내에 계신 홀로계신 어르신들을 찾아가 행복한 추억을 선물해드리는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 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준비한 사항(사전조사, 교육 등)

1. 'Let 美(미)인(인)-청춘이여 돌아오렴' 기획회의 및 홍보활동
2. 자원봉사 선생님과 함께 배우고 익히는 이 · 미용
3. 친구들에게 배우는 사진촬영기술&네일아트&지압법

★ 활동에 대한 계획 내용(사람, 용구, 장소, 위험요소, 준비물 등)

1. 기획회의를 통해 얻은 결과물필요한 팀 구성정하기, 팀별 인원 정하기, 필요한 물품 정하기, 안전교육 및 필요한 교육 일정 잡기 등
2. 수혜대상을 영도구 내 60세 이상 홀로계신 어르신으로 결정 대상자를 구할 수 있는 영도구 노인복지관 및 다양한 복지관에 전화지도 및 홍보진행 영도구노인복지관 방문하시는(정한 대상에 맞는 어르신들로 하여금) 혜택을 받고자 희망하시는 어르신 모집 기관 방문하여 시설 라운딩 진행

활동내용

라운천사들이 2013년 직접 기획한 자원봉사활동으로 4월 말부터 3회에 걸친 기획회의를 통하여 자원 봉사할 장소, 내

용, 팀원, 역할 그리고 준비물품 등을 정하였다. 염색팀, 뒷정리 및 다과 준비 팀, 사진 촬영팀, 네일과 지압팀, 홍보 팀 이렇게 총 5 팀으로 나뉘어 필요한 사전활동들을 팀별로 준비하였다. 먼저 염색팀과 뒷정리 및 다과 준비팀의 경우 기획회의 이후 준비 물품들을 항목별로 정하고, 필요 인원수에 맞게 마트와 화장품 가게 등을 방문하여 물품을 직접 구입하였다. 어르신들의 연령을 고려한 다과와 순한 염색약, 그리고 만약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약품들까지 구입을 완료하고 구입하지 않고도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연계기관들로 하여금 지원을 받았다. 또 염색팀은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 · 미용 자원봉사선생님을 영도구자원봉사센터로부터 섭외하여 염색 기술과 나머지 노하우들을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번의 연습이 아니라 익숙해질 수 있도록 3번에 걸친 연습을 진행하였다. 또래친구들의 머리카락, 기사님, 선생님의 머리카락을 변신시켜주고 뒷정리 팀에서는 드라이와 샴푸 부분까지 역할분장을 하여 봉사활동 준비를 하였다. 사전에 기관방문을 하여 프로그램 시설을 둘러본 결과, 염색을 진행할 이 · 미용실과 샴푸를 진행할 공간이 많이 좁은 것을 고려하여 염색팀에서는 저학년들에게는 밖에서 어르신들의 차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후 염색 약 컬러를 선택하고 섞어서 프로그램실로 안내하는 일을 분장하였다.

그리고 샴푸실에서는 2명의 친구들이 할머니들의 머리를 감겨드리고 2명의 친구들은 4층으로 안내하여 드라이를 진행하고 수건을 거두어드릴 수 있도록 업무 분장을 실시하였다. 나머지 사진 촬영팀과 네일 · 지압팀의 경우에는 또래친구들의 재능나눔으로 먼저 시작되었다.

친구들이 봉사활동에서 진행할 수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사전에 활동지도안을 받고 그 속에서 염색과 관련된 내용을 구분하여 네일과 지압으로 확정되었으며, 사진촬영을 알려줄 수 있는 친구로부터 인물 사진 촬영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엇보다 중요한 홍보팀의 경우 나머지 4팀이 사전준비를 하는 동안 바쁘게 움직였다.

영도구 내 이 · 미용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의 연령대를 파악하고 자신들이 평소에 봉사활동을 다니던 곳에 연락을 하여 대상을 모집하였다. 처음 홍보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이었기에 단순히 전화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전자료를 준비하고 홍보멘트까지 작성하여 전화를 하였다. 또한 홍보포스터를 제작하여 기관 별 팩스로 발송하기도 하였고, 앞으로 계속해서 연계할 기관의 경우에는 연락처를 꼼꼼히 기록하여 차후 활동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분류하는 작업까지 진행하였다. 자원봉사 당일에는 어르신들이 쉽게 장소를 찾아 올 수 있도록 총별 비치안내문을 작성하고 어르신들의 말벗과 나머지 팀별 일손이 부족한 곳을 도와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활동평가 및 사후 연계

★ 청소년평가 (34명 중 34명 답변), 졸업생 자원봉사자 포함

항목 구분	내용	만족도 평점 (5점 기준)
참여태도	1.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였나요?	4.97/5
시설 및 식사	2. 프로그램 진행 시 필요한 물품 및 장소를 기획회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구입하였나요?	4.86/5
	3. 장소는 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안전하였나요?	4.92/5

항목 구분	내용	만족도 평점 (5점 기준)
목표 만족도	4. 'Let 美(미)인(인)-청춘이여 돌아오렴' 프로그램을 여러 차례 기획회의를 통해 친구들과 함께 기획할 수 있었나요?	4.83/5
	5. 활동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직접하며 우리 지역에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해 알고 조사할 수 있었나요?	4.89/5
	5. 친구들과 자원봉사선생님에게 이·미용 자원봉사를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고 익힌 기술을 활동에서 사용했나요?	4.95/5
	6. 'Let 美(미)인(인)-청춘이여 돌아오렴' 프로그램은 친구들이 기획한대로 진행하여 보았나요?	4.95/5

한빛반 김혜민 'Let 美人 청춘이여 돌아오렴'에서 나는 할머니들께서 웃으시는 모습이 좋았다.

다솜반 이보경 'Let 美人 청춘이여 돌아오렴'에서 나는 할머니들이 좋아해주시는 모습이 좋았다.

다솜반 박소정 'Let 美人 청춘이여 돌아오렴'에서 나는 할머니들께 청춘을 돌려드린 것이 좋았다.

누리반 정민석 'Let 美人 청춘이여 돌아오렴'에서 나는 할머니들께 칭찬받는 것이 좋았다.

누리반 전미진 'Let 美人 청춘이여 돌아오렴'에서 나는 할머니가 예뻐지는 것이 좋았다.

다솜반 최원영 -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는 흥이 옛날 보다 급격하게 줄었다.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재미와 즐거움을 찾아주려고 이 봉사활동을 계획했다. 무뚝뚝한 할머니, 할아버지를 재미있고 행복하라고 이 봉사활동을 기획하게 되었다. 작년에 여러 곳을 공연을 다녀 보니 홀로계신 할머니들이 많아서 우리는 이 봉사활동을 통해 그 분들의 1일 손자 손녀가 되어 드리고 싶다. 다가오는 'Let 美人 청춘이여 돌아오렴'이 기다려진다. - 기획회의 중 소감

우리가 전부 모여서 기획한 프로그램. 오늘 할머니들께 염색을 해드리고 나니 온데군데 염색약이 많이 묻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할머니60~80대 정도 되시는 할머니들께서 요즘 이쁜 언니들처럼 사방사방 젊어지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 "행복하다""손자가 생긴 것 같다"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할머니들의 손자손녀가 되어드리고 싶었다.- 봉사활동 소감

다솜반 이현준 - 'Let 美人 청춘이여 돌아오렴' 홍보팀에서 홍보지를 만들고 전화할 전화 번호를 인터넷을 통해 조사해보고 나서 멘트를 미리 정해 놓기도 했다. 'Let 美人 청춘이여 돌아오렴'에 참석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모으기 위해 우리가 정해놓은 멘트를 가지고 노인복지관과 영도구 노인협회에 전화도 했다. 전화를 돌릴 때 멘트가 정해져있는데도 너무 긴장되었지만 옆에 친구들이 있어서 쉽고 재미있게 했었다. - 기획회의 중 소감

한빛반 강소연 - 오늘 영도구노인복지관에서 할머니들께 염색, 지압, 네일을 하였다. 나는 뒷정리여서 할머니들께 맛있는 다과를 드리기 위해 준비도 했고, 열아홉분의 할머니 머리를 샴푸로 감겨들었다. 그리고 나는 열아홉분의 할머니들 앞에서 대표로 우리가 영도구 노인복지관에 온 이유를 말했다.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꼬마김밥을 먹었다. 그리고 할머니 머리를 샴푸로 감겨들일 때 염색약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났다. 그리고 뒷정리하는 것 때문에 1층부터 5층까지 왔다갔다하고 정리하고 이동하였다. 좁은 공간에서 머리를 감겨드린다고 너무 힘들었지만 뿌듯하고 보람있는 일을 해서 기뻐다. 할머니들의 머리가 예쁘게 변한걸 보고 다음에 또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싶었다. 우리가 직접 기획한 봉사활동이라 너무 재미있었고, 앞으로 생각해야 될 내용도 많은 것 같다.

한빛반 안혜빈 - 오늘 드디어'Let 美人 청춘이여 돌아오렴'봉사활동을 하였다. 나는 네일아트팀 이어서 할머니들께 네일 아트를 해드렸다. 네일아트를 하다 보니 네일아트가 인기가 많아져서 할머니들이 많이 모여드셨다. 그래서 네일아트를 해드린다고 엄청 바쁘게 했다. 할머니들께 인기가 많았던 색은 라벤더와 비슷한 색이었다. 힘들었지만 좋아하셔서 조금 더 예쁘게 해드리려고 원하시는 색, 모양 등을 물어보고 열심히 네일아트를 해드렸다. 처음에는 할머니들이 안한다 안한다 하셨는데 네일아트를 다 받으신 후 고맙다고 하셨다. 기대했었던 만큼 재미있었고, 처음엔 긴장되었지만 나중에는 즐기면서 했고, 할머니 분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다. 이런 활동을 다음에 또 했으면 좋겠고, 다음번에 할 때는 염색 팀을 해보고 싶다. 할머니들께 정말 청춘을 되돌려 드린 것 같았고, 지금보다 더 젊어지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

★ 실무자 평가 (4명중 4명 답변)

실무자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순번	내 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선택수 / 백분율				
1	문화기획단(라온천사사전활동)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위한 기획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내용을 사전에 찾아 적용시켜보았나요?	-	-	-	-	4
		-	-	-	-	100%
2	프로그램 도입 중 사전활동 계획(회의)을 세웠는가?	-	-	-	-	4
		-	-	-	-	100%
3	지도자들이 청소년들의 안전에 유의하며 지도하였는가?	-	-	-	-	4
		-	-	-	-	100%
4	식사 시 청소년들이 음식을 남기지 않았는가?	-	-	-	-	4
		-	-	-	-	100%
5	청소년들이 주말전문체험활동에 만족을 하였는가?	-	-	-	-	4
		-	-	-	-	100%

★ 차기 특별체험활동을 위한 제언 작성

1. 느낀점

- ① 하나부터 열 가지 모두 청소년들이 준비할 수 있었던 알차고 재미있었던 시간.
어떤 자원봉사를 할까 고민하고, 고민으로부터 염색을 찾아내고 필요한 시간도 계획해서 이미용자원봉사 선생님께 미용하는 방법도 배우고, 필요한 물품도 구입하고 지도자가 혼자서 진행하는 것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청소년들이 찾은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 때문에 배울 점이 많았던 서로에 Win Win이 된 시간이었음.
- ② 청소년이 직접기획하고 준비한 프로그램인 만큼 많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적극적 으로 활동하는 모습이 인상적임.



외국인 근로자 한글 교육, 한국 문화 교육

참가형태	청소년(개인)
단체명 (동아리명)	이가량
참가청소년	개인

활동기간	활동명	활동횟수	활동시간	참여인원
2014년 4월 28일 ~ 2014년 5월 31일	외국인 근로자 한글 교육 및 한국 문화 교육	7	21	1

활동장소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	--------------

활동내용 우리나라의 소외 계층 중 한 부류인 외국인 근로자 뿐 아니라 경제적 상황 등으로 힘든 채류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한국어 교육 및 한국 문화 교육을 학습, 체험하는 센터(기관)에서 정규 봉사자로 활동하였다.

위의 봉사활동은 이번 행사참여를 위해서 신규로 만든 프로그램입니까? 기존 프로그램

기존에 진행 중인 프로그램입니까?

프로그램 기본사항

일시 : 2014년 4월 28일 ~ 5월 31일
장소 : 포항시 북구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인원 : 10명 이내
수혜대상 : 포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2. 좋았던 부분

- ① 청소년들이 1년 전부터 준비한 새로운 자원봉사활동 모델"DIY자기주도형자원봉사"에 접어드는 첫 실행 단계
- ② 직접 주변의 문제를 찾고 발견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또래들과의 고민 · 머리 맞댐, 그리고 협력.
- ③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법, 지역사회 상황을 파악하고 관심가질 수 있었음.
- ④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어르신들께 고마운 인사를 받고 나서 뿌듯해하는 모습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에 알맞은 사업임을 알 수 있었음.
- ⑤ 초등학교생들이 진행하는 자원봉사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머리 염색하기도 사전에 연습을 해보아서 무리 없이 잘 진행되었음.

3. 앞으로 반영할 부분

- ① 청소년들이 기획하는 활동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단계인 평가단계, 진행한 내용들을 단계 별로 나누어 보고 객관적으로 평가 한 후에 차후활동에 필요한 것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
(팀 업무분장, 업무배치, 사전에 필요한 활동, 준비 물품구입, 2차 장소 등)
- ② 남은 37지 기획활동도 긴 준비시간을 고려하여 방학시간을 활용하여 시간배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



활동일시 2014년 5월 24일 활동장소 영도구노인복지관

사진설명 세상에서 제일 이쁜표정으로 보이, 꽃반침♥

활동의 계획과 준비 내용

★ 활동의 목적과 동기, 필요성

이 프로그램은 평소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아 주변에서 정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봉사활동 등을 수소문 하여 알아보다가 한국인 봉사자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참여하여 정기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 봉사가 내가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봉사라는 의의보다는 내 스스로가 도움을 주기위해 먼저 노력하고 먼저 공부를 해가기도 하며 외국인들과 더욱 원활한 소통과 이해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적인 부분에서 매우 필요하게 된 활동이다.

★ 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준비한 사항

담당하게 된 외국인의 국적 나라의 문화, 풍습, 가치관, 주의사항 등의 기초적인 사전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다른 문화에 대한 수용, 이해의 태도가 매우 필요로 한다.

★ 활동에 대한 계획내용

함께 대화, 공부 할 외국인인 필요하며 외국인의 비율만큼의 한국인 자원봉사자 또한 필요로 한다. 장소는 센터에 필요한 교육을 위한 책, 노트, 필기구, 교구 뿐 아니라 공부시설이 모두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없고 사전 담당 학생이 나라에 대한이해, 기초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

활동내용

★ 행사 기간 중 활동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

이 행사에 참여하기 이전부터 활동해 오던 정규 봉사 장소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행사의 주제에 의도치 않게 맞게 되어 정말 반가웠던 것 같다. 행사활동 기간 동안이라고 하여서 특별히 다른 봉사를 구하지 않고서 평소처럼 토요일이 되어 센터로 향하였다. 평소에도 봉사자와 외국인들 통틀어서 가장 먼저 도착하는 나는 늘 식사시간이 시작하기 전 센터로 오는 외국인들과 함께 사전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준비를 함께하면서 더욱 한국 음식이나 예절 등에 대해서도 더 알려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업이 시작하기 전 나 스스로도 상대에 대해서 편안한 분위기를 통해 더욱 알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웬만큼은 늘 먼저 도착하여서 시간을 보낸다. 수업이 시작하면 내가 그 날 담당하게 된 외국인과 함께 자연스럽게 대화로 시작을 한다. 평일동안 있었던 경험담을 서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중 듣거나 보며 궁금했던 한국말, 한국 문화 등을 알려주기도 하면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서 저번시간 미리 풀어보자고 나누어 준 프린트를 확인, 풀이하면서 확인하기도 하고, 계속하여 이야기를 통해 소재를 유도하여 수업을 하는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계속 하여 이런 식으로 수업시간을 보내게 된다. 한국인 자원봉사자들 중에서는 전문 사회복지사 분도 계시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과의 대학생 분들 등 정말 여러 분야의 종사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 도와가고 설명을 하며 함께 수업을 해 나가기도 한다. 그리고 가깝싸는 함께 밖으로 나와 민속촌이나 문화재, 자연경관, 관광지를 가보면서 한국 옛 문화, 풍습 등을 직접보고 느끼며 경험을 하는 활동을 하기도 한다. 수업시간에 이야기나 책을 통해 하는 학습과는 다르게 더욱 집

중을 시킨다던지 이해하는 부분 등에서는 더 좋은 효과가 되기도 한다. 나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소외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한국문화 등을 간접, 직접적으로 외국인들에게 무료로 교육, 체험을 함께하는 활동을 하였다.

활동평가 및 사후 연계

★ 활동에 대한 효과와 대상자의 만족 정도

외국인들에게 무료로 도움을 주는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어 부담감 없이 활동을 할 수 있어 좋을 뿐 아니라 활동기관에 속한 외국인들이 늘 고마움을 전하고 함께 즐기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외국인 뿐 아니라 나 스스로도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우기 때문에 활동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을 느낀다. 전체적으로도 구조적 뿐 아니라 많은 상단 부분에서 만족한다.

★ 활동소감 및 발전방향

활동을 통해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어 교육, 문화 전달부분에 있어서 유익한 수업이라고 칭해주고 감사의 인사를 전해줄 때에 가장 큰 보람을 느끼며 활동을 하는 것 같다. 또 그들 뿐 아니라 나도 다른 나라의 문화나 인사말 정도의 언어를 배우기도하고 서로 이해와 이야기를 통해서 교감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게 되는 활동인 것 같다. 앞으로도 외국인 뿐 아니라 나 스스로도 발전하게 되는 활동이 유지되도록 다짐하게 되었다.

★ 지속적 운영방법

행사 이전부터 계속하여 참여해 오던 정규 봉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에 책임감 있게 참여할 계획이다.

활동사진



활동일시 2014년 5월 3일

활동장소 포항시 북구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사진설명 한국인 자원봉사자 분 중에 가야금 연주자 분이 계셔서 가야금 연주 후 가야금, 한국 풍속악기 등에 대한 교육 이후 직접 가까이서 만져보는 등의 체험을 하는 모습입니다.

초등 저학년 독후활동지도



참가형태	청소년(개인)
단체명 (동아리명)	이은솔
참가청소년	개인

활동기간	활동명	활동횟수	활동시간	참여인원
2014년 5월 1일 ~ 2014년 5월 29일	초등 저학년 독후활동지도	5	매주 1시간씩	1

활동장소	충훈부지역아동센터
활동내용	안양시 석수동 석수 교회 내에 있는 충훈부 지역아동센터 초등 저학년 친구들을 대상으로 우리 동화책과 영어 동화책을 읽고, 읽은 책을 바탕으로 하여 미술활동, 글쓰기, 책 만들기, 연극 등 다양한 독후 활동을 한다.

위의 봉사활동은 이번 행사참여를 위해서 신규로 만든 프로그램입니까?	기존 프로그램
기존에 진행 중인 프로그램입니까?	

프로그램 기본사항

일시 : 2014년 5월 1일 ~ 5월 29일
 장소 : 충훈부 지역아동센터
 인원 : 초등 저학년 (1, 2, 3학년) 8명 외의 부정기 참여자
 수혜 대상 : 충훈부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활동의 계획과 준비 내용

★ 활동의 목적과 동기, 필요성

중학교 때부터 이 곳 친구들에게 책임여주기 봉사를 하던 중 독서의 질 향상이 필요함을 느끼고 지역아동센터의 동생들에게 독서의 재미를 알려 주고, 책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던 중 본격적인 독후 활동 수업을 하게 되었다. 2년간의 책임여주시는 독서의 양은 늘릴 수 있었지만, 동생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지 않고 단시간에 잊었다. 그래서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한 정보를 인상 깊게 남길 수 있는 방법은 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독후활동수업을 하게 하는 것 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 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준비한 사항

1. 주제, 계절, 혹은 상황에 적절한 책 선정
2. 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 및 관련 노래 선정.
3. 다양한 독후 활동 자료 준비

★ 활동에 대한 계획 내용

1. 책의 내용 주제, 시기에 따라 적절한 책을 선정한다.
2. 흥미를 끌 수 있는 관련 노래, 동작 등을 수업 시간에 맞게 지도할 수 있는 수업 지도안을 작성한다.
3. 관련 독후활동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한다. (재료는 매주 다름 - 봉사자가 준비)
4. 작업 시 가위, 칼 등을 사용할 때는 한 명, 한 명씩 순서대로 하도록 철저히 지도한다.

활동내용

★ 행사 기간 중 활동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

이번 행사 기간 중에는 5회 독후 활동 수업이 진행 되었다. 1차 수업에서는 손바닥 동물원을 읽고, 내 손바닥의 모양, 크기, 방향에 따라 여러 가지 동물을 물감으로 찍은 후 표현해보면서 내 손 안에 들어 있는 동물을 찾아보았다. 2차 수업은 우체부 아저씨와 비밀 편지를 읽고 편지봉투 쓰기 및 편지 쓰기를 해보았다. 3차 수업은 고구려 나들이를 읽고 고대 고구려의 벽화와 벽화 안에서 발견된 조각상 만들어 보기를 하면서 고구려 문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4차 수업은 나무는 좋다 를 읽고 나무가 있어서 좋은 점에 대해 말해보고, 나무랑 하고 싶은 일을 생각 해 보았다. 책 나무를 만들어 읽은 책 정보를 만들어 나무 열매 달기를 하였다. 책 나무는 앞으로 읽을 책 정보를 계속 추가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독서력에 자신감을 갖는 지표로 삼는다. 5차 수업은 강아지 똥을 읽고 연극대본을 만들어 줄 인형극을 하면서 하찮은 강아지 똥이 만들어 낸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다

활동평가 및 사후 연계

★ 활동에 대한 효과와 대상자(기관, 활동장소 등)의 만족정도

1. 만화책만 일던 아이들이 그림을 읽어 보려고 하고, 책을 읽을 때도 책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익숙해졌다.
2. 책읽기에 흥미를 나타낸다.
3. 다양한 독후활동에 초창기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전체적인 평가

책을 읽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책의 내용을 파악하는 목적이지만 책 한 권속에 들어 있는 책 속 그림으로 이야기 유추 해보기, 새로운 이야기 만들어 보기, 다양한 독후 활동을 통해 만들기, 그리기, 글쓰기, 책 만들기 등 다양한 독후 활동이 아이들이 책에 대한 흥미도를 높였다.

★ 활동소감 및 발전방향

1. 매주 1권 씩 읽고 관련 독후 활동을 하는 것이라서 읽을 수 있는 책의 양은 적지만 한 권씩 꼼꼼하게 되짚어 가면서 더 재미있는 독서가 되었다.
2. 과학 관련 지식책의 비중도 늘려가면서 지루하지 않게 책을 통해 과학적 사실을 알아갈 수 있도록 지식책 관련 독후 활동 비율도 하려고 한다.
3. 독서 수업을 하면서 단순하더라도 스스로 수업지도안 만들기까지 시도해 보고자 한다.
4. 장기간의 독후 활동 수업을 한 친구들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 다른 동생들에게 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봉사하면서 교육하려고 합니다.

★ 지속적 운영방법

1. 장기간의 독후 활동 수업을 한 친구들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 다른 동생들에게 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봉사하려고 한다.
2. 다른 봉사자를 교육시켜 타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독후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한다.
3. 수업 지도안을 만들어 배포한다. (저의 경우 8월 이후 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서 1년 내내 활동은 못하지만 매년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에 입국해서 계속 이 곳에서 동생들을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특히 여름 방학인 6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봉사하려고 합니다.)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담쟁이풀 프로젝트”

참가형태	청소년(개인)
단체명 (동아리명)	장시윤
참가청소년	개인

활동기간	활동명	활동횟수	활동시간	참여인원
2014년 5월 1일 (수) ~ 2014년 5월 31일 (토)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담쟁이풀 프로젝트”	20	48	1
활동장소	분수광장(옥천군 생활체육관, 멘티의 가정(옥천 와정리), 옥천도서관, 돌람산			
활동내용	- 소외아동 학습지원 및 체육학습 - 소외계층을 위한 연탄 배달 - 소외계층을 위한 청소지원(경로당) - 소외계층 멘토링 활동			
위의 봉사활동은 이번 행사참여를 위해서 신규로 만든 프로그램입니까?		신규 프로그램		
기존에 진행 중인 프로그램입니까?				

프로그램 기본사항

기간 : 2014. 5. 3(토) ~ 2014. 5. 31(토)

장소 : 분수광장(옥천군 생활체육관), 멘티의 가정(옥천 와정리, 옥천), 옥천도서관, 돌람산, 대전동구 일원

인원 : 20명

활동시간 : 20회 약 48 시간

활동의 계획과 준비 내용

★ 활동의 목적과 동기, 필요성

지하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발전은 모두 인적자원이 이끌어왔다. 그러한 인적자원이 바탕이 되는 것은 바로 청소년이다. 우리나라는 청소년을 교육하여서 청소년의 무궁무진한 끼와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줘야한다. 하지만 아직 우리 주변에는 소외받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많다. 소외계층 및 장애청소년들은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생각으로 다른 친구들이 평범하게 누리는 일들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 마다 마음의 문을 점점 닫고 사회에서 단절되는 현상이 발생되기도 한다. 결국 이런 문제점들이 점점 대두되어 청소년 범죄라는 이름하에 신문기사에 실리며 사회와는 점점 격리되고 소외받게 되며 자신감을 잃어 세상과의 소통을 거부하려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문제점을 위해 우리들은 모두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꼭 필요할 것이다.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나와 같은 청소년들과 함께 희망을 갖고 한 걸음 한걸음 성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세상이 나의 이름으로, 또 우리의 이름으로 뒤덮을 날을 위해 담쟁이풀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다.

우리나라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면 청소년은 적정 수준의 학습을 지원받아야 하며 자신이 생각하는 미래와 희망에 대해 꿈꾸고 생각할 수 있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어렵고 몸이 불편한 청소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함께 나누고 체험하며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고 나와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세계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됐다.

활동내용

★ 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준비한 사항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윤정이, 윤성이, 소영이와는 작년에도 함께 봉사활동하고 자주 만났었지만 각자시간이 허락되지 않아 종종 연락만 주고받았었다.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윤정이 남매 집에 찾아가 나와 함께 하고 싶은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었으며 함께 프로그램 규칙과 약속을 정했으며 내가 방문하는 날을 인지시켜주었다. 핸드폰이 없는 소영이와는 연락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나와 사는 지역도 시외버스로 30분 이상 소요되었지만 작년에 누나와 함께 멘토링을 했던 소영이가 즐거워하던 모습과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모습에 나도 소영이와 함께 활동을 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소영이와는 서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각자 적어오기로 했으며 처음 활동을 시작할 때 각자 적어 온 것을 공유하고 함께 하고 싶은 활동들을 정리했다. 또한 틈틈이 아버지가 활동하시는 '사랑의 열매-나눔 봉사단'에 참여하여 대전 동구 일대의 어려운 가정에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도 진행하였다.

★ 활동에 대한 계획 내용

처음 활동을 시작할 때 윤정이 윤성이는 놀이 활동을 더 좋아했다. 학습활동 시간을 지루해 하는 모습도 보였고 힘들어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기대하는 활동을 만들지 많이 고민했다. 첫 번째로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이 아니라 아이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하기로 결정했다. 숙제를 점검해주고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일방적인 학습이

아니라 윤정이 좋아하는 과목을 위주로 공부하고 윤성이 좋아하는 책부터 함께 읽었다. 두 번째로는 규칙을 정해서 아이들 스스로 지키는 것이었다. 책을 읽고 대화하는 시간을 40분 동안 했다면 20분은 윤정이 윤성이와 함께 맛있는 간식을 먹고 나머지 시간은 함께 신나게 뛰어노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런 시간을 나누어서 활용하는 법을 몰라 집중이 힘들었지만 적절한 시간 배분을 통해 윤정이 윤성이와 즐겁고 신나는 활동을 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또한 함께 책 읽기를 열심히 한 윤성이는 학교에서 '발표왕'이라는 별명이 생겼으며 좋아하는 모습에 뿌듯했다.

소영 이와는 나이또래가 같아서 금방 친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사는 곳이 멀어 활동이 힘들었지만 그만큼 재미있었다. 함께 공부를 하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면서 내가 소영이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도 있었지만 소영이가 나에게 해주는 여러 가지 말들도 많이 기억에 남는다. 소영이를 위해 활동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활동을 진행하면서 소영이의 순수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으며 따뜻한 우정을 배우게 됐다. 또한 내가 하는 '세계청소년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설명해 주었더니 체육교사가 꿈인 소영이가 윤정이 윤성이와 함께 하는 활동을 제안해 야외활동을 했던 것이 매우 기억에 남는다.

활동평가 및 사후 연계

★ 활동에 대한 효과와 대상자(기관, 활동장소 등)의 만족정도

주말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기 힘들다고 싫어하던 윤성이였지만 일단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밝은 모습으로 참여해주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동안 윤성이는 부족한 과목, 받아쓰기나 동화책읽기 수학 문제풀기 등 윤성이가 좋아하지 않는 공부에 흥미를 주고자 노력했다. 윤정이는 잘못했던 인터넷을 이용해서 점차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어보는 등 컴퓨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유익한 것을 알려주었다. 게다가 요즘 들어서 큰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저작권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 할 수 있게 도와주었으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숙제를 도와준대거나 아직은 읽기 힘들어하는 영어교과서를 읽고 해석하는 등 많은 활동을 했다.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는 재미없을 것이라고 꺼려하던 윤성이, 윤정이 남매지만 일단 활동이 시작 되고나서는 연신 재미있으며 즐겁게 활동에 참여해주어서 정말 보람 있었다.

★ 전체적인 평가

평소에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윤성이와 윤정이는 물론 나까지도 아이처럼 들떠있었다. 봉사라는 이름아래 시작된 일이지만 어쩌면 내가 더 즐겁고 좋아했는지 모르겠다. 매주 주말마다 멀지만 윤성이 집에 찾아가는 것이 즐거웠고 기다려졌다. 특히 갈 때에는 고되지만 가서 윤성이가 어려워하는 받아쓰기 덧셈, 뺄셈 등 여러 가지 계산을 척척 해낼 때면 윤성이가 대단하다고 날 치켜세워 주는 것이 정말 기분이 좋아 더욱 더 알려 주고 싶은 의지에 날 불타게 했다. 이 봉사를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더더욱 많은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내가 받은 충분한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다. 소영이와는 소영이가 유치원 때부터 유치원선생님이신 어머니의 소개로 만나서 활동 되었다. 소영이는 활발하고 성격이 좋아서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은 것 같았다. 그러나 초등학교에 비해 아직 어려운 학교공부가 벅차서 내가 배운 것들을 최대한 많이 알려주고 내가 어려워했던 것 특히 많이 어려운 수학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공부만 하던 평일에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좋은 장소인 산에 가서 등산을 하며 쌓인 것들을 풀어내고 산의 맑은 공기를 마시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병행했다.

★ 활동소감 및 발전방향

전체적으로 주거지역에 거리차이가 있어 힘들었지만 갈 때마다 느끼는 뿌듯함이 어김없이 나를 이끌었다.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된다면 계속해서 만남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며 내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도움을 주고 싶다. 나는 불교신자는 아니지만 책에서 읽은 불교 교리에 나오는 남에게 받은 만큼 남에게 베풀라는 말이 가슴깊이 와 닿는다. 계속해서 아이들과 만남을 유지하여 서로 성장한 후에 사회인이 되어서도 서로 응원하며 기댈 수 있는 멋진 인연으로 만들고 싶다.

★ 지속적 운영방법

내가 내년부터 고등학생이 되어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부족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만남을 유지하고 싶다. 소영이와는 SNS로 소통하고 연락을 주고받으며 꾸준한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대전과 옥천에서 만나고 공부와 봉사활동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다. 윤정이 윤성이와는 최대한 격주로 가정을 방문하여 함께 하던 학습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이다. 숙제부터 시작해 수행평가 등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친절하게 알려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찾는 백과사전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 만나는 횟수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만남의 시간을 늘리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그 공백을 메우고 더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서로에게 보여주고 싶다.



활동일시 2014년 5월 3일

활동장소 와정리

사진설명 전자제품사용법 설명

가족부문



신정종합사회복지관 방과 후 교실 일본어지도

참가형태	가족(청소년 포함)
단체명 (동아리명)	김재희 가족
참가청소년	김재희, 김태홍

활동기간	활동명	활동횟수	활동시간	참여인원
2014년 4월 28일 ~ 2014년 5월 31일	신정종합사회복지관 방과 후 교실 일본어지도	5	10	100
활동장소	신정종합사회 복지관 방과 후 교실			

일본에서 일본초등학교와 국제학교를 다닌 경험을 바탕으로 시간을 채우기 위한 봉사가 아닌 나의 재능을 나누고 아이들이 일본이란 나라를 이해하고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는 취지에서 복지관 방과 후 일본어 교실을 2010년에 개설하여 지금까지 매주 방문하여 2시간씩 일본문자와 간단한 회화 및 문법을 가르치고 있다. 고3이라 바쁘지만 새 친구들도 들어온 만큼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이번 달에는 문자 익히기 복습과 평소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던 일본전통게임 배워보기, 전통의상 입어보기, 일본음식 만들어보기 체험을 해보고 당고 삼형제와 SMAP의 노래와 율동도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 보았다.

위의 봉사활동은 이번 행사참여를 위해서 신규로 만든 프로그램입니까?

기존 프로그램

기존에 진행 중인 프로그램입니까?

프로그램 기본사항

일시 : 2014. 5. 1 ~ 5. 31

장소 : 서울시 양천구 소재 신정종합사회복지관 방과 후 교실

인원 : 가족 3명

수혜대상 : 초등학교 1학년 ~ 3학년 20명

활동의 계획과 준비 내용

★ 활동의 목적과 동기, 필요성

2009년 12월 지인의 부탁으로 일본점자도서관 이사장님의 통역봉사를 하게 된 어머니를 따라 한국점자도서관40주년 기념식에 우연히 참석하게 된 나는 지하철 안에서 시각장애인을 만나 길안내를 하며 정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께 이왕이면 일본초등학교와 국제학교를 다닌 경험을 바탕으로 시간을 채우기 위한 단순한 봉사보다는 나의 재능을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봉사를 하고 싶으니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동생과 함께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봉사에 대해 의논을 했다. 그 결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학원을 전전하는 아파트 단지 아이들에 비해 형편이 어려워 학원 한 곳 다니기 힘든 복지관 같은 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마침 복지관 방과 후 교실에서 영어를 지도해 주시던 대학생 봉사자가 취업을 하게 되어 외국어 학습에 공백이 생기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2010년부터 초등 저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일본어를 지도하게 되었다.

★ 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준비한 사항

먼저 신정종합사회복지관 방과 후 교실시설장(정유경)님과 수차례 전화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와 아이들의 상태를 전해들은 후 일본어 자격증과 수업내용을 준비하여 가서 면담을 하고 수업에 투입한다.

★ 활동에 대한 계획 내용

자원봉사자와 수업용 교재 및 교구(문자수업), 일본음악 다운 및 율동연습(노래수업), 일본전통게임과 의상(일본문화), 타코야끼가루, 오코노미야끼가루, 파래김, 가쓰오부시, 소스, 마요네즈, 문어, 새우, 베이컨, 우유, 물, 양배추, 잔파, 생강절임, 계란, 식용유 등(음식재료) 및 프라이팬, 타코야끼판, 접시, 뒤집개, 국자 등(일본음식)

활동내용

- 1) 첫째 주는 문자를 복습하고 당고 삼형제와 SMAP의 노래와 율동을 연습해가서 아이들에게 가르침.
- 2) 둘째 주는 어린이날을 맞아 일본전통게임과 의상입어보기를 한 후 기념촬영.
- 3) 셋째 주는 스승의 날을 맞아 아이들이 준비한 선물과 케이크를 받아 함께 촛불도 끄고 즐겁게 수업 진행.
- 4) 넷째 주는 아이들이 가장 기대했던 음식 만드는 날로 타코야끼와 오코노미야끼 만드는 법을 설명 후 직접 만들어 보고 시식도 해 봤는데, 기름을 두르고 불을 사용해야 해서 특별히 안전에 신경을 써야 했다.
- 5) 다섯째 주 이제까지 배운 문자들을 손을 들어 직접 적어본 후 자신 있는 친구들이 나와 적은 수만큼 간식 따가기 게임을 했다.

활동평가 및 사후 연계

★ 활동에 대한 효과와 대상자(기관, 활동장소 등)의 만족정도

- 1) 일본에서 돌아와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로 이후에는 공부 따라가기 힘들어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춘기를 잘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 감사하다. 학교수업을 마치고 복지관에 갈 땐 지쳐서 헉헉거리며 갔다가 수업이 끝난 후는 웃음 가득한 얼굴로 역시 오길 잘 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걸 보면 이 아이들이 나의 에너지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 2) 제2외국어 배울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예린과 어머니 그리고 일본어로 결혼기념일 축하인사를 받고 행복하셨다는 수민아버님, 5년여의 시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정적으로 수업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복지관 관장님과 방과 후 교실 시설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쑥스럽기도 하지만 뿌듯함을 많이 느끼게 된다.

★ 전체적인 평가

한글도 잘 못 써서 힘들어 하던 아이들이 일본어로 노래도 척척 부르고 우리를 반기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조그마한 정성이 주눅 들어있던 아이들을 이렇게 밝게 변화하게 하는구나 싶어 정말 보람되고 행복하다.

★ 활동소감 및 발전방향

- 1) 제2외국어 배울 기회가 없는 아이들에게 나의 재능을 조금 나누겠다고 시작하게 되었지만 그들에게 정작 필요했던 것은 그들의 편이 되어 주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줄 누나나 형이 아니었을까 싶다.
- 2) 내년에 대학생이 되면 영어와 중국어도 아이들에게 가르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함께 하고자 하는 친구들과 좀 더 조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대학봉사단을 만들어 필요한 곳에 나눌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지속적 운영방법

동생과 함께 계속 이 행사에 참여 할 계획이며 중학교에서 재능기부로 일본어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 어머니와 동생을 따라 졸업 후에도 학교와 연계한 봉사 및 연말 행사 등에도 적극 참여 할 계획이다.



활동일시 2014년 5월 2일 활동장소 신정종합사회복지관 방과 후 일본어교실

사진설명 왼쪽사진 : 항상 도움을 받아야했던 지호가 요즘 스스로 학습을 잘해 손가락을 세워 칭찬을 해주고 있다.
오른쪽 사진 : 어린이날을 앞두고 수업이 끝난 뒤 친구들이 좋아하는 일본과자 선물을 받고 들떠있다.

가족부문



생태계 교란 종으로 인한 환경파괴의 심각성 알리기 및 유실토 옮기기

참가형태	가족(청소년 포함)
단체명 (동아리명)	나눔을 사랑하는 우리들
참가청소년	오예지, 이수빈, 전상호, 최경석, 전경호, 오윤지

활동기간	활동명	활동횟수	활동시간	참여인원
2014년 5월 4일 ~ 2014년 5월 25일	생태계 교란 종으로 인한 환경파괴의 심각성 알리기 및 유실토 옮기기	3	9	7

활동장소	덕유산국립공원, 북한산국립공원
------	------------------

활동내용	기후변화, 환경오염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생물다양성이 소멸되고 있다. 우리 나눔우리는 생태계의 커다란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생태계교란종(동물/식물)으로 인한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에 앞서 덕유산국립공원의 생태환경에 대하여 공부도 함께 병행하기로 했다. 2014.5.4.과 2014.5.5. 이틀에 걸쳐 덕유산국립공원 향적봉 대피소에서 머무르며 아고산대의 식물변화와 구천동계곡의 외래종 무지개송어에 대하여 국립공원 탐방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국립공원에서 캠페인 활동을 하였다. 이후 북한산국립공원에서도 생태계교란종으로 인한 심각성 알리기 캠페인 활동과 유실토 옮기기 행사를 진행 하였다. 나눔우리는 2010년부터 북한산국립공원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각종 봉사활동(생태계 교란종 관련 홍보 활동, 수질오염 홍보활동, 유실토 옮기기 등)을 진행하고 있다.
------	---

위의 봉사활동은 이번 행사참여를 위해서 신규로 만든 프로그램입니까?	기존 프로그램
기존에 진행 중인 프로그램입니까?	

프로그램 기본사항

일시 : 2014. 5. 5 - 2014. 5. 25.

장소 : 덕유산국립공원 향적봉 일원 및 무주구천동 계곡, 북한산국립공원 정릉탐방소 입구

인원 : 4가족 7명

수혜대상 : 약 500여명

활동의 계획과 준비 내용

★ 활동의 목적과 동기, 필요성

전 세계는 지금 산업화이후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과 생태계교란, 생물다양성감소 등 여러 가지 지구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매년 500종의 생물종이 사라지고 있으며 기후변화, 환경오염으로 인해 향후 더욱 빠른 속도로 생물다양성 소멸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우리 나눔우리는 활동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생태계의 커다란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생태계교란종(동물/식물)에 대한 홍보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의식전환에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갖기로 결정하였다. 내가 직접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함도 의미 있는 일이겠지만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의식전환을 통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생태계를 파괴하는 매우 다양한 요인 중 한 가지가 등산객들의 신발에 의해 유실되는 흙, 빗물에 쓸려 내려가는 흙이 있다. 비록 작은 양의 흙이 유실되는 것이지만 이 유실된 흙으로 나무는 말라 죽어가고 있다. 나눔우리는 그동안의 많은 활동을 통해서 유실토의 중요함을 알고 있다. 따라서 이번 활동에서도 생태복원활동중의 하나로 유실토 옮기는 활동도 함께 하기로 하였다. 생태계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환경(흙)을 지켜주는 일 또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준비한 사항

나눔 우리는 2010년부터 초, 중, 고 연령대의 친형제, 이종사촌, 고종사촌이 함께 모여 지구 살리기 환경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는 가족봉사단체이다. 매 해 회원들이 함께 모여 주제를 정하고, 자료를 찾아 토론회와 회의를 거쳐 만들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홍보 판을 만들어 그 해 캠페인 활동을 진행한다. 토론회와 회의를 진행하던 중 전문 교육기관의 교육을 필요로 한다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전문교육을 이수받기도 한다. 이번 2014년 활동에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생태계교란종에 대한 홍보 캠페인 활동이었다. 필요한 생태계교란종 동, 식물에 대한 특성, 유입경로, 유의사항등을 자료 조사하여 토의를 진행한 후 홍보물 및 생태계교란종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받기위한 교육기관 섭외, 현장 체험학습등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1. 자료조사 : • 생태계교란종이란? - 오예지 • 생태계교란종(동물) - 이수빈 • 생태계교란종(식물) - 전상호
• 피해사례 - 최경석, 전경호 • Q&A판 - 오윤지
2. 봉사 활동을 진행 할 장소 및 숙소 예약하기 (이선경)
 - ① 캠페인 활동을 위한 장소 섭외 - 북한산, 덕유산 국립공원 담당자와 통화
 - ② 유실토 옮기기 활동을 위한 장소 확인 : 북한산 국립공원 담당자와 통화
 - ③ 덕유산국립공원의 생태교육시 머물 숙소 예약 : 덕유산 국립공원 향적봉대피소
 - ④ 덕유산국립공원의 생태교육시 교통 및 식사등 준비물 확인
3. 덕유산국립공원 탐방프로그램 진행
 - ① 향적봉 아고산대지형의 특징과 생태계교란식물에 대한 탐방
 - ② 무주구천동 계곡의 금강모치와 무지개송어 이야기

★ 활동에 대한 계획 내용(사람, 용구, 장소, 위험요소, 준비물 등)

1. 캠페인 활동 장소
: 덕유산 향적봉 정상인근, 무주구천동 계곡 입구, 북한산 정릉탐방소 입구 및 넓적바위 부근
덕유산 향적봉 대피소("덕유산 1박2일 생태캠프"에서 머물 숙소)
2. 캠페인 활동 준비물
: 홍보물, Q&A판
3. "덕유산 1박2일 생태캠프" 준비물
: 여벌옷, 보온용 의류, 운동화(등산화), 챙넓은모자, 양말(2켤레이상), 수건, 칫솔, 헤드랜턴, 물2L 외 음식

활동내용

5월 5일부터 6일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연휴를 이용하여 나눔우리는 "덕유산 1박2일 생태캠프"를 다녀왔다. 이 캠프에서 우리는 첫째 국립공원 탐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고산대지형의 지상 낙원과 같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덕유산의 생태체험을 하고, 둘째 덕유산의 외래동식물로 인한 피해사례에 대해 알아보고, 셋째 행락객을 대상으로 외래동식물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생물 다양성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하였다.

5월 5일 덕유산 향적봉 부근에서 행락객을 대상으로 생태계교란종으로 인한 우리나라 생태계 파괴와 생물 다양성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하였고, 홍보활동 이후 숙소인 향적봉 대피소로 이동하며 국립공원 탐방프로그램 담당자로 부터 아고산대의 중요성과 덕유산의 외래식물로 인한 피해 및 외래식물등의 대처방법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는 등의 설명 받으며, 눈으로 확인하는 활동을 하였다. 5월 6일 나눔우리는 무주구천동 계곡으로 장소를 이동하여 국립공원 탐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립공원 담당자로 부터 금강수계에서는 무주구천동계곡에만 유일하게 살고 있으며 산소가 풍부하고 수온이 낮은 물속에서 서식해 2010년에 기후변화 생물 지표종으로 지정된 금강모치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 구천동계곡에서 금강모치의 서식을 위협하는 가장 큰 천적은 무지개 송어, 산천어 등의 외래어종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탐방프로그램 이후 무주구천동 계곡 입구에서 행락객을 대상으로 생태계교란종으로 인한 우리나라 생태계 파괴와 생물 다양성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하였다. 나눔우리는 이번 "덕유산 1박2일 생태캠프"에서 한반도의 봄 · 여름 · 가을 · 겨울을 하루에 다 느끼기도 하였다. 밤사이 덕유산에 눈이 날리더니, 아침에는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내려가고 매서운 칼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주변에는 하얀 눈꽃들이 피어 멋진 장관을 이루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면서 기온도 함께 오르기 시작하더니 탐사활동과 봉사활동을 진행한 낮에는 햇빛이 몹시 강해 선크림을 바르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다. 고도 차이에 따라 식물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다. 산 정상(1614m)에는 아직 잎사귀도 피어나지 않은 나무들이 많았는데, 무주구천동 계곡(645m)에 와서 보니 온통 잎사귀가 푸르렀다. 교과서 속에서만 보던 고도차에 따른 기온의 차를 몸소 체험하는 자리였으며, 자연의 변화에 신기함을 느끼는 보람찬 캠프였다.

북한산 등산객을 대상으로 생태계교란종으로 인한 우리나라 생태계 파괴와 생물 다양성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활동과 생태복원활동 중의 하나로 유실토 옮기기 활동을 함께 진행하였다.

북한산의 특징으로는 서울에 위치하였다는 것이다. 위치 때문인지 가족단위 등산객이 많이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족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으며, 많은 분들이 가시박으로 인한 피해에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이었다. 북한산은 서울에 위치한 지리적 특징으로 우리나라 국립공원에서 가장 많은 탐방객이 다녀가는 산이다. 탐방객수가 연간 715만 명에 이른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그 경관 속에서 자연과 함께 건강을 챙기기 위한 등산객은 정말 즐거운 산행일 것이다. 그러나 탐방객의 발걸음으로 인한 등산로의 환경파괴는 그 환경에서 움직일 수 없는 나무들에게는 정말 고문일 것이다. 그 나무를 바라보는 우리들은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환경(흙)을 조성해 주는 일도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유실토 옮기기 활동을 진행하였다. 유실토를 옮기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계신다. 우리가 지나다니는 곳 한쪽에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데 관심 없이 지나쳤기 때문이다. 국립공원 담당자에게 탐방객에게 "유실토 옮기기 동참을 호소하는 활동 전개"에 대해 문의를 드렸으나, 일부 탐방객들의 의의제기로 탐방객 스스로 유실토 옮기기 활동은 가능하지만, 동참유도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참 마음이 아팠다.

활동평가 및 사후 연계

★ 활동에 대한 효과와 대상자(기관, 활동장소 등)의 만족정도

1. 봉사확인서를 발급하는 국립공원 관리공단 측에서는 나눔우리의 활동을 정말 좋아한다. '추천서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지 와~'라고 이야기까지 해 주실 정도다. 국립공원에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일반적인 봉사활동팀들은 국립공원 측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을 참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신다. 하지만, 우리 나눔우리는 자발적으로 알아서 기획, 조사, 탐구, 홍보물 제작, 홍보 활동, 사후처리까지 하고 있기 때문 너무 예쁘고, 기특하다고 말씀하신다.
2. 탐방객들은 우리들에게 많은 칭찬과 산에서 드시려 준비한 간식을 건네주시는 일에 아까워하지 않으신다. 우리들이 만든 홍보판과 Q&A판을 보시며 놀랍다고, 신기하다고, 정말 심각하다고 걱정을 함께 해주시며, 정말 뜻 깊은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배낭 속에 있는 음식을 두 손에 주시며 칭찬해 주시는 탐방객들을 보면, 우리는 더욱 보람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자신감과 행복을 느끼는 자리가 된다. 그 느낌으로 그 즐거움, 보람으로 나눔우리가 5년째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다.

★ 전체적인 평가

1. 탐방객들이 쉽게 다가설 수 있게 만든 객관식 Q&A 5종 세트는 탐방객에게 나눔우리의 홍보활동에 대해 관심을 유도시키는 효과가 탁월하다. 성체 황소개구리가 한 번에 뭘 수 있는 거리는? /뉴트리아의 무게는 몇 kg 일까요? / 황소개구리 올챙이의 사진이다. 이 녀석의 크기는 몇 cm 일까요? 등 사진을 많이 넣어 이해하기 쉽고, 객관식의 보기를 드러찍는 문제로서 누구나 부담스럽지 않고, 다가서기 편하도록 만든 Q&A판이라 호응도가 높은 것 같다.
2. 우리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자료를 찾고, 토의를 통해 홍보문안을 작성하고, 함께 모여 홍보 판을 제작하고, 자연 속에서 홍보활동을 하는 등 주체적이나 활동을 하다 보니 우리 스스로 보람 있고, 즐거운 활동을 하고 있다.
3. 생태계교란종으로 인한 우리나라 생태계 파괴와 생물 다양성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통해 한 분, 한 분, 놀랍고 새로운 사실을 알려줘 감사하다는 말씀들을 들으며 우리나라 생태계에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뿌듯하다.

가족부문



마리아지역아동센터 벽화작업, 한문화재한지킴이, 단오활동

참가형태	가족(청소년 포함)
단체명 (동아리명)	항가봉 : 향기가 있는 가족봉사단
참가청소년	조은결, 김연일, 조현우, 김준소, 최준기, 김경민, 김성혁, 김수연, 김동민, 김상민, 남희성, 남가령, 심종윤, 심동주, 심혜강, 채유리, 채송이, 권아현, 권이현, 최설, 최을

활동기간	활동명	활동횟수	활동시간	참여인원
2014년 5월 10일 ~ 2014년 5월 31일	마리아지역아동센터 벽화작업 한문화재한지킴이 - 강릉임영관아 단오활동 - 어르신무료배포창포비누만들기	5	13	20

활동장소	마리아지역아동센터 / 임영관아 / 강릉시청소년수련관
활동내용	- 마리아지역아동센터 : 센터 벽화 그리기 활동 - 한문화재한지킴이 - 강릉임영관아 : 의운루 바닥 기름칠하기 - 단오활동준비 - 창포비누만들기 : 단오제동안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 배포할 창포비누 만들기 > 500 개

위의 봉사활동은 이번 행사참여를 위해서 신규로 만든 프로그램입니까?	기존 프로그램
기존에 진행 중인 프로그램입니까?	

프로그램 기본사항

- 마리아 지역아동센터 벽화작업**
- 일시 : 5월 10일 / 5월17일 / 5월18일
 - 장소 : 마리아지역아동센터
 - 인원 : 34 명
 - 수혜대상 : 마리아지역아동센터 아동
 - 내용 : 벽화초안 그리기 / 벽화비탕 칠하기 / 벽화그리기

★ 활동소감 및 발전방향

현재 지구는 산업화이후 온난화 현상 및 환경오염, 수질오염 등 갖가지 환경파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등으로 매년 500종의 생물종이 사라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빠른 속도로 생물다양성이 소멸될 것이라고 한다. 각 기관에서 생태계교란종 관리를 하고는 있으나 국민들의 생태계교란종(동물/식물)에 대한 이해부족과 정부의 관리체계 허술로 도심으로까지 그 피해가 이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연의 건강이 지구의 건강, 곧 인간의 건강이라는 생각을 하며 “나의 작은 관심이 모여서 지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의 사소한 홍보활동 하나하나가 모여 지구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하면 참으로 뿌듯한 생각이 든다. 우리들 스스로 환경 지킴이가 되어 활발히 활동한다면 지구의 미래는 희망이 보일 것이다. 환경은 변하는 것이다. 원래의 모습 그대로를 고집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은 조화(공존)만이 살길이라는 생각을 한다. 너무 급격한 변화가 아닌 각 지역에 맞는 조화로운 공존, 변화만이 지구의 살길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의식전환과 조화로운 공존, 변화로 아름다운 지구를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나눔우리의 활동은 계속 될 것이다.

★ 지속적 운영방법 등(앞으로의 계획)

1.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생태계교란종으로 인한 우리나라 생태계 파괴와 생물 다양성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활동과 생태복원 활동을 위한 유실토 나르기는 지속적으로 진행 할 예정이다.
2. UCC제작 및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홍보활동
 - 블로그 제작하여 나눔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모습도 소개하면서, 생태계교란종으로 인한 우리나라 생태계 파괴와 생물 다양성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온라인 활동 전개 및 유실토 옮기기 활동을 홍보한다.
 - 유튜브상 UCC 등재
3. 아파트 및 학교 내 생태계교란종을 알리는 홍보물 부착



활동일시	2014년 5월 25일	활동장소	북한산국립공원 정릉탐방로 진입로
사진설명	북한산 등산객을 대상으로 생태계교란종으로 인한 우리나라 생태계 파괴와 생물 다양성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하였다.서울에 위치한 북한산은 가족단위 등산객이 많았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족들의 관심이 더욱 높았으며, 많은 분들이 가시막으로 인한 피해에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이었다.		

한문화재한지킴이 : 임영관아 의운루 바닥 기름칠

- 일시 : 5월 24일
- 장소 : 임영관 의운루
- 인원 : 11명
- 수혜대상 : 지역사회
- 내용 : 의운루 바닥 기름칠하기 (정기 활동)

단오무료배포창포비누 만들기

- 일시 : 5월 31일
- 장소 : 강릉시청소년수련관 3층 마루실
- 인원 : 16명
- 수혜대상 : 65세 노인 500명
- 내용 : 강릉단오제 기간 중 65세 노인에게 창포비누를 청소년들이 무료로 선물함

활동의 계획과 준비 내용

★ 활동의 목적과 동기, 필요성

가족봉사단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지역사회 안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활동의 주체를 만나고, 소외된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활동이 작은 일부터 함께 실천할 수 있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 활동을 전개하며,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가족이 함께 나누고 함께 나눔 아이디어를 실천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 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준비한 사항

- 지역사회에서 벽화를 통해 변화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이용자들과 함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가족들이 협의하여 대상기관을 선정함.
- 한문화재한지킴이 활동은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활동 문화재에 대한 교육 및 활동을 통해 변화하는 문화재를 홍보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단오활동은 6월 실시되는 단오제 기간 동안 단오에 가장 많이 오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단오의 기쁨이 되면서도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창포비누를 배포하기로 하고, 단오활동 준비를 위한 창포비누 만들기를 실시함.

★ 활동에 대한 계획 내용

- 벽화작업 : 페인트, 붓, 벽화초안, 오일파스텔, 아크릴 물감, 등 성인들이 바탕작업을 맡아 진행하고, 청소년들은 1:1로 아동그림을 한컷 씩 맡아 초안 및 벽화작업을 진행함.
- 의운루 바닥 기름칠하기 : 가족별로 만들어진 걸레와 참기를 이용해서 바닥 칠하기
- 창포비누만들기 : 비누베이스, 창포가루, 오일, 에탄올, 몰드, 라벨, 비닐봉지 등 성인들이 비누베이스 자르기, 녹이기를 지원하고, 청소년들이 비누 만들기를 진행.

활동내용

- 5월 10일 : 벽화초안 작업 > 각 가족의 청소년구성원별로 1:1 아동그림을 맡아 함께 초안 작업을 진행함.
- 5월 17일 : 벽화바탕 칠하기 > 엄마, 아빠를 도와 벽화 바탕칠하고 주변 정리 작업을 실시함.
- 5월 18일 : 벽화그리기 : 준비된 초안을 바탕으로 벽에 위치와 크기를 정해 벽화그림을 진행함.
- 5월 24일 : 3년 동안 매일 실시하고 있는 의운루 바닥 기름칠하기를 실시함. 의운루를 청소하고, 이어서 바닥에 기름칠을 실시함.
- 5월 31일 : 창포비누 만들기 방법을 배운 후 각 청소년별로 12개의 몰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비누를 창포가루와 섞어 창포비누만들기를 실시하고, 마른 비누를 가족봉사단 라벨을 붙여 포장함. 100개씩 상자에 담음.

활동평가 및 사후 연계

★ 활동에 대한 효과와 대상자(기관, 활동장소 등)의 만족정도

가족봉사단은 봉사활동을 통해 가족관계가 친밀해지고 상호 관심 및 이해가 확대되어 가족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높다. 특히, 가족사이의 역동적 관계 외에도 가족들 간의 활동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공유하고, 이해함으로써 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진다. 가족봉사단 활동으로 실시되는 지역사회개발활동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청소년과 가족들의 관심이 유지되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가족들이 소속된 지역사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사회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가족봉사단 활동을 통해 준비함으로써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청소년들은 프로그램에 다양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부모들은 청소년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거나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는 점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전체적인 평가

마리아지역아동센터 벽화 작업은 주제 선택도 어린이로 정하고 1: 1로 벽화를 진행함으로써 각 그림에 대한 참여도가 높고 개성을 나타낼 수 있어 즐거운 작업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바탕작업은 부모님이 진행하고 그림은 청소년이 담당함으로써 역할분담도 이루어지고, 각 작업에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어 즐거운 봉사활동이 이루어졌다. 한문화재한지킴이 활동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활동으로 계속해오면서 가족봉사단 특히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이 가꾸는 특별한 장소로 거듭나고 있어 참여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단오활동을 준비하며, 미리 작업을 해야 하는 비누 만들기 작업은 청소년들의 참여도가 높고 가족단위로 비누라벨을 적어, 무료로 어르신들께 나누어드리는 행사로 나눔을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부분에서 가족들의 참여와 관심이 높았다.

★ 활동소감 및 발전방향

가족봉사단 활동은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으며, GYSD 기간 중 활동 중 특별히 나눔을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벽화작업에 프로그램적 요소를 더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동아리단체부문



어린이 및 청소년 멘토링 자원봉사활동

나눔의 의의를 더할 수 있었으며, 특별한 활동을 진행하는 기간에도 정기적으로 해온 프로그램을 유지하셔서 책임감과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책임과 역할을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지역축제에서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봉사활동으로 진행함으로써 의의를 가질 수 있었다. 향후 지역사회복지시설과 나눔을 위해 벽화작업을 매년 단위로 실시할 예정이며, 이러한 활동에 대상자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봉사라는 활동보다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가고자한다.

★ 지속적 운영방법

가족봉사단의 활동을 정규 활동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전개할 수 있는 기획활동으로 나누어 진행함으로써 다양한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봉사단 프로그램을 다양한 지역사회 가족봉사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해나가고자 한다.



활동일시 2014년 5월 18일

활동장소 마리아지역아동센터

사진설명 벽화그리기 작업 중

참가형태	청소년 동아리 · 단체
단체명 (동아리명)	과학탐구동아리 c&c
참가청소년	김은지, 최유민, 국슬기, 서승은, 장희영, 이주미, 정윤정, 정주희, 박혜원, 강하경, 공지은, 김주은, 모채연, 이유나, 조가영, 이혜민, 정세영, 권인실, 강도희, 정다은, 김희정, 양지원, 정다비, 김혜원

활동기간	활동명	활동횟수	활동시간	참여인원
2014년 4월 28일 ~ 2014년 5월 31일	어린이 및 청소년 멘토링 자원봉사활동	26	24	24
활동장소	전북어린이회관, 전북과학교육원, 전주근영여자고등학교			

활동내용	어린이 및 청소년 멘토링 자원봉사활동
	2013년 유아 문화 및 과학 특별 체험전 운영을 통한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2014년 4월 ~ 6월까지 어린이 회관 상설 코너 운영
	과학교육자원봉사활동
	전라북도 과학교육원의 과학동아리 재능 기부 과학교육자원봉사활동 운영, 폐품을 활용한 과학체험프로그램을 운영
	폐안경나눔캠페인 활동
	주변의 폐안경 모음 행사를 통해 안아주세요 단체에 기부, 폐품의 재활용 및 아프리카 난민들의 안경나눔캠페인활동 운영

위의 봉사활동은 이번 행사참여를 위해서 신규로 만든 프로그램입니까?
기존에 진행 중인 프로그램입니까?

신규 프로그램, 기존 프로그램

프로그램 기본사항

• 어린이 및 청소년 멘토링 자원봉사활동

운영 상황	2014.04.05 ~ 06.28, 매주 토요일, 14:00~15:00	전라북도 어린이 회관
2014 세계청소년자원봉사의날 - GYSD in Korea 활동		
05. 03 / 05. 10 05. 17 / 05. 24 05. 31	수학체험프로그램 (젠가, 펜타고, 하노이탑, 소마큐브) 과학체험프로그램 (폐품활용 및 과학원리 과학체험) 창의체험프로그램 (비밀편지쓰기, 골드버그 장치 꾸미기)	방문 어린이 및 청소년 매회 200~500명

• 과학교육자원봉사활동

운영 상황	2014.04.12/05.12/07.12/09.13/09.27/ 11.08 10:00~12:00 / 14:00~16:00	전라북도 어린이 회관
2014 세계청소년자원봉사의날 - GYSD in Korea 활동		
05. 12	과학체험프로그램(폐품활용 및 과학원리 과학체험) - 페플라스틱 악세서리 만들기 - 나무조각 분자 목걸이 만들기	방문 어린이 및 청소년 매회 50~100명

• 폐안경나눔캠페인 활동

운영 상황	2014.04.01. ~ 지속운영 / 12:30~13:00	전주근영여자고등학교
2014 세계청소년자원봉사의날 - GYSD in Korea 활동		
04.28 ~ 05.31	폐안경나눔캠페인 및 안아주세요 단체 기부 - 폐안경, 안경악세서리 모 - 안아주세요 단체 기부	전주근영여자고등학교 재학생 500여명

활동의 계획과 준비 내용

★ 활동의 목적과 동기, 필요성

- 지역 및 대한민국 과학축전 등의 다양한 과학체험프로그램의 운영과 청소년멘토링 프로그램 활동을 바탕으로 지속적이며 학생 중심의 다각적인 활동의 모색으로 폐품활용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 창의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통해 과학적 소양의 함양과 이를 통한 재능 기부 활동을 통해 성장의 기틀을 마련
- 폐품을 활용한 과학체험과 수학체험, 창의체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동아리 회원간의 상호 교류 및 공동체 의식의 함양
- 청소년 자원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역할에 대한 충실도를 갖추어 활동하며 선, 후배 및 지도교사와 함께 동아리 활동 및 방과후 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활동의 계획 수립

★ 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준비한 사항(사전조사, 교육 등)

- 청소년 자원봉사의 진정한 의미 파악 및 배려와 나눔의 실천에 대한 깊은 사고
- 과학탐구동아리의 실천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제의 구성
- 선, 후배들 간의 활동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동아리 시간을 활용한 교육
- 자원 재활용을 바탕으로 창의적 마인드를 구축
-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청소년 봉사활동의 진정한 의미 교육
- 자율과 창조의 주제를 통한 학생 중심의 활동 모색
- 과학 및 청소년 문화 행사 등의 다양한 체험장 등의 사전 조사
- 지속적이며 다각적 활동이 운영 될 수 있는 기회 사전 조사

★ 활동에 대한 계획 내용(사람, 용구, 장소, 위험요소, 준비물 등)

- 동아리 시간 및 방과후 시간을 활용한 활동 내용의 교육
-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활동
- 단편적 봉사활동이 아닌 청소년 자원봉사에 대한 기초지식 확립 및 체험 프로그램의 확산 도모
- 단순한 체험이 아닌 수학,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탐구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교육
- 2013년 유아문화 및 과학체험 특별전 운영을 통해 어린이 회관의 과학관 상설 코너의 운영 제안
- 매주 토요일 지속적 운영을 위해 동아리 활동 시간 등을 이용한 사전 기획
- 폐품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의 운영 방안에 대한 동아리 및 방과후 시간을 활용한 활동 계획의 수립 및 예비 체험활동 운영
- 지역 과학교육원의 과학교육자원봉사활동 등 재능 기부 프로그램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
- 교외의 체험프로그램과 함께 교내의 다각적인 활동에 대한 깊은 토론과 함께 폐안경나눔캠페인 활동 및 급식실 폐식용유를 이용한 재활용 비누 제작 및 불우이웃돕기 활동의 계획을 바탕으로 교내 활동의 계획을 병행하여 수립
- 활동 주요 내용
 - 수학체험프로그램 (젠가, 하노이탑, 펜타고, 칠교놀이 등)
 - 과학체험프로그램 (폐품활용 체험, 과학원리 체험 - 페플라스틱 악세서리, 자외선 비즈 악세서리, 나무조각 분자 목걸이 만들기, 풀잎손수건 만들기 등)
 - 창의체험프로그램 (습도의 조절에 따른 비밀편지 쓰기, 골드버그 장치 꾸미기)

활동내용

★ 행사 기간 중 활동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

- 전라북도 어린이회관 상설코너 '어린이 및 청소년 멘토링 자원봉사활동'
2013 유아문화 및 특별 과학체험 'C&C'특별전 운영을 계기로 어린이 회관의 상설 코너 운영

2014년 4월 ~ 6월 매주 토요일 14:00 ~ 16:00 지속 운영

– 활동기간 : 2014년 4월 ~ 6월

– 활동장소 : 전라북도 어린이 회관

– 활동내용

수학체험프로그램 (젠가, 하노이탑, 펜타고, 칠교놀이 등의 수학체험놀이를 통한 수학 탐구 활동)

과학체험프로그램 (폐품활용 과학체험 - 페플라스틱 악세서리 만들기, 나무조각 목걸이 만들기, 풀잎손수건 만들기,

과학원리 체험 - 자외선 비즈 악세서리 만들기, 역학바람개비 만들기)

창의체험프로그램(습도에 따른 비밀편지 쓰기, 골드버그 장치 꾸미기 등)

– 활동대상 : 전라북도 유, 초등생 방문자 매회 200 ~ 500명

• 전라북도과학교육원 '과학교육자원봉사활동'

– 활동상황

전라북도과학교육원 과학교육자원봉사활동 운영 동아리 공모, 신청 후 선정되어 연간 운영

2014년 4월 ~ 11월 중 6회 토요일 10:00 ~ 12:00, 14:00 ~ 16:00 운영

– 활동기간 : 2013년 4월 ~ 11월

– 활동장소 : 전라북도 과학교육원

– 활동내용 : 과학동아리 과학교육자원봉사활동의 자발적 참여 활동, 폐품활용 과학체험프로그램의 운영

– 활동대상 : 전라북도 유, 초등생 방문자 매회 50 ~ 100명

• 폐안경 나눔 캠페인 활동

– 활동상황

교외의 다양한 활동과 함께 교내 활동에 대한 고민을 중심으로 기획한 폐안경 나눔캠페인 활동을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

점심시간과 동아리 시간을 중심으로 캠페인 활동을 펼치고 모음과 함께 '안아주세요'단체 기부

– 활동기간 : 2012년 4월 ~ 지속 운영

– 활동장소 : 전주근영여자고등학교

– 활동내용 : '폐안경 모음'행사 진행과 기부된 폐안경을 '안아주세요'단체 기부

– 활동대상 : 전주근영여자고등학교 재학생, 폐안경 500, 악세서리 600개 기부

활동평가 및 사후 연계

★ 활동에 대한 효과와 대상자(기관, 활동장소 등)의 만족정도

- 학생중심의 청소년 봉사활동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고 자기주도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어린이회관, 과학교육원 등의 단체의 활동 기회 제공
- 폐품을 활용한 자원 재활용과 함께 효율적인 활용의 방법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참가자들의 탐구의를 통해 다각적인 기회 제공

- 활동의 결과보다 과정에 대한 깊은 사고의 기회를 갖고 배려와 나눔의 기회를 갖고 다양한 계층과의 관계를 갖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
- 지속적인 활동이 이어질 수 있는 배경이 되며, 교내외 활동을 통한 동아리 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깊은 이해도 고취

★ 전체적인 평가

- 청소년 스스로 기획하고 학교 교육과정에서 집중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고 자기주도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깨닫고,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있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하고 배려와 나눔의 실천의 공간을 갖춰 능동적인 자세로 활동에 임함.
- 청소년 자원봉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확산된 활동을 도모하고 어린이회관, 과학교육원 등 상설 및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의지를 갖고 활동함.

★ 활동소감 및 발전방향

- 과학탐구동아리의 탐구 활동을 바탕으로 폐품을 활용한 자원 재활용의 방법 습득
- 학교 생활 중심의 다각적인 활동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산적 사고의 발휘
-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있어 자신의 적성과 특별한 나눔의 기회를 통한 활동의 진정성 파악
- 소외된 계층과의 직, 간접적인 만남으로 이어져 더욱 포괄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며, 성장 발전의 원동력으로 나타남.

★ 지속적 운영방법 등(앞으로의 계획)

- 과학탐구동아리의 탐구 및 탐색 활동을 통해 적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확산
- 자율과 창조를 바탕으로 청소년 스스로 기획하고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유도
- 자원의 재활용과 같은 일상과 접목된 나눔의 활동으로 기획
- 불우이웃돕기 활동 등 더욱 확산된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



활동일시

2014. 04. 01 ~ 5. 31

활동장소

전주근영여자고등학교

사진설명

폐안경 나눔 캠페인 '안아주세요' 기부

동아리단체부문



어린이 및 청소년 멘토링 자원봉사활동

참가형태	청소년 동아리 · 단체
단체명 (동아리명)	동감오케스트라
참가청소년	김재원, 김태경, 김민규, 엄준하, 김지우, 강민경, 김세연, 윤수영, 강호준, 엄현식, 구다모, 현기연, 곽우령, 김윤구, 변지석, 정동욱, 하준수, 이가영, 안세현, 이재건, 유하영, 김찬욱, 김서영, 이화영, 정단아, 서영현, 최윤성, 하윤수, 구민주, 김미성, 정재원, 배성은, 최사랑, 최희조, 이준석, 고혜림, 김세진, 정세라, 김재민, 김종민, 김유빈, 김윤지, 원현지, 조은세, 김영아, 박서연, 양지원, 정하영, 강예원, 강수연, 구민경, 김보미, 류현지, 이승은, 김동희, 박 승, 박세원, 임희재, 김선희, 양진호, 김주연, 박태린, 권재현, 엄준희, 서경환, 고세인, 이성호, 김수민, 김태은, 문지은, 윤채원, 임도현

활동기간	활동명	활동횟수	활동시간	참여인원
2014년 5월 1일 ~ 2014년 5월 31일	소외된 이웃을 위한 음악재능기부 봉사활동	10회 이상	40	100
활동장소	여의도중학교, 서울역, 성모원 등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로노인종합복지관 어버이날 행사(음악공연, 손편지, 떡, 양말 선물 전달) • 성모원 봉사활동(매 월 1~3회 : 음악봉사활동, 식사준비, 청소, 말벗 해드리기 등) • 독거어르신 방문 봉사활동(매 월 1~2회, 파지수집 및 운반, 반찬 배달, 청소 등) • 중구노인요양센터 어르신 생신 축하 진행지원 활동 및 음악공연 • 공원음악회(세월호 추모음악회1) • 한강샛강공원 생태교란식물 제거활동 • 여의나루역 음악회(세월호 추모음악회2) • 한실내화 신발모으기(자원재활용, 불우이웃돕기)
------	--

위의 봉사활동은 이번 행사참여를 위해서 신규로 만든 프로그램입니까?	기존 프로그램
기존에 진행 중인 프로그램입니까?	

프로그램 기본사항

- 구로노인종합복지관 어버이날 행사
5.10(토) 10:00/구로노인종합복지관 강당/60명 참가(14명 단원 및 학부모)/ 구로구 산하 독거어르신 어버이날 행사-음악공연, 손편지, 떡, 양말 선물)
- 성모원 봉사활동(토, 일요일 : 음악봉사활동, 식사준비, 청소, 말벗 해드리기 등)
매월 1~3회(5/3, 5/18, 5/31)/ 대림동 성모원(독거어르신 요양원)/ 16명 참가/음악봉사활동, 식사준비, 청소, 말벗 해드리기 등
- 독거어르신 방문 봉사활동
매월 토요일 1~2회(5/10)/ 신길6동 1555번지 김OO할머니댁, 신림6동 59-2 태순O할머니댁, 신림6동 66-4 김영O할머니댁/15명 참가/파지수집 및 운반, 악기연주, 반찬 배달, 청소 등
- 중구노인요양센터 어르신 생신 축하 진행지원 활동 및 음악공연
5.15(목) 13:00/ 중구노인요양센터 1층/ 40명 참가/ 요양중이신 할머니, 할아버지/ 생신축하 공연-떡, 과일
- 공원 음악회(세월호 추모음악회1)
5.24(토) 11:00/ 여의도한강시민공원/ 100명/ 일반 시민/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생존자와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현수막, 피켓, 노란 추모 리본
- 한강샛강공원 생태교란식물 제거활동
5.24(토) 13:00/ 한강샛강공원/ 40명/ 환삼덩굴 등 생태교란식물 제거활동- 목장갑, 긴상의, 긴하의, 모자 등
- 여의나루역 음악회(세월호 추모음악회2)
5.30(금) 15:30/ 여의나루역/ 200명/ 일반 시민/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생존자와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현수막, 피켓, 노란 추모 리본
- 한실내화 신발모으기
3/2 ~ 현재/ 동아리실/ 200명 참가/ 현 실내화 현 신발을 모아서, 파지를 주어 생활하시는 독거어르신에게 전달 - 자원재활용 및 불우이웃돕기-마대, 카드

활동의 계획과 준비 내용

★ 활동의 목적과 동기, 필요성

발달 과정상 사춘기의 중학교 학생들에게 자신이 가진 음악적 재능으로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공동체 의식 및 바람직한 가치관을 정립하여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여의도중학교 '동감'은 음악(관현악)과 봉사활동을 함께하는 동아리로, 음악에 재능 있는 학생들의 연주를 통해 봉사활동을 하며,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고, 음악 재능을 계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고 창의성을 신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2010년에 5명으로 시작한 '동감'은 지금은 75명의 단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행동제어가 어렵고 자기중심적인 학생

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질풍노도의 시기의 학생들이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함으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정서적인 안정과 보람을 느끼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봉사활동을 통해 만행의 근본인 효(孝)의 중요성을 깨닫고, 경로효친 사상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 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준비한 사항(사전조사, 교육 등)

- 학기초에 각 학급 홍보와 복도 게시 등을 통해 음악에 재능 있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학생으로 선발
- 매 주 토요일과 점심시간 등에 파트 및 전체 연습
- 오케스트라 활동 뿐 아니라 중주활동도 활발히 참여
- 사전교육을 통해 봉사자의 자세 등에 대해 미리 교육함(어르신 봉사 등)
- 각 기관의 담당자와 담당 교사가 의견을 공유하고 임원단과 사전회의를 거쳐 봉사활동 일정 프로그램 등을 결정

★ 활동에 대한 계획 내용(사람, 용구, 장소, 위험요소, 준비물 등)

- 75명의 단원들과 졸업생인 객원단원들도 함께 활동
- 가족 단위로 학부모-학생이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
- 개인 악기, 파일, 보면대, 앰프, 키보드 등
- 연습 장소는 학교 음악실
- 공연이나 봉사활동 장소는 인근지역이거나 소외된 계층(독거어르신 등)을 지속적으로 찾아뵙
- 음악봉사 활동시 악기가 무거워 이동에 어려움을 겪음
- 인원이 많아 교통 안전지도 등에 유약-사전교육 철저

활동내용

★ 구로노인종합복지관 어버이날 행사

2011년부터 매 년 2~3회 씩 구로노인종합복지관 강당에서 음악공연 등을 하고 어르신들 말벗도 해드리고 있다. 5.10에는 어버이날 행사로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옛가요 '아빠의 청춘'과 '어머니의 마음' 등을 연주하였다. 연주를 마치고 용돈을 모아 준비해 간 떡과 양말선물을 준비해 가서 어르신들께 전달해 드리고 말벗을 해드리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성모원 봉사활동

대림동에 위치한 성모원에는 9분의 할머니가 계신다. 평균 85세가 넘으시고 중풍, 치매 등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가 대부분이다. 2013년부터 매 월 1~3회 찾아 뵙고 말벗도 해드리고 음악연주로 할머니들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다. 성모원과 그 주변을 청소 하고, 함께 가신 어머니들은 저녁식사로 준비하신다. 이번 5월 31일에는 다른 봉사단체(우쿨렐레)와 '어르신과 함께 하는 사랑나눔 콘잔치'를 하였다.

★ 독거어르신 방문 봉사활동

신길6동 1555번지 김유O할머니 댁과 신림6동 59-2 태순O할머니 댁, 신림6동 66-4 김영O할머니 댁을 매 달 1~2회 찾아 뵙고 있다. 김유O할머니는 4년 전 부터, 신림동 두 할머니는 작년부터 찾아뵙고 있는데 가족이 없으셔서 많이 외로워하신다. 특히 김영O할머니는 다리가 안 좋아지셔서 외출을 못하시므로 되도록 자주 찾아뵙려고 한다. 파지를 수거해 생활하시는 두 분 할머니들을 위해 단원들은 재활용품을 분리해 모아서 할머니께 전달해 드리고, 운반을 도와드린다. 어르신들과 간식이나 반찬 등도 정성껏 준비하여 전달하고 있다.

★ 중구노인요양센터 어르신 생신 축하 진행지원 활동 및 음악공연

스승의 날인 5.15에 중구노인요양센터를 방문하였다. 구로적십자 어른 회원들과 함께 어르신 생신잔치라 생신축하노래와 어르신 좋아하는 곡들로 축하 공연을 하였다. 사회는 단장인 임도O군이 맡아 진행하였고, 악기연주와 함께 댄스, 노래들도 준비하였는데 트로트인 '사랑의 배터리'와 '씨니'를 준비해가 큰 박수를 받았다. 공연이 끝나고 준비해 간 과일과 떡을 어르신들이 드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이동도 도와드렸다.

★ 공원 음악회(세월호 추모음악회1)

해마다 여의도한강시민공원에서 1년에 2~3회 음악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왔다. 5월초에 계획했었던 음악회가 세월호 침몰로 모든 일정을 연기하였다. 그러다 5월 24일에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추모음악회를 준비하였다. 5.24(토) 11시에 '천 개의 바람이 되어'를 시 낭송하며 음악회가 시작되었다. 1부에서는 희생자를 위한 '생명의 양식', '이별' 등을 연주하며 애도하였다. 2부에서는 모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자 댄스 공연을 하였다. 보면대에 노란색 추모리본과 현수막('함께 울되, 잊지 않겠습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을 달고 추모음악회를 진행해 공원을 찾은 많은 사람들과 애도의 뜻을 함께 하였다.

★ 한강샛강공원 생태교란식물 제거활동

4~6월 까지 한강샛강공원에는 환삼덩굴 등 생태교란식물이 다른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여 집중 제거하는 기간이다. 한강사업본부에서 봄철이면 실시하는데,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 '동감'단원들이 한강생태지킴이 활동으로 참여하였다. 샛강방문자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두 시간 동안 샛강에 내려가 작업을 하였다. 5월이지만 30도가 넘는 날씨에 긴 상의, 긴 하의에 목장갑 까지 매우 덥고 힘들었지만 보람 있는 활동이라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였다.

★ 여의나루역 음악회(세월호 추모음악회2)

5.30(금)에 방과후 여의나루역에서 두 번 째 세월호 추모음악회를 열었다. 지역주민들과 지하철 승객들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평안한 안식을 기원하고 그 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자 하였다. 대한민국 전체가 슬픔에 빠졌지만, 이제는 음악으로 희망을 주고자 기획하였다. 많은 승객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관심을 가져 주었고 준비한 음악에 귀 기울여 들어주었다. '솔베이지의 노래', '천 개의 바람이 되어' 등을 연주하였다.

★ 현실내화 신발모으기

3/2~현재 까지 '동감' 단원들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모아서 파지 수집하시는 할머니들께 전달하고 있다. 할머니들은 대체로 연세가 많으시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할머니들께 여쭙 보니 헌옷이나 헌신발 가격이 파지나 다른 재활용품보다 고가로 파신다고 하셔서 '동감' 단원들이 뜻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마침 3학년 졸업식 무렵이라, 현실내화가 많이 모이기 시작하였다. 새학년이 되어 1,2,3학년 전반에 포스터를 붙이고, 자원재활용 및 불우이웃돕기 하고자 하는 취지를 잘 설명하였다. 입학식, 학부모총회에서도 홍보활동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동감' 단원들은 신발 정리 부터 운반 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데, 할머니들께서 많은 학생들의 관심에 고마워 하셔서 큰 보람을 느끼며 참여하고 있다.

활동평가 및 사후 연계

★ 활동에 대한 효과와 대상자(기관, 활동장소 등)의 만족정도

올 해 4,5월은 전국민이 힘들었던 기간이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외된 이웃(독거어르신, 장애인 등)들을 위한 많은 봉사활동과 공연을 준비했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세월호 참사로 많은 일정이 연기되었다. 어르신들을 찾아뵙는 봉사활동을 일정대로 찾아 뵙고, 계획했던 음악회들은 '세월호 추모음악회'로 진행하였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아이들도 이제는 스스로 할머니들을 안아드리고, 손도 잡아드린다. 할머니들도 '착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등 친손자 대하시듯 예뻐해 주신다. 한강시민공원과 여의나루역에서의 추모음악회에서는 현수막(함께 울되, 잊지 않겠습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과 노란추모리본을 준비하였고, 진심을 담아 낭송, 연주 등을 하였다.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고, 음악으로 위로를 받고 마음의 치유가 되었다고 하는 분도 계셨다. 연습하느라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며 단원을 끼리 많이 가까워졌고, 공연에 대한 몰입도와 창의성 등이 향상되었다.

★ 전체적인 평가

해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봉사활동을 하였다. 올 해 5월은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짧은 공연 시간을 위해 단원들이 많은 연습 시간을 가졌다. 불평을 뒤로 하고 열심히 연습에 참여하였으며, 음악의 보이지 않는 힘으로 단원들은 하나가 되었고, 음악적 기량은 향상되어 감동의 음악회가 되었다. 어려서부터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서 봉사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권유로 활동을 시작한 단원들도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과 배려의 기쁨을 스스로 알게 되었고, 경로효친을 실천하며 할머니들을 섬기고 있다.

★ 활동소감 및 발전방향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매 공연 뿐 아니라 봉사활동에 임원단을 중심으로 창의적인 활동이 되도록 공연 프로그램, 사회, 지휘자들을 새롭게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다. 선생님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학생들의 발표력이나 음악적 기량을 발전시키고, 스스로 계획함으로 참여도가 매우 높다. 지속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과 진심을 담은

음악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의 연습과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여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우선되어야 더 멋진 하모니로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 지속적 운영방법 등(앞으로의 계획)

5년차 활동하는 음악봉사동아리 '동감'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한다. 세계자원봉사대회에도 작년 부터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도 음악재능기부 봉사활동을 계속 할 것이다. 졸업생들도 졸업을 하더라도 객원단원으로 참가해 후배들을 잘 이끌어 주고 있다. 75명의 단원 관리가 쉽지 않아 네이버에 카페(<http://cafe.naver.com/yddonggam>)를 만들어 공지하고 있으며, 봉사신청은 댓글로 하고 있다. 음악공연과 독거어르신 일손돕기 뿐 아니라 봉사활동 나가기 전 사전 교육과 캠페인 활동도 병행해서 자발적이고 체합에서 우리나는 활동을 꾸준히 하고자 한다.

학생소감문 (박 중 이)

신림동에 사시는 태OO, 김OO할머니들을 처음 만났을 때는 지난 봄이었다. 좁고 냄새나는 골목 사이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많은 집들은 한번 가본 사람도 찾아 갈 수 없을 정도로 복잡했다. 그곳에서 만난 할머니의 첫인상은 좀 어두워 보였다. 태OO 할머니께서는 폐지, 헌옷 등을 수집한 다음에 팔아서 나오는 얼마안 되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 하셨는데, 그 무게와 부피가 나도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였다. 무엇보다도 할머니의 주변에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홀로 살아가시는 외로움이 더 큰 어려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거의 한 달에 한번 그곳에 봉사를 갈 때 마다 폐지 및 헌옷 가지 등을 가져가서 잡까지 날라 드리고 리어카에 쌓는 일을 하거나 가끔은 바이올린을 가져가서 연주해 드리곤 하면서 힘으로 도와 드리기도 하고 마음으로 즐겁게 해드리려고 노력했다. 요즘 할머니의 얼굴이 처음 뵈 때 보다는 많이 환해지고 반가와 해주셔서 나의 기분도 좋다. 바로 가까운 곳에 이렇게 어렵게 사는 이웃이 있다는 사실에 내가 마냥 어린이이처럼만 살아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 김OO 할머니는 몸이 아프셔서 움직이지 못하시는데도 봉사를 갈 때마다 웃는 얼굴로 손을 잡아 주시며 반가워 하셔서 꼭 친할머니를 뵙는 듯한 친근한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갈 때 마다 항상 감감한 방에 홀로 외로이 누워계시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 뵈 때마다 조금이라도 그 아픔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들었고 크게 도울 수 없음이 안타까웠다. 신림동에 갈 때면 집에서 반찬이나 간식을 준비해 가는데 할머니는 항상 그냥 오라며 얼굴만 봐도 좋다고 말씀하신다. 예전의 나였다면 생각도 안했을 이러 마음을 가지게 된 내가 신기하게 생각되기도 했다. 두 할머니들은 모두 가난과 질병 보다는 주변에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더 힘들어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변에서는 독거어르신에게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독거어르신 봉사를 다니면서 나는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가서 말벗이 되고 위로의 말 한마디를 해드리는 것 그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 봉사를 하면서 시간과 상황이 닿는 대로 계속 할머니들을 찾아뵙는 봉사를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이 봉사로 독거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준 것보다 오히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유익함이 내게 더 많았다는 생각을 한다. 친할머니는 미국에 가서 얼굴 뵈기가 오래 됐다. 우리를 친손자처럼 맞아주시는 신림동할머니를 앞으로 어른이 돼서도 계속 찾아 뵈려고 마음 먹고 있다. 할머니께서 건강하게 오래 사셔서 커서도 뵈 수 있기를 바란다.

동아리단체부문



D. L. E. H. S. R.

참가형태	청소년 동아리 · 단체
단체명 (동아리명)	강일의 여신 RCY
참가청소년	박수빈, 전영아, 김민지, 유소현, 문경림, 김보민, 박수지, 김미소, 김소담, 이사라, 이서란, 홍민지, 최호정, 송지혜, 전도원, 최주희, 서지혜, 이진경, 전영인, 장현지, 김수현, 이성희, 전소현, 김효린, 최지영, 김은지, 김 인, 박시현, 석지윤, 신은채, 윤혜지, 최이나, 이수민, 이지윤, 김은지, 박다슬, 이주연, 김서현, 이수현, 이효정, 김두경, 박재은, 이소연, 이수림, 최문선, 김민승, 유혜진, 전은지, 심민정, 전은아, 한승희, 김윤영, 심혜정

활동기간	활동명	활동횟수	활동시간	참여인원
2014년 4월 25일 ~ 2013년 5월 31일	꿈 프로젝트	10	20	12
	사랑 프로젝트	6	12	59
	체험 프로젝트	0	00	00
	희망 프로젝트	2	8	40
	나눔 프로젝트	0	00	00

활동장소	전국 일원
------	-------

활동내용	2014년 강일의 여신 RCY의 봉사포스트활동 'D. L. E. H. S. R.' (꿈 사랑 체험 희망 나눔을 전달하는 따뜻함이 묻어있는 RCY)로 사랑과 봉사를 통한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깨닫고 나누어 주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즐거운 봉사활동 추진
------	---

위의 봉사활동은 이번 행사참여를 위해서 신규로 만든 프로그램입니까? 기존에 진행 중인 프로그램입니까?	신규 프로그램 + 기존 프로그램
---	-------------------

프로그램 기본사항

프로그램명	일시	장소	인원	수혜대상	비고
사랑 프로젝트	4월 25일	홀몸어르신 덕	59명	20명	기존 프로그램
희망 프로젝트	4월 26일	늘푸른마을	40명	50명	
꿈 프로젝트	4월 29일	강릉시청소년수련관	12명	200명	
사랑 프로젝트	5월 02일	홀몸어르신 덕	59명	20명	
사랑 프로젝트	5월 09일	홀몸어르신 덕	59명	20명	
꿈 프로젝트	5월 15일	강릉시청소년수련관	12명	200명	
사랑 프로젝트	5월 16일	홀몸어르신 덕	59명	20명	
꿈 프로젝트	5월 20일	강릉시청소년수련관	12명	200명	
꿈 프로젝트	5월 22일	강릉시청소년수련관	12명	200명	
사랑 프로젝트	5월 23일	홀몸어르신 덕	59명	20명	
희망 프로젝트	5월 24일	강릉시청소년수련관	12명	200명	
꿈 프로젝트	5월 27일	강릉시청소년수련관	12명	200명	
사랑 프로젝트	5월 30일	홀몸어르신 덕	59명	20명	

활동의 계획과 준비 내용

★ 활동의 목적과 동기, 필요성

전국최강 강일의 여신 RCY는 강릉일원 저소득층과 청소년들에게 행복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원진이 주축이 되어 단원들과 힘을 모아 2013년 봉사포스트활동 'D. L. E. H. S. R.' (꿈 사랑 체험 희망 나눔을 전달하는 따뜻함이 묻어있는 RCY)로 봉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느낀점은 아직도 우리의 작은 손이 주위의 어려운 분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 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준비한 사항

활동	사전조사	교육 및 연습	비고
꿈 프로젝트	청소년 선호도 조사	동아리 시간 활용 - 치어리딩 연습	기존프로그램
사랑 프로젝트	어르신 식단 조사	동아리 시간 활용 - 지킴이 활동 교육	
희망 프로젝트	장애인 선호도 조사	동아리 시간 활용 - 게임, 아트풍선 교육	

★ 활동에 대한 계획 내용(사람, 용구, 장소, 위험요소, 준비물 등)

활동	봉사인원	수혜대상	장소	위험요소	준비물	비고
꿈 프로젝트	12명	200명	강릉일원	부상	음원, 현수막	기존프로그램
사랑 프로젝트	50명	20명	어르신택	어둠	도시락	
희망 프로젝트	47명	50명	늘푸른마을	부상	각종 준비물	

활동	날짜	활동 내용		비고
꿈 프로젝트	04월 29일	재능기부 활동	강일의여신 RCY 내의 치어리딩 공연단을 통한 문화 나눔 재능기부 활동 중 퍼포먼스를 위한 연습 실시	기존프로그램
	05월 15일			
	05월 20일			
	05월 22일			
	05월 27일			
사랑 프로젝트	04월 25일	지킴이 활동	매주 금요일을 활용하여 홀몸어르신 20가구에 지킴이활동 (도시락반찬배달활동, 말벗활동, 지킴이활동, 심부름활동) 특히, 전국유일 응급조치안내문을 만들어 부착 운동 실시	기존프로그램
	05월 02일			
	05월 09일			
	05월 16일			
	05월 23일			
희망 프로젝트	04월 25일	프로그램 활동	아트퐁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장애인과 함께 협동심고취 활동 실시	신규프로그램
	05월 24일		각종 게임 프로그램을 이용한 장애인과 함께 라포 형성 활동 실시	

활동평가 및 사후 연계

★ 활동에 대한 효과와 대상자(기관, 활동장소 등)의 만족정도

활동	효과	만족도	
꿈 프로젝트	청소년들에게 꿈을...	상	청소년들에게 치어리딩 공연단의 인기는 상상초월
사랑 프로젝트	어르신들에게 사랑을...	상	어르신들에게 손녀보다 더 귀한 존재감
체험 프로젝트	저소득층에게 체험을...	상	저소득층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감
희망 프로젝트	장애인에게 희망을...	상	장애인들은 “장애 우리에게겐 長愛” 장애인들에게는 이전 없으면 안될 존재감
나눔 프로젝트	학생들에게 나눔을...	상	학생들에게 봉사전도사라는 존재감
기타 프로젝트	청소년들에게 모두를...	상	청소년들에게 RCY는 강일의 여신

★ 전체적인 평가

- 꿈 프로젝트 : 1,2,3학년이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로 하나가 되어 만들어진 강일의여신 RCY 치어리딩 공연단은 퍼포먼스를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며 인기는 상상초월이며 꾸준한 노력으로 활동을 실시
- 사랑 프로젝트 : 2008년부터 시작한 강일의여신 RCY의 트렌드 마크가 된 봉사활동으로 어르신들에게는 손녀보다도 귀한 존재감으로 이바지 하고 있으며 전국유일 응급조치안내문 부착운동 활동을 실시
- 체험 프로젝트 : 5월동안 3번의 체험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감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체험활동을 개발하고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단원들은 최선의 노력으로 활동을 실시
- 희망 프로젝트 : 월 중간고사 준비로 못한 4월 활동까지 2번 실시하였으며 “장애 우리에게겐 長愛”를 모토로 게임 프로그램 활동을 통한 라포형성 활동과 아트퐁선 프로그램 활동을 통한 장애인과 하나되는 협동심고취 활동을 실시
- 나눔 프로젝트 : 5월 한달 동안 7번의 캠페인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학생들에게 봉사전도사라는 존재감으로 봉사활동 생활화, 스승의 은혜 감사,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헌혈을 생활화하자는 캠페인을 실시
- 기타 프로젝트 : 강릉시주최 문화존 행사인 레인보우페스티벌에 참가하여 청소년들에게 RCY는 강일의 여신으로 알려졌으며 강일의여신 RCY를 보러 온더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없어서는 안될 존재감으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부스활동, 먹거리활동, 캠페인활동을 실시

★ 활동소감 및 발전방향

활동	한줄 활동 소감	한줄 발전 방향
꿈 프로젝트	“꿈을 이루게 하는 바꿀 수 없는 활동” (나의 꿈 치어리더를 만들어 준 활동)	“꿈은 이루어진다” (꿈을 위한 최고보다는 최선을...)
사랑 프로젝트	“어르신께 매주 주는 것이 아닌 받는 활동” (매주 할머니가 감사하다고 사탕을 듬뿍 줌)	“강릉일원 모든 홀몸어르신에게 사랑을” (지킴이활동의 확대)
체험 프로젝트	“봉사활동인가? 체험활동인가?” (분명 봉사인데 너무나 재미있는 활동임)	“체험활동의 다양화” (체험활동을 다양하게 기획)
희망 프로젝트	“장애 우리에게겐 長愛”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 준 활동)	“장애 우리에게겐 長愛”업그레이드 (장애인을 생각하는 프로그램 확대 개발)
나눔 프로젝트	“우리는 봉사 전도사” (너무나 많은 봉사활동 덕에 붙은 닉네임)	“SNS를 통한 캠페인활동”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캠페인 활동)
기타 프로젝트	“우리는 전국최강 강일의여신 RCY” (단원들의 미모와 끼가 여신급이란 뜻)	“전국최강을 넘어 글로벌최강으로...” (세계최강을 향한 힘찬 기약...)

★ 지속적 운영방법 등(앞으로의 계획)

- 꿈 프로젝트 : 꿈 프로젝트의 upgrade로 전국최강을 넘어 글로벌최강을 향하여...
- 사랑 프로젝트 : 사랑 프로젝트의 upgrade로 전국최강을 넘어 글로벌최강을 향하여...
- 체험 프로젝트 : 체험 프로젝트의 upgrade로 전국최강을 넘어 글로벌최강을 향하여...
- 희망 프로젝트 : 희망 프로젝트의 upgrade로 전국최강을 넘어 글로벌최강을 향하여...
- 나눔 프로젝트 : 나눔 프로젝트의 upgrade로 전국최강을 넘어 글로벌최강을 향하여...
- 기타 프로젝트 : 기타 프로젝트의 upgrade로 전국최강을 넘어 글로벌최강을 향하여...

대상 양운중학교봉사동아리 The Ceepers

활동봉사명 : 문화유산 지킴이 활동 (사전회의/준비)

활동시간
60분

1 회기	
봉사자 명단	총 10 명 김서연, 김시연, 김유빈, 김은서, 박세훈, 최수원, 최재원, 이가은, 이수민, 우현성
활동장소	양운중학교 수학교과실2
활동목표	봉사활동에 대한 기본 교육을 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계획한 후 우리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조사하여 학습한다.
준비물	활동조끼, 카메라, 필기도구, 인터넷, 사전조사자료(우리지역의 문화유산)

활동내용

1. 동아리 대표(이수민)를 중심으로 동아리 멤버의 역할을 분담하였습니다.
 - 사전 자료 수집 : 모든 멤버
 - 사진/동영상 촬영, UCC제작/홍보(SNS) : 김유빈, 박세훈, 최수원, 최재원
 - 민원 보고, 설문조사/캠페인 : 이가은, 이수민, 우현성
 - 자료 정리, 보고서작성 : 김서연, 김시연, 김은서
2. 해운대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조사하였습니다.
 - 해운대 구석기 유적지(비), 해운대석각, 송정역, 간비오산 봉수대, 마고당과 천제단
3. 문화유산 탐방 활동 일시와 장소를 정하고 구체적인 활동 방법을 계획하였습니다.
 - 10월 29일(수) 14:00~18:00 해운대 구석기 유적비
 - 10월 31일(금) 14:00~18:00 송정역
 - 11월 02일(일) 14:00~18:00 간비오산 봉수대
 - 11월 09일(일) 14:00~18:00 장산 마고당과 천제단
 - 11월 16일(일) 14:00~18:00 해운대 석각
4. 봉사활동에 대한 기본교육과 활동 중 안전사고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활동봉사명 : 문화유산 지킴이 활동

활동시간
240분

2 회기	
봉사자 명단	총 10 명 김서연, 김시연, 김유빈, 김은서, 박세훈, 최수원, 최재원, 이가은, 이수민, 우현성
활동장소	해운대 구석기 유적비
활동목표	우리가 살고 있는 해운대의 역사적 사실을 알아보고 해운대 구석기 유적비의 관리 실태를 점검한 후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해당기관에 보고한다.
준비물	활동조끼, 카메라, 쓰레기 집게, 쓰레기봉투

활동내용

우리가 살고 있는 해운대 지역이 구석기 유적지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고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문화유산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해운대구청과 부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운대석각, 송정역, 마고당과 천제단, 간비오산 봉수대 등 다양한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해운대 구석기 유적비를 탐방하였습니다. 해운대 신도시의 햇살공원에 이 지역이 해운대 구석기 유적지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잡초가 비의 틈으로 자라고 있었고 수많은 담배꽂초와 음식물 쓰레기 등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화 활동을 한 후 이곳이 어떻게 관리되면 좋을지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 카페에 올려서 정보를 공유하였고, 공원을 찾은 시민들과 인터뷰를 하며 활동 영상을 촬영하여 UCC를 제작하였습니다.

해운대 구석기 유적비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잡초를 제거하고 쓰레기를 치운 후,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고 유적비가 잘 관리되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해운대구청에 민원을 올렸습니다. 그 결과 11월 10일(월) 잡초 제거 등 환경정비를 할 것이며 유물들은 부산박물관과 해운대구문화복합센터에 전시되어 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활동봉사명 : 문화유산 지킴이 활동

활동시간
240분

3 회기	
봉사자 명단	총 10 명 김서연, 김시연, 김유빈, 김은서, 박세훈, 최수원, 최재원, 이가은, 이수민, 우현성
활동장소	(구)송정역
활동목표	현재 사용되지 않는 동해 남부선 기차역인 송정역이 근대 문화유산이라는 사실을 학습하고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준비물	활동조끼, 카메라, 쓰레기 집게, 쓰레기봉투

활동내용

송정역 시민 갤러리는 동해 남부선 철도 이설로 폐쇄된 근대 문화유산 제302호인 옛 송정역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3년간 대관하여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2014년 5월 1일부터 새롭게 개관하였습니다. 이곳은 시민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공예작품 갤러리와 지역 신진 작가들의 도예 공방, 도예 체험교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리하는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탐방활동을 한 후 인터뷰를 하고 영상을 촬영하여 UCC를 제작하였습니다.

송정역 안내판은 잡초와 나뭇가지로 가려져서 쉽게 눈에 띄지 않아 이곳이 문화재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화단은 수많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고 담배꽂초와 쓰레기들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환경정화 활동을 한 후 이곳이 어떻게 관리되면 좋을지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 카페에 올려서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송정역 안내판을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위치를 변경하거나 잡초를 제거하여 화단을 정비하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해운대구청에 민원을 올렸습니다. 그 결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민원이 이첩되어 11월 13일(목) 잡초 제거 등 환경정비가 예정되어 있다는 답을 받고, 우편으로 공문도 받았습니다.

활동봉사명 : 문화유산 지킴이 활동

활동시간
240분

4 회기	
봉사자 명단	총 5 명 김유빈, 박세훈, 이가은, 이수민, 우현성
활동장소	간비오산 봉수대
활동목표	우리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알아보고 간비오산 봉수대를 탐방하여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준비물	카메라, 활동조끼, 쓰레기 집게, 쓰레기봉투

활동내용

우리가 살고 있는 해운대 지역의 역사적·지리적 특징과 봉수대에 대하여 조사하고 학습하였습니다. 간비오산 봉수대는 황령산 봉수대와 기장남산 봉수대 사이에 있는 봉수대로 현재 유적지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간비오산 봉수대는 수많은 등산객들이 장산을 등반하면서 잠시 머물기도 하고, 부산 불꽃 축제를 관람하는 장소로 인기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탐방을 하여 관찰하였더니 봉수대 터와 그 위에 새롭게 쌓아 올린 대리석이 어색하게 놓여 있어서 그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봉수대의 모습이 어떠했을지 궁금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돌들이 바닥에 놓여 있었고, 바닥은 정비되지 않아서 잡초와 잔돌들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하니 비교적 깨끗하였지만 산임에도 불구하고 담배꽂초와 술병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진을 찍어 카페에 올려서 정보를 공유하였고, 활동 영상을 촬영하여 UCC를 제작하였습니다.

봉수대 주변에 있는 돌과 바닥 정비가 필요하고 표지석의 용도를 알고 싶다는 내용으로 해운대구청에 민원을 올렸습니다. 그 결과 봉수대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현재 모습은 70년대에 국방부에서 복원하였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표지석은 '지적삼각점(국토전반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지적기초측량의 기준이 되는 평면기준점)'임을 알 수 있었고, 돌과 잡초 등은 정비하였으며 안전상의 문제가 없으면 예산이 투입되는 보수는 어렵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활동봉사명 : 문화유산 지킴이 활동

활동시간
240분

5 회기	
봉사자 명단	총 8 명 김서연, 김시연, 김유빈, 김은서, 박세훈, 최수원, 최재원, 이가은
활동장소	장산의 이모준송덕비, 마고당과 천제단
활동목표	이모준송덕비를 통하여 남을 배려하는 봉사정신을 학습하고 마고당과 천제단을 탐방하여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준비물	카메라, 활동조끼, 쓰레기 집게, 쓰레기봉투

활동내용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장산 대천공원은 주말을 이용하여 수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었는데, 지난 번 활동 후 해운대구청에 올린 민원을 보고 The Ceepers 봉사활동을 격려해주시는 어르신을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활동을 하면서 사진을 찍어 카페에 올려서 정보를 공유하였고, 활동 영상을 촬영하여 UCC를 제작하였습니다.

걸인들을 돌보아 주던 정신을 기리자는 의미로 세워진 이모준송덕비에 도착하여 남을 배려하는 봉사정신을 생각하며 탐방활동을 하였습니다. 주변은 깨끗하였고 설명 판이 있어서 등산하는 시민들도 쉽게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체육공원을 지나 오르다 보면 산 중턱에 수많은 돌무더기인 너털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 판이 오래되어 뜯겨지고 흐려져서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구청에 정비를 해달라고 민원을 올렸습니다. 그 결과 등산로 이정표 및 안내판을 일제 조사 중에 있어 조사가 끝나는 대로 보수를 할 것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마고당과 천제단을 오르는 길이 산길이라서 미끄러웠는데 중간에 나무 계단을 설치하고 바닥을 정비하여 비교적 쉽게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고당에는 제를 올렸는지 초가 켜져 있어서 산불위험이 발견되었고, 음식물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어서 환경정화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올렸더니 그 결과 수시로 기원을 위한 초가 발견되고 있어 순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마고당과 천제단의 관리주체인 장산신당보존위원회 주관으로 환경정비를 할 수 있도록 당부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활동봉사명 : 문화유산 지킴이 활동

활동시간
240분

6 회기	
봉사자 명단	총 7 명 봉사자 명단 : 김서연, 김시연, 김은서, 최수원, 최재원, 이가은, 우현성
활동장소	해운대석각과 동백섬
활동목표	우리지역의 문화유산인 해운대석각과 동백섬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한다.
준비물	카메라, 활동조끼, 쓰레기 집게, 쓰레기봉투, 스티커 설문 판, 스티커

활동내용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45호인 해운대석각과 동백섬에 대하여 조사하고 학습한 후 탐방활동을 하였습니다. 해운대 백사장에서 동백섬으로 가는 입구에는 해운대 석각 모형이 설치되어 있어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동백섬 정상에는 최치원 선생 동상과 비문 등이 있었습니다. 주변 환경은 깨끗하였지만 수돗가 하수관이 막혀 있어서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쓰레기 집게를 이용하여 뚫어 보려 하였지만 모래가 넘쳐 나올 뿐 해결이 되지 않아서 해운대구청에 민원을 올렸습니다.

동백섬에 있는 등대 옆 해안가에는 해운대석각이 있습니다. 최치원 선생이 바위 위에 새긴 '海雲臺'라는 글씨인데 울타리와 나뭇가지로 인하여 사람들 눈에 쉽게 띄지 않아 그 앞에서 안내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지역의 문화유산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스티커 판을 제작하여 설문을 하였습니다. 해운대석각, 송정역, 마고당과 천제단, 간비오산 봉수대 네 곳 중에서 알거나 가본 곳에 스티커를 붙이는 활동을 통하여 문화유산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등대 앞 도로가 움푹 패여 있어서 유모차나 휠체어가 이동할 때 불편함이 발견되어 해운대구청에 민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하면서 사진을 찍어 카페에 올려서 정보를 공유하였고, 활동 영상을 촬영하여 UCC를 제작하였습니다.

활동봉사명 : 문화유산 지킴이 활동 (활동정리/평가)



7 회기	
봉사자 명단	총 10 명 김서연, 김시연, 김유빈, 김은서, 박세훈, 최수원, 최재원, 이가은, 이수민, 우현성
활동장소	양운중학교 수학교과실2
활동목표	문화유산 지킴이 활동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토론회를 통하여 향후 활동을 계획한다.
준비물	The Ceepers 활동 UCC, 보고서

활동내용

동아리 대표가 지난 4주 동안의 봉사활동을 정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멤버들이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몰랐던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알게 되었고, 생각보다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어서 뜻 깊은 활동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해운대구청에 민원 제기하였더니 직접 확인하고 고쳐나가겠다는 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관심했던 우리가 관심을 갖고 문화유산을 아끼고 보존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활동소감문을 작성하고 활동자료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소중한 추억이 되었고 청소년 시절에 우리 지역사회를 위하여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 뿌듯하였습니다.

우리지역의 문화유산 지킴이 활동 UCC를 제작하여 함께 시청하면서 활동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있는 The Ceepers 카페[<http://cafe.naver.com/theceepers>]와 유튜브에 UCC를 공유하여 가족, 친구, 시민들에게 해운대 지역의 문화유산을 소개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봉사동아리 The Ceepers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여 지금의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과 여성 역사관을 탐방하여 학습하고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할 것이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플래시몹과 희움 팔찌 판매 후 기부활동을 할 것입니다.



부산관광고등학교 '나눔'



활동봉사명 : 지적 장애인과 함께하는 푸드테라피

봉사자 명단	총 12 명 나해랑, 하혜진, 권미경, 정예린, 김유승, 유광혁, 김민주, 이미래, 이수현, 전예지, 진민수, 이한민
활동장소	부산관광고등학교
활동목표	나눔 동아리에 속한 조리과 학생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지적장애우분들에게 식재료와 조리도구의 사용법을 알고 경험하지 못한 음식을 요리하고 맛을 봄으로 새로운 경험으로 사회성 향상과 공동체 속에서의 나눔을 인식하는 데 목적을 두어 정서적, 심리적 치료가 가능한 푸드테라피 활동을 운영.
준비물	따뜻한 마음과 조리도구, 앞치마

활동내용

직접 배우는 조리를 통해 몸이 불편하시고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들과 함께 간단한 음식을 만들면서 마음의 치유를 해 줄 수 있다는 점이 저희가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봉사 활동을 하는 이유입니다. 나와 조금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배려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배우게 되었고, 평범한 고등학생 봉사자가 아닌 장애우분들과 친구가 되고 조손가정 아이들에게 가족 같은 언니, 오빠가 되고 싶은 소망이 담긴 동아리입니다. 아직도 사회 분위기는 어렵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과 발달 장애우분들 등에 대한 인식이 '나쁜' 것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작지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진 재능을 여러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새로운 의미의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봉사할 때에는 장애우분들을 어떻게 보듬어 주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활동을 척척해 나가는 선배들의 모습이 참 멋져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난 지금은 선배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봉사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진심된 마음이었고, 편견을 갖지 않는 열린 사고였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봉사에 임하다 보니 자연스레 봉사가 즐거워지고 더는 이전의 시간 채우기 봉사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역시 후배가 생기고 이러한 마음을 전해주면서 앞으로도 아름다운 활동을 실천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불을 쓰게 되면 혹시나 다치실까 걱정 되는 마음에 치킨은 저희가 미리 오븐에 구워 전처리를

활동시간
240분
5040분(총 3회)

해 놓고 활동을 시작 하였습니다. 넓은 토피아에 파프리카와 치킨, 양파 등을 올려 머스터드소스를 곁들이는 간단한 메뉴였습니다. 먼저 시연을 보고 활동을 하는데 음식을 만드는 손길 하나하나 반짝거리는 눈망울들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실습을 시작하고 재료 손질을 하는 과정에서 칼을 쓰게 되었지만 저희의 걱정과는 다르게 활동에 정말 집중을 잘 해주셔서 다치는 사람 하나 없이 맛있는 토피아 2개씩을 모두 완성하시면서 활동을 잘 해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별거 아닌 저희와의 활동에도 집중해주시고, 즐거워해 주시고, 맛있게 음식을 드셔주셔서 저희는 이 분들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달 천마 재활원 장애인 분들과의 활동을 하면서 저희에게 그 분들이 배우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뭐든지 열심히 하려 하시고 저희의 말 하나하나 조차도 즐거워 해주시며 밝게 웃으시는 이 분들을 보며 늘 새롭게 배워가는 느낌입니다.

활동봉사명 : 사랑의 빵 나누기

봉사자 명단	총 7 명 김유승, 유광혁, 김민주, 이미래, 이수현, 전예지, 진민수
활동장소	부산관광고등학교
활동목표	사랑의 빵 나누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활동하기로 하여 수업이 없는 토요일 쉬는 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정한 친구들이 꾸준히 제작하고 포장하여 지역의 소외된 저소득 어린이와 조손가정, 독거노인 등을 위한 마음으로 나눔행사를 마련하였다.
준비물	나눔의 마음과 빵 만들기 재료, 앞치마

활동내용

부산 지역에서 가장 낙후된 남부민동은 지역소외 계층이 제일 많은 곳이며 사랑이 가장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으로 서로 여유가 있는 시간에 모여 빵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같이 만들기도 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저희끼리 만들어 나눠주기도 하였습니다.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반복하는 것과 나눠주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이기도 하면서 보람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쉬는 토요일 다른 친구들처럼 놀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지만 받으시는 분들의 표정을 보면서 나의 작은 마음이 큰 기쁨이 될 수 있음에 설 수 없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능기부'라는 봉사를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많은 재능과 끼를 가진 학생들이 많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재능기부가 이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푸드테라피 활동은 재미있는 활동이자 체험이라 나이, 성별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쉽고 특별하게 즐기며 참여 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이런 봉사활동이 대중화되도록 우리 나눔 동아리는 더욱 헌신적이고 예의 바른 자세로 봉사활동에 임할 것입니다.



활동일시 2014. 11. 21

활동장소 부산관광고등학교 제과제빵실

사진설명 왼쪽 사진 : 미리 구워 놓은 치킨을 직접 손으로 찢으시고 계십니다.
오른쪽 사진 :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함께 토피아의 속에 들어갈 파프리카를 채 썰고 계십니다.



대전 삼천중학교 소향무적

활동봉사명 : 벼룩시장 참가 (자원재활용 및 유기동물보호를 위한 기금마련)

활동시간
180분

1 회기	
봉사자 명단	총 7 명 최정아, 장주은, 박윤빈, 신현주, 윤재원, 배기웅, 임채현
활동장소	대전 서구 한밭수목원 원형잔디광장
활동목표	재사용 가능한 물품을 서로 교환, 판매하는 활동을 통하여 자원의 순환과 절약, 경제활동을 배우고, 궁극적으로 동아리 봉사활동의 주목적인 유기동물 보호를 실천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한다.
준비물	각자의 안 쓰는 물품, 돗자리, 잔돈, 물, 돈 모아두는 통(기금함)

활동내용

저희 '소향무적'은 대전 삼천중학교2학년 독서토론 자율동아리입니다.

학교권장도서 '희망의 이유'-(제인구달), '펠릭스는 돈을 사랑해'-(니콜라우스 피퍼), '필독도서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장 지글러), 유기동물에 대한 슬픈 보고서(고다마 사에)'를 읽고 토론 중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찾게 되었고 첫 번째로 벼룩시장을 계획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강아지를 규칙적으로 운동시키며 반려견으로 사랑하고 보살피는 가정이 많지만 반면에 주인에게 버려져서 공원을 배회하다 신고로 동물보호소로 이송되는 동물도 많습니다.

일손이 딸리는 동물보호소를 돕고 선물할 사료를 준비하기 위해 벼룩시장 참가를 계획하였습니다.

우선 대전 시청에서 운영하는 벼룩시장에 참가신청을 하고 각자 집에서 안쓰는 물건을 선별하였습니다.

11월15일 1시 한밭수목원 원형광장에 모여 주최측에서 제공하는 케노피를 받고 벼룩시장 물건판매 준비를 하였습니다. 벼룩시장 물건 판매대금을 유기동물 보호기금으로 모았습니다.

우리가 모은 기금은 98200원이었고 다음 봉사활동 장소를 확인하였으나 대전시동물보호센터에서 시설이 더 열악하고 더 도움이 필요한 사설동물센터로 봉사활동을 가면 좋겠다고 추천해주셔서 '대전유기견사랑쉼터'카페에 회원가입을 하고 그 곳에 전화를 걸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활동봉사명 : 유기동물 보호 일손 돕기 및 보호활동(먹이주기 및 우리 청소, 산책시키기 등)

활동시간
180분

2 회기	
봉사자 명단	총 8 명 최정아, 장주은, 박윤빈, 신현주, 강지원, 윤재원, 배기웅, 임채현
활동장소	대전유기견사랑쉼터(cafe.daum.net/dogsbackhome) - 대전시동물보호센터에서 대전시동물보호센터 보다 더욱 시설이 열악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고 동아리회원들에게 추천해 주셔서 장소를 이곳으로 변경함
활동목표	동아리 회원 스스로의 힘으로 마련한 유기동물 보호기금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대전시동물보호센터를 찾아 유기동물에게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먹이주기, 우리청소, 산책시키기 등을 실천한다.
준비물	장갑과 청소하기 편리한 복장, 동물 먹이(사료)

활동내용

저희 '소향무적'은 대전 삼천중학교2학년 독서토론 자율동아리입니다.

학교권장도서 '희망의 이유'-(제인구달), '펠릭스는 돈을 사랑해'-(니콜라우스 피퍼), '필독도서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장 지글러), 유기동물에 대한 슬픈 보고서(고다마 사에)'를 읽고 토론 중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찾게 되었고 첫 번째로 벼룩시장을 계획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강아지를 규칙적으로 운동시키며 반려견으로 사랑하고 보살피는 가정이 많지만 반면에 주인에게 버려져서 공원을 배회하다 신고로 동물보호소로 이송되는 동물도 많습니다.

일손이 딸리는 동물보호소를 돕고 선물할 사료를 준비하기 위해 벼룩시장 참가를 계획하였습니다.

벼룩시장에서 모은 기금은 98200원이었고, 대전유기견사랑쉼터 카페에 기부를 하였습니다.

11월 16일 2시~5시까지 대전유기견사랑쉼터(cafe.daum.net/dogsbackhome)에 모여 보호센터에 있는 동물들에게 먹이주기, 우리청소, 산책시키기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곳은 매우 시설이 열악하였고,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라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였습니다. 이 곳에 있는 개(강아지)들을 데리고 산책을 할 때 보니 동물들은 병들거나 장애를 가져서 주인에게 버림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대전시동물보호센터에서는 이런 개들을 일정기간 보호하다가 안락사를 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그 곳에서 이 곳으로 데리고 오는 경우도 많다고 하였습니다. 개들은 산책을 시키느라 밖

으로 나가자 너무 흥분을 하고 좋아하였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 이렇게 산책을 한 것이 최근 3개월 만의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척 보람이 있었습니다.
활동을 마친 후 우리들처럼 단체로 봉사를 오는 경우 한꺼번에 많은 동물들을 산책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앞으로도 동아리 차원으로 봉사활동을 계속 해야겠다는 것을 회의하였습니다.



활동사진

활동일시	2014.11.16. 14시~17시(3시간, 180분)	활동장소	대전유기견사랑센터
사진설명	벼룩시장 물건판매활동을 통해 마련한 유기동물 보호 기금(98200원)과 유기견사랑센터에 필요한 못쓰는 이불과 방석 등을 준비하여 대전유기견사랑센터를 방문하여 유기동물 먹이주기, 우리청소, 산책시키기 등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활동봉사명 : 농작물 수확하여 밀반찬 만들어 도시락 배달하기

활동시간
5시간

1 회기	
봉사자 명단	총 14 명 고수진, 백문경, 양찬영, 정유진, 정혜원, 이한수, 황진엽, 황진승, 차예림, 이서정, 이찬영, 박민영, 최자수, 백지은
활동장소	중리 제1텃밭, 오투사무실
활동목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주말에 가족, 선생님과 함께 의미있는 시간을 갖는다. 또, 지역의 독거어르신, 다문화, 저소득층가정에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 배달함으로써 자존감 향상과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 학습한다.
준비물	박스(농작물 수확하여 담을 통), 장갑, 호미, 삽.

활동내용

이른 아침(쉬는 일요일 9시 40까지 텃밭에 집결하기란 우리들에겐 이른 아침임을 이해해 주십시오 ^^;) 중리 제1텃밭에 모여, 부추를 수확하고 양파 심을 고랑을 만들고, 거름과 함께 비닐을 깔고 양파모종을 심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수확한 오투표 부추는 오투사무실에 둘러앉아 부추전을 부치고(우리들 전공이 전 부치기입니다.), 여름에 수확한 감자로 감자조림과 오리불고기를 만들어, 도시락통에 정성스럽게 담아 포장한 후, 지역의 독거어르신가정과 다문화, 새터민가정에 배달합니다.
이제는 서로 팀원들간에 얼굴만 보아도 마음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친해져서, 무슨 반찬을 만들고 어떻게 팀을 짤지도 금방 해결되어서 더 믿음이 가는 오투봉사단입니다.

할머니·할아버지들께선 어떻게 중학생들이 반찬을 이렇게 잘 만드냐며 감탄을 할 정도로 반찬과 간식 맛이 최고라고 하십니다. 비밀은 사전에 어머니들께 먼저 교육을 받고, 비밀 레시피는 지식인 네이버(컴퓨터를 활용)씨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리고 요리책도 구입을 해서 만들기 편하면서도 맛도 최고인 방법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 봉사활동은 힘들기보단 항상 새롭고, 흥미롭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재능이 있다는 점도 놀랍고, 도시락을 만드면서 보람과 마음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혼자아닌, 우린 함께라서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활동봉사명 : 농작물 수확하여 독거어르신 가정에 배달하기

활동시간
5시간

2 회기	
봉사자 명단	총 14 명 고수진, 박성수, 서효린, 이서정, 이찬영, 윤령혜, 이상철, 최민준, 황진승, 황진엽, 이한수, 권희정, 박민영, 신해찬
활동장소	만화리 제2텃밭, 오투사무실
활동목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주말에 가족, 선생님과 함께 의미있는 시간을 갖는다. 또, 지역의 독거어르신, 다문화, 저소득층가정에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 배달함으로써 자존감 향상과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 학습한다.
준비물	박스(농작물 수확하여 담을 통), 장갑, 호미, 삽.

활동내용

만화리 제2텃밭에 9시 40분까지 집결하여, 고구마를 수확하였습니다. 두근두근 도대체 고구마가 어떻게 자랐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엇그제 고구마 모종을 심었는데 이렇게 잘 자라주어서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구영중 오투단원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해서 새로운 친구들과 즐겁게 활동을 했습니다. 오투봉사단의 특이한 매력은 중학생이라면 누구라도 한 번씩은 함께 할 수 있게 모든 활동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중학생들도 함께 활동하고 올 해 봉사단을 만들어서 보람도 두배로 느낍니다.

고구마를 수확하고 2차로 심은 배추(29일 김장배추는 제1텃밭에 1,000포기 있습니다.)를 수확하여 오투사무실로 이동하여 배추 겉절이와 김치를 담았습니다. 오늘 수확한 고구마와 배추겉절이는 지역의 독거어르신가정과 다문화·새터민가정에 배달했습니다.

오늘의 특이한 활동은 29일에 있을 김장행사에 대비하여, 먼저 김치양념 만들기과 배추절이기, 양념 치대기 등 여러 과정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김장에 대해서 설명 들으며, 우리가 만든 김치를 볼 때면 김치에도 애정을 느낍니다. 음식의 소중함도 가슴에 와 닿고, 학생이지만 지역의 주민으로써 책임감도 느끼고, 가족의 소중함도 알 수 있습니다.

활동봉사명 : 독거어르신 가정에 도시락 배달하기

활동시간
5시간

3 회기	
봉사자 명단	총 17 명 봉사자 명단 : 고수진, 이한수, 신해찬, 박민영, 백지은, 최지수, 차예림 이서정, 이찬영, 이가현, 이지현, 서효진, 최민주, 황진승, 황진엽, 박성수, 양찬영
활동장소	중리 제1텃밭, 오투사무실
활동목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주말에 가족, 선생님과 함께 의미있는 시간을 갖는다. 또, 지역의 독거어르신, 다문화, 저소득층가정에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 배달함으로써 자존감 향상과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 학습한다.
준비물	박스(농작물 수확하여 담을 통), 장갑, 호미, 삽.

활동내용

씨앗을 심었는데 시금치로 자라고, 상추로 자라고, 무로 자라고... 참 신기합니다. 씨앗의 모양은 모두 비슷해서 뭔줄 잘 몰랐는데, 자라면서 완전히 다른 모양입니다. 농작물을 가꾸면서 인내도 배우고, 날씨와 기후에 대해서도 몸으로 느끼고, 환경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농부님들의 힘든 노동과 함께 농작물의 소중함으로 음식을 함부로 남길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농사일이 얼마나 힘든 수행의 길인지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신기하게 자란 시금치와 무로 나물을 만들었습니다. 거름을 많이 주어서인지 참, 빨리도 탐스럽게 자란 농작물이 마냥 신기합니다. 그냥 먹어도 맛난 무와 이제까지 몰랐던 맛난 시금치! 우리가 만들어서인지 더 맛이 납니다. 작년에 담은 김치(작년에 직접 수확한 배추로 담은 김장김치)로 김치전을 만들고, 기증 들어온 두부로 전을 부쳤습니다. 친구들과 둘러앉아 만든 반찬들은 만드는 과정이 재미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잘 할 수 있는가?'는 그 유명한 구영중의 교훈입니다. 처음엔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걱정을 많이 하였지만 우린 무한한 힘을 가진 구영중 오투단원들입니다. 모르는 것은 물어보고, 찾아보고, 배우고 하니 너무 즐거운 활동이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은 도시락을 만들어 활동하고, 수시로 팀을 이루어 가족과 함께하는 텃밭활동은 우리를 성장하게 해 줍니다. 친구들과 선생님, 부모님과 함께 수다, 이슈토론, 학교생활 등 모든 공감된 내용을 봉사활동을 통해서 하니 일석삼조, 즐거움도 3배! 보람된 학교생활! 역시, 구영중 오투봉사단!!! 최고입니다.*^^*



활동일시 2014. 11. 9.

활동장소 오투사무실

사진설명 수확한 배추로 김치 담아 독거어르신가정에 배달하기♥



활동일시 2014. 3. 16.

활동장소 연화노인요양원

사진설명 어르신들과 마카로니 목걸이 만들기 프로그램 진행*^^*

자기주도형 봉사활동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청소년!

인쇄 : 2014년 12월 17일

발행 : 2014년 12월 17일

발행인 : 김선동

발행처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120-732) 서울시서대문구 경기대로47 진양빌딩 5층
02-330-2800(代)

인쇄처 : 디자인 인 / 02-783-8582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